

제 11회

# 등대문학상 수상작품집



## 바다, 우리의 또다른 삶의 이야기

바다는 우리가 살아 숨 쉬고 활동하여 온 삶의 터전이었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다양한 이야기와 철학을 만들어 온 문학적 공간이었습니다.

인류는 생존과 번영을 위해 바다를 여행해 왔으며, 이러한 경험에 상상을 더하여 다양한 해양문학 작품을 통해 바다를 기록하여 왔습니다. 따라서, 그와 더불어 살아왔던 사람들의 의미 있는 삶을 다양한 측면에서 바라보는 작업은 인류문명의 한축인 바다를 이해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 11회

등대문학상 수상작품집



## 차례



발간사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04
축사	항로표지기술원장	06
축사	울산항만공사 사장	08

## 수상작

대상	소설	남선정 - 단 하나의 빛	13
최우수	시/시조	김영건 - 라디오존데	33
	소설	김성대 - 땅 끝에서 바다 끝에서	37
	수필	박미림 - 펄	59
우수	시/시조	이석재 - 팔미도	67
	시/시조	유종인 - 등대식당	70
	시/시조	박수호 - 껌보선창	72
	소설	박복영 - 포세이돈의 귀환	77
	소설	이충호 - 아버지의 등대	96
	소설	박영숙 - 고백의 바다	120
	수필	김삼복 - 기도 등대의 지문	141
	수필	김은숙 - 아버지의 그물	146
	수필	변재영 - 등대바라기	152

## 심사평

시/시조	권오휘   도순태	160
소설	강희철   이승현	162
수필	김수우   나정욱	164



말간사

## 바다, 우리의 또 다른 삶의 이야기

바다는 누군가에게는 삶과 인생의 터전이자 희로애락의 공간이기도 합니다.

작게는 생존과 생활에서부터, 크게는 인류 역사의 터전이라는 측면에서 인간과 바다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미래에도 불변의 사실일 것입니다.

바다는 우리가 살아 숨 쉬고 활동하여 온 삶의 터전이었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다양한 이야기와 철학을 만들어 온 문학적 공간이었습니다.

인류는 생존과 번영을 위해 바다를 여행해 왔으며, 이러한 경험에 상상을 더하여 다양한 해양문학 작품을 통해 바다를 기록하여 왔습니다. 따라서, 그와 더불어 살아왔던 사람들의 의미 있는 삶을 다양한 측면에서 바라보는 작업은 인류문명의 한축인 바다를 이해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13년 울산항 개항 50주년을 맞이하여 특별행사로 추진된 등대문학상이 올해로 해를 거듭하여 11회째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문학의 지평 확장과 해양문학의 발전을 위해 등대문학상은 그간 작지만 꾸준한 역할을 수행하여 왔다고 자부합니다. 앞으로도 등대문학상은 바다와 같이 넓고, 깊은 ‘해불양수(海不讓水)’의 마음으로 이 모든 바다의 이야기를 담아 내기를 소원합니다.

이번 공모전의 성공적 개최와 수상 작품집 발간을 위하여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울산항만공사, 한국항로표지기술원, 그리고 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문인협회(경북, 예천) 및 한국작가회의(경남, 울산, 부산), 교수님 등 심사 위원님들과 등대문학상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 주신 수상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더 풍요로운 문학의 바다를 위해 등대문학상에 대한 더 많은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양진문







## 축사

「제11회 등대문학상」의 뜻깊은 여정에 함께해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올해도 많은 분들께서 따뜻한 문학의 숨결을 등대문학상에 불어넣어 주셨기 때문에 성황리에 공모전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작품집은 수상자들의 열정과 재능을 담아낸 노력의 결실이자, 창작의 기쁨과 예술의 아름다움을 공유하고자 하는 우리들의 열정도 담겨있습니다. 접수된 수 많은 작품 중 가장 빛나는 작품들을 선정하여 수상작으로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등대는 어둠을 밝히고 안전한 항로를 알려주는 존재입니다. 문학 또한 우리의 삶과 마음의 어둠을 비추고 인생의 항로를 밝혀주는 것과 같습니다. 이 공모전에 참가한 분들은 자기 작품을 통해 이 세상의 다양한 감정과 경험, 아름다움과 아픔을 등대처럼 밝혀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품은 미래의 독자들에게 영감과 위로를 주고, 우리의 문학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 것입니다.

이 작품들은 등대해양문화를 우리의 일상에 스며들게 만들어 주는 동시에, 문학의 힘을 느낄 수 있는 소중한 보물입니다. 이 작품들을 통해 우리는 등대해양문화라는 세계로 떠날 수 있게 되었으며, 이곳에서 만나는 모든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진심으로 와닿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이번 문학상을 위해 수많은 노력과 열정을 기울여주신 해양수산부와 울산지방해양수산청, 울산항만공사, 그리고 기술원의 국립등대박물관 관계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이 공모전을 주최하고 참가자들을 지원해 주신 모든 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열정과 참여 덕분에 우리는 훌륭한 작품들과 문학의 아름다움을 함께 나눌 수 있었습니다. 등대문학상이 여러분의 문학적 열망을 지원하고, 빛을 비추어주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등대문학상은 문학의 힘을 통해 더욱 풍부한 등대해양문화의 문화적 가치를 전해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참여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며, 모든 분의 문학적 열정과 창작 활동이 더욱 풍성해지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국항로표지기술원장

박광열





올해 울산항 개항 60주년을 맞은 등대문학상은 그 어느 해보다 더 뜻깊은 의미로 새롭게 다가옵니다.

오랜 시간 늘 바다 한가운데에서 길목을 지킨 파수꾼인 등대,

등대는 어둠을 밝히는 빛의 파편으로 새로운 세계를 열어가는 바다의 길잡이이자, 먼 길을 떠났다가 돌아와 위로받을 수 있는 어머니의 품 같은 곳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올해로 11년째 발간되는 등대문학상 수상작품집은 지난 몇 년간 우리의 평범한 삶 구석구석까지 제약해 온 코로나19로 힘들었던 삶의 시간들을 다양한 장르의 문학을 통해 마음까지 치유할 수 있는 등대 같은 공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번 등대문학상은 위드 코로나 상황에도 불구하고 많은 예비 문학 작가들의 관심과 애정으로 총 1,172편의 작품들이 출품되었습니다. 해가 거듭될수록 등대문학상에 대한 관심과 위상은 한층 더 높아지고 있으며, 수상작품 또한 더 진한 감동을 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런 위상에 맞춰, 우리 공사에서는 바다와 문학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꿈과 희망, 그리고 열정을 늘 응원하고 아낌없는 지원으로 더 가치 있는 등대 문학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바다처럼 넓고 깊게, 등대처럼 많은 사람들의 길잡이가 되어갈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삶의 이야기를 듬뿍 담아 더 많은 위로와 소통이

되고 세상을 밝히는 등대문학상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또, 공모전에서 수상작품이 나오기까지 정성 어린 작품을 출품하신 모든  
참가자분들과 등대문학상의 공정한 심사에 애써주신 여러 심사위원님,  
울산지방해양수산청, 한국향로표지기술원 관계자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울산항만공사 사장  
김재균





# 수상작





## 대상

소설

남선정 ♦ 단 하나의 빛

## 최우수상

시/시조

김영건 ♦ 라디오존데

소설

김성대 ♦ 땅 끝에서 바다 끝에서

수필

박미림 ♦ 펄

## 우수상

시/시조

이석재 ♦ 팔미도

시/시조

유종인 ♦ 등대식당

시/시조

박수호 ♦ 껌보선창

소설

박복영 ♦ 포세이돈의 귀환

소설

이충호 ♦ 아버지의 등대

소설

박영숙 ♦ 고백의 바다

수필

김삼복 ♦ 기도 등대의 지문

수필

김은숙 ♦ 아버지의 그물

수필

변재영 ♦ 등대바라기



## 제 11회 등대문학상 대상



### 남선정

경기도 평택시

#### 프로필

현) 영어강사

#### 수상내역

2022년 119 문학상 입상

2023년 중앙신문예 입상

#### 당선소감

예전부터 글은 쓰고 있었지만, 본격적으로 문학상에 응모한 것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사는 게 바빠서, 라는 이유로 본격적으로 글쓰기를 해볼 엄두가 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다 코로나가 터지고 일이 줄어들면서 본의 아니게 시간인 여유가 생겼을 무렵이었습니다. 그때, 어느덧 장년에 들어선 이 시점에 머지않아 다가올 노후를 어떻게 하면 잘 맞이할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을 한참 동안 했습니다. 그러다 어린 시절의 꿈인 소설 쓰기를 적극적으로 해보자고 마음먹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쓰는 행위 자체는 참으로 고되고 힘이 들지만, 글 한 편을 끝낼 때마다 쓰기 전보다 훨씬 마음이 풍요로워짐을 느껴 글짓기를 잘 시작했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특히 요즘처럼 활자문화보다 영상문화가 활발한 시대에 누군가가 내 글을 읽어주고 공감해 준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가슴이 벅칩니다. 입상이라도 하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등대문학상에 응모했는데, 이렇게 큰 상을 받을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해서인지 결과를 보고도 정신이 얼떨떨했습니다. 대상 수상이 단순하기 이를 데 없던 일상에 활력과 기쁨을 주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책을 읽고 글쓰기에 폭 빠진 요즘, 매일 글과 마주한 삶이 그저 참만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늦은 나이의 제가 또 다른 길을 시작하려는 것을 묵묵히 바라봐 주고 힘이 되어준 가족과 친구에게 고맙다는 말 전하고 싶습니다.

끝으로, 많은 훌륭한 작품 속에서 제 작품을 가장 큰 상으로 선택해 주신 심사위원님에게 깊은 감사 인사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황금 같은 기회를 주신 울산지방해양수산청 관계자분들께도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성실하게, 멈추지 않고 글을 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단 하나의 빛

제 11회 등대문학상 대상 ◆ 소설  
남선정

오늘도 평소와 다름없이 등롱 유리를 닦는 데 여념이 없었다. 아무리 닦아내어도 창 모서리에 낀 오래된 얼룩은 쉽게 지워지지 않았다. 소금기를 머금은 해풍이 만들어 낸 미세한 창틀 부식도 마찬가지였다. 그래도 창 닦는 걸 멈출 수 없었다. 하, 하고 입김을 불어넣었다. 유리 표면에 뽀얀 습기가 나타났다가 금세 사라졌다. 기다랗게 숨을 내뿔었다. 맥 빠진 한숨이 나지막하게 새어 나왔다. 땀을 타고 흘러내리는 땀을 소매로 훔쳤다. 마음이 그냥 번잡하기만 했다. 며칠 전 육지에서 걸려 온 전화가 계속 맘에 걸렸기 때문이었다. 그날따라 본청 직원의 앓된 목소리가 전혀 반갑지 않았다.

“강석호 주무관님, 2024년 3월 4일부로 서해안 제유도 등대장(燈臺長)으로 전근 발령받으시게 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는 드디어 때가 왔음을 감지했다. 이곳에서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인가. 그 소식은 며칠째 잠자리를 뒤척이게 했다. 여기서 묵묵히 보낸 시간이 주마등처럼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던 그 순간에도 직원은 군청으로부터 곧 공식적인 발령 공문을 받게 될 거라고 하면서 휴가가 많이 남았으니 얼른 쓰시라는 말을 덧붙이고 있었다. 몇 해 전부터 이 섬에서 가장 가까운 유인도가 관광지로 개발되면서 섬과 육지 사이에 큰 대교가 건설되었고 그 섬에 최첨단 시설을 갖춘 무인 등대가 개관될 예정이라는 얘기가 사실로 확정된 지는 제법 되었다. 그래서 관광객 필수 코스 명소라는 거리가 먼 이 등대는 이제 무용지물이 되어 조만간 폐등대가 될 예정이었다. 등대를 에워싼 담장 안 관사에 머무르고 있던 그는 하는 수 없이 짐을 싸는 수밖에 없었다.

광조도(光照島)는 육지에서 배로 몇 시간을 들어가야 하는 외진 섬이었다. 험하고 황량하기 그지없는 이 섬은 무인도였다. 섬 이름을 딴 광조 등대는 우리나라에서 단 하나 남은 기계식 등명기를 가동하는 등대로서 그 명맥을 유지해 오고 있었다. 그러나 급진적으로 발전된 기술로 인해 원격제어가 가능해져 그나마 유일하게 남은 기계식 등대인 광조 등대도 결국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다. 광조도 해역은 위험천만한 해류와 커다란 암초들이 길게 뻗어있는 지역으로 선박들의 크고 작은 사고들이 빈번한 곳이라 낡고 오래되었지만, 이 등대만은 폐관시킬 수 없었던 해양수산부의 견해가 바뀐 지는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그것을 시대적 흐름이라고 했던가.

그는 이곳에서 그의 나이 스물여섯부터 항로표지 관리원으로 일해

왔다. 하루도 빠짐없이 등명기를 닦은 세월이 자그마치 25년이나 되었다. 지난 세월 내내 그는 줄곧 이 등대를 지켜왔다. 등대관리원은 보통 2년에 한 번씩 순환 근무를 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광조 등대에 근무속 근무하고 싶다는 그의 의지를 직장에서도 존중해 주었다. 등대와 관사 건물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무인도 근무를 자처하는 직원은 여태껏 그를 제외하고 단 한 명도 없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그가 근무하던 동안 수많은 동료들이 오갔고 심지어 두 명은 임기도 다 채우지 못하고 일을 그만두었다. 새로 발령받아온 동료들은 여기서 어떻게 그렇게 오랫동안 일을 할 수 있느냐며 의아해하기 일쑤였다. 그도 처음부터 이곳이 좋아 근무를 시작한 것은 아니었다. 무인도의 등대를 지키는 것은 그야말로 외롭고 고독한 일이라고 했던가. 지금이야 섬에 있어도 인터넷으로 바깥세상 소식을 접하거나 TV로 무료한 시간을 메울 수도 있지만, 예전에는 전혀 그럴 수 없었던 것이 무인도 생활이었다. 그 역시 처음 근무했을 그 당시 이곳 생활이 너무나 적적하고 고달파서 견딜 수 없을 정도였으니 말이다. 매일 똑같이 반복되는 생활 방식이 정말 지긋지긋했지만 억지로라도 광조도 생활에 적응해 보리라 마음먹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는 지루하고 단조로운 일과가 주는 절대적인 안정감을 만끽하기에 이르렀고, 일상은 그 나름의 리듬을 타면서 조용하게 흘러갔다. 바라던 바의 삶은 결코 아니었지만 그런대로 나쁘지 않다고 여겨졌다. 매번 근무 기피 지역인 광조 등대의 근무를 자처하던 그는 자신이 퇴직할 때까지 이 등대를 떠나는 일은 없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그러나 얼마 후면 이 정든



섬과 광조 등대를 떠나야 했다.

오늘도 등롱 창을 닫기 위해 등탑에 올랐다. 철제 사다리를 한 칸씩 밟고 오를 때마다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다. 오늘따라 그 소리가 꽤 거슬렸다. 그는 우직하게 유리를 닦던 손을 멈추고 바닷가를 내려다 보았다. 비릿함을 품은 칼바람이 머리칼을 흩날렸다. 너울과 너울 사이로 갈매기들이 세차게 날아올랐고, 거센 파도가 절벽 바위에 부딪혀 하얗게 부서졌다. 순백의 물방울들을 마구 흩뿌리던 파도는 흡사 술래잡기라도 하는 듯 밀려갔다 밀려오기를 반복했다. 계속 아래를 내려다보니 아찔해서 현기증이 났다. 절벽 위에 아슬아슬하게 서 있는 느낌이었다. 그 감각이 꽤나 생경하게 다가왔다. 그는 해안가를 쳐다보던 눈길을 거두고 사다리에서 내려와 등탑 문을 열었다. 열린 문틈으로 간기를 머금은 바람이 쭉 들어왔다. 삭막한 정적이 감돌았다. 숨을 내리쉬면서 바닥 여기저기 죽어있는 벌레를 쓸어 담았다. 섬광을 향해 달려들었을 날벌레의 사체가 가득 내려앉은 렌즈 표면을 꼼꼼히 세척포로 닦아 내었다. 마치 늙은 어머니의 언약한 손을 닦듯이 천천히 그리고 아주 정성스럽게. 머릿속이 복잡했다. 이 등대, 이 익숙한 생활, 이 모든 것이 너무나도 생소하게 느껴졌다. 등탑 안 공기마저 평소와 다르게 느껴지는 건 그저 내 기분 탓일 테지. 날이 점점 어둑해졌다. 시간을 확인했다. 5시 58분 57, 58, 59, 5시 59분. 손목시계를 들여다 보던 그의 손이 등명기 스위치에 닿았고 6시 정각이 됨과 동시에 스위치를 올렸다. 한 치의 오차도 없이. 화, 하고 빛이 뿔어져 나왔다. 그 불빛은 강력하게 프리즘 렌즈를 통과해 등롱을 타고 바다 먼 곳을

흰하게 비추었다. 등명기가 360도 원을 그리며 회전했다. 눈이 부셨다. 그가 서 있는 쪽으로 빛이 다가오자 미간이 절로 찌푸려졌다. 손바닥을 눈앞으로 가져갔다. 그러나 그 빛은 손으로 가린다고 가려질 양이 아니었다. 그것은 엄청나게 쏟아지는 태양 광선같이 강렬했다. 그때였다. 가슴속 깊이 넣어놓았던, 이제는 기억조차 아득한 아버지의 모습이 가슴 시리게 떠올랐던 것은. 이젠 한스러운 그리움도 거의 남아 있지 않다고 생각되었는데…. 불현듯 생각난 아버지의 모습이 마치 오래된 영화의 빛바랜 한 장면처럼 생각되었다.

그의 아버지 영식은 오징어잡이 배의 선장이었다. 젊었을 때 농사를 짓던 그는 석호가 여덟 살이 되던 해부터는 원양 어선을 탔다. 오랫동안 집을 비웠다가 한 번씩 집으로 돌아오곤 했던 그는 아들에게 다정다감한 아버지는 아니었다. 그 시대 수많은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그러나 영식에 대한 석호의 기억은 조금 달랐다. 아버지에게 대한 어두운 기억은 그다지 없었다. 정이 많고 다정다감하지는 않았지만 늘 책임감 있고 성실한 아버지로 기억되었다. 다음 항해에 나서기 전 잠시 집에 머물렀던 아버지가 자신을 바다로 데리고 나가 가르쳐 주었던 낚시, 방파석 위에서 함께 올려다본 보름달, 그리고 직접 잡은 해산물로 만들어주었던 요리가 어린 석호는 그렇게도 좋았다. 몇 년 후 영식은 그동안 억척스레 모은 돈으로 어선을 한 척 마련해 오징어잡이 배의 선장이 되었다. 그가 중학교에 막 입학했을 때였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영식은 아들을 자신의 배에 태우기를 몹시 꺼렸고, 석호가 배에 오르는 것을 단 한 번도 허락하지 않았다. 그건 중학교를 졸업한

그가 공고를 진학할 때도, 고등학교를 졸업한 그가 20살이 되어서도, 전문대 전기학과 졸업한 후 항로표지 기능사 시험에 최종 합격하고 대기발령 중이었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아버지, 저 발령받기 전까지는 시간이 많이 있으니 일을 도울 수 있어요.”

“됐다, 니 하고 싶은 거나 해라. 정 할 일이 없으면 친구를 만나던지.”

급기야 석호는 오징어 잡는 법을 알려달라고 아버지를 조르기까지 했다.

“제발요, 아버지. 저도 한번 해보고 싶어요.”

“괜찮대도 그러네. 이 일은 니가 할 일이 아니고 내가 할 일이다.”

단호한 어조로 말하던 영식은 끝끝내 아들의 간청을 거절했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석호는 고향 마을과 근접한 등대에서 첫 근무를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영식의 선체에 오를 기회가 우연히 찾아왔다. 그때가 첫 근무 두 해를 넘기 전의 일이었으니 지금은 20년이 훌쩍 지난 일이 되어 버렸다.

그날은 한반도 전 해역이 태풍의 직접 영향권에 들었던 날이었다. 인접 해역 기상악화로 그가 근무하던 등대에도 초비상이 걸렸었다. 다음 날 태풍이 예상보다 빠르게 지나간 뒤, 배전판을 손보던 그에게 다급한 전화 한 통이 걸려 왔다. 어머니 인숙에게서였다. 모처럼 조업을 나간 영식의 배가 풍랑을 만나 난파되었다는 연락이었다. 그 소식을 듣자마자 사고 현장으로 한걸음에 달려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으나 근무 교대 때까지는 함부로 자리를 비울 수도 없는 상태였다. 우선

어머니를 안심시켰던 그는 다음 날 근무가 끝나자마자 부리나케 사고 해역 인근 해경청을 찾아갔다. 며칠째 실종자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던 해경은 영식의 배가 연락정과의 마지막 교신 후 연락이 두절되었다고 했다. 사고 선박은 항구로 옮겨왔지만, 배에 타고 있던 선장을 포함한 선원 6명 모두가 실종되었다는 통보와 함께 마지막 구조 무선을 치고 연락이 끊긴 장소가 바로 광조도 앞바다라고 전했다. 알고 보니 강력한 태풍이 광조도를 무섭게 휩쓸고 지나가면서 등룡 창이 처참하게 깨질 정도로 무시무시한 위력을 발휘했다고, 그로 인해 등대의 전력이 일시적으로 끊겼지만, 등대 관리원이 재빨리 비상 발전기를 돌려 곧바로 등댓불은 켜졌다고 했다. 등대와는 상관없이 태풍의 세력이 워낙 커 파선된 배에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었을 거라는 게 전문가의 설명이었다. 그는 선두 일부가 부서진 아버지의 어선에 올라섰다. 속으로 아버지를 불러보았다. 그렇게 기를 쓰고 오르려 했던 배에 이런 이유로 서 있는 게 무척 마음이 아팠다. 태풍이 올 예정이니 조업에 나가지 말라고, 내가 그 한마디만 했었더라면…. 맹렬한 폭풍우를 만나 사납게 출렁거리던 파도 위에서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었을, 그 짙은 암흑 속에서 이승과 저승의 경계선에 서 있었을 아버지를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질 듯이 아려왔다. 그 후로도 영식과 나머지 선원을 본 이는 아무도 없었고, 해경도 그들을 찾는 데 주력했지만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그때 당시 인숙은 만삭의 몸이었다. 나이 오십에 생긴 늑둥이라 부끄러워하면서도 내심 기뻐했던 아버지가 싱글벙글한 얼굴로 마을을 돌아다녔던 것이 그가 기억하는 부친의 마지막

모습이었다. 그녀는 사고 소식을 듣고 난 뒤부터 동그랗게 솟은 배를 끌어안고 울다가 결국에는 몸져눕고 말았다. 일순간에 남편을 잃는 슬픔을 견디다 못해 연거푸 혼절했고 그 충격 때문이었는지 8개월 동안 품었던 뱃속 태아를 잃게 되었다. 그때부터였다. 그가 어머니의 모습이 꼭 곡예사의 줄타기를 보는 것처럼 아슬아슬하다고 느낀 것은.

그가 광조 등대에서 일한 지 3년을 갓 넘길 즈음이었다. 아침 근무를 끝내고 숙소로 돌아가는 길이었는데, 인숙에게서 연락이 왔다. 그녀의 얘기는 마을 어부 A가 조업을 위해 대마도 근처까지 갔다가 강력한 태풍을 만나 돌아오지 못하고 인근 섬에 발이 묶였다는 것으로 시작했다. 태풍이 지나가고 어제 마을에 돌아오자마자 집으로 찾아와서는 오징어잡이 어부들 사이에서 심심찮게 회자되는 소문에 대해 들려 주었다고 했다. 그 얘기를 들은 후로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고 뜯눈으로 밤을 지새웠던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A에게서 전해 들은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니 아버지가 배를 타고 나가서 사라진 게 태풍 탓이 아니었다고 카더라. 글시, 대마도에서 일본 여자를 만나 살림을 차렸다고, 얼마 전에는 애까지 낳아 살고 있다고 글카더라.”

그렇게 말하던 어머니에게 그는 그게 무슨 터무니없는 억측이냐고, 말도 안 되는 뜬소문 따윈 절대 믿지 말라고 신신당부하였다.

“근데, 석호야. 그래도 내 눈으로 꼭 확인해야겠다. 그래야만 맘이…. 이 억장이 무너질 것 같은 내 맘이…. 훨 편해질 것 같아.”

그럼 나머지 선원들의 행방은 어떻게 설명할 거냐고 따져 묻던 석



호와 마을 사람들, 그리고 친인척들까지 그녀에게 그게 다 근거 없는 낭설이라고, 그냥 남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지어낸 얘기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그곳을 찾아가는 것만은 극구 말렸지만, 그녀는 고집을 꺾지 않았다. 그는 A가 언급한 섬을 어머니 혼자 가는 게 도무지 안심되지 않아 결국 그녀를 따라나섰다. 어쩌면 나도 아버지에 대한 실낱같은 희망을 품었는지도 모르겠다. 그곳에서 몇 날 며칠을 머물면서 두 사람은 마주치는 모든 사람에게 영식의 얼굴이 인쇄된 전단지를 보여주었다. 아니나 다를까, 그것을 본 사람마다 고개를 절레절레 가로저었다.

“여기 오기 전부터…. 기도했다 아이가. 내사 마, 니 아버지가 딴 여자랑 사는 거라도 봤으면 억수로 좋겠다고. 그러면 내도 딱 포기하고 잇고 살끼라고. 진짜로 그랬다면 얼마나 좋겠노. 만약 진짜 죽은 거라면 내 눈으로 직접 니 아버지 시신이라도 봤으면 내 맘이 이렇게 애달프진 않을 낀데…”

그렇게 한탄하던 그녀는 갑자기 배를 감싸고 땅바닥에 주저앉아 흐느꼈다. 남편의 유해라도 찾아 장례를 치러줘야만 자신이 편히 누울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던 그녀는 견잡을 수 없이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질 것 같은 모습을 하고 있었다. 그때 어머니를 달래던 그는 언젠가는 남편이 살아 돌아오리라는 것을 굳게 믿으며 결코 단념할 수 없다는 일념이 그녀에게는 눈에 보이지 않는 족쇄와도 같다는 것을 절실히 깨달았다. 그 누구도 아버지의 주검을 보지 못했으니 그것은 죽지 않은 거나 다름없다고 치부했던 청년 석호는 이제 영식과 비슷한 중

년의 나이가 되었다. 그 당시 어머니의 가엾고도 애달픈 울음소리를 기억했던 그는 매일같이 등댓불을 밝히면서 말하고 싶었다. 여기 환한 빛이 있다고, 밤새 불을 밝게 켜 둘 테니 집으로 돌아오는 길을 잃지 말라고, 일을 무사히 끝내고 기다리는 가족의 품으로 반드시 돌아오라고. 그는 아마 아버지가 돌아오면 어머니도 집으로 돌아올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싶었는지도 모르겠다.

밤안개가 얇게 깔린 광조도는 온통 매서운 바람으로 가득 차 있었다. 제법 쌀쌀한 기운을 느낀 그는 작업복 지퍼를 끝까지 올려 채웠고 빛바랜 작업 모자를 희끗한 새치가 가득한 머리에 깊숙이 내려쥔다. 손전등을 들고 밖으로 나가 섬 주위를 순찰했다. 싸늘한 밤공기가 온 몸을 에워쌌다. 모자를 뺏어 갈 기세로 펄럭이던 바닷바람은 거칠고 사나운 기세로 그의 목덜미를 내리쳤다. 자꾸만 움츠러들었다. 한숨을 길게 내뿜었다. 옷깃을 단단히 여미고 난 후 그는 고개를 들어 위를 쳐다보았다. 뭐 하나 특별한 것 없는 광조 등대가 서 있을 뿐이었다. 공중에서 등댓불이 둥그랗게 돌았다. 회전하는 등명기 불빛을 따라 숫자를 세었다. 11, 12, 13. 정확한 주기로 불빛이 원위치로 돌아왔다. 쏟아지는 불빛을 끊임없이 지켜보던 그가 이번에는 바다 쪽을 바라보았다. 선명한 불빛이 그의 눈길을 따라 칠혹 같은 바다 위에서 별빛이 되었다. 그때였다. 수평선 가까이 배 한 척이 언뜻 보였는데 그것은 환한 띠를 두르며 불을 쟁쟁하게 밝힌 오징어잡이 어선 같았다. 찬란한 빛을 내뿜고 있던 그 배는 파도 위에서 너울너울 춤추는 듯이 보였다. 그는 몇 번 눈을 깜빡이다가 손등으로 눈을 비볐다. 그리고 바다를 다시

보았다. 어, 배가 사라졌다. 미간이 찌푸려졌다. 내가 잘못 봤나. 고개를 연신 까웃거렸다. 분명 만선을 기뻐하던 오징어 채낚기의 불빛이 었단 말이야. 뭔가 생각이 난 듯 그는 바다를 쳐다보던 눈빛을 거두고 등대로 향했다. 마음 한구석이 허전했다. 그는 등대 안으로 들어갔다. 등탑으로 올라가는 난간을 잡고 층계를 밟았다. 한 걸음씩 계단을 내디딜 때마다 뼈격대는 철제의 낡은 소음이 짙은 어둠 속에서 파동을 일으켰다. 계단 꼭대기에 다다르자 그는 숨을 서서히 내쉬다가 들이마셨다. 공중을 향해 공허하게 울려 퍼지는 숨소리의 검은 잔영이 길고도 깊었다. 나 몰래 어머니가 흐느껴 우는 듯한 소리가 귓가에 들리는 것은 환청일까. 순간, 그의 모든 생각이 그 소리에 흡수되는 듯했고, 어머니의 음음만이 이 공간에 남아 있는 것같이 느껴졌다. 그동안 우리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걸까. 아니, 어머니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가. 5년 전 어느 무더운 여름날이 불현듯 떠올랐다.

영식이 실종된 지 15년이 훨씬 넘었을 때였다. 휴일을 맞아 집에 온 석호에게 인숙은 엉뚱한 말을 불쑥 꺼냈다.

“석호야, 너거 아버지 오실 때가 다 됐는데…. 니가 전화 한번 넣어봐라.”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는 그대로 얼어붙었다. 어머니가 추억 삼아 옛날 얘기를 드물게 꺼낸 적은 있었지만, 전과는 확연히 달랐던 느낌. 뭔가 단단히 잘못되었음을 감지한 그는 이튿날 어머니를 데리고 병원을 찾았다. 인지 기능 장애라는 진단을 듣고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그는 어머니를 제대로 챙기지 못했다는 자책감에 사로잡혔다. 하루아침

에 진행되는 병은 아니라던 의사의 말이 청천벽력과도 같았다. 그렇게도 남편에 대한 희망 고문을 버리지 못했던 그녀는 정신이 온전치 못한 상태가 되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 거지. 일을 그만두고 어머니를 모셔야 하나. 그러면 광조 등대를 떠나야 할 것이다. 그리고 싶지 않아. 그렇다고 어머니를 무인도에서 지내게 할 수도 없는 노릇이잖아. 모두 내키지 않은 선택들뿐이었다. 가끔 남편을 찾으러 바닷가로 나가 멍하니 앉아 있다는 마을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그는 하는 수 없이 그녀를 광조도와 가장 가까운 육지에 있는 요양원에 보내게 되었다. 어머니를 뵈러 갈 때마다 마음 이곳저곳이 마구 들썩거렸다. 슬픔과 후회, 그리고 그리움과도 느낌이 비슷한 거였다.

저녁을 간단히 라면으로 해결하고 누웠다. 발령 공문을 받고 나서부터는 마음이 더 심란했다. 정성스레 요리하는 것이 귀찮아질 정도로 그의 일상이 이리저리 흔들렸다. 복잡한 생각이 떠나질 않아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거렸다. 피곤했지만, 상관없었다. 오늘부터 휴일이라 육지로 나갈 예정이었다. 먼저 어머니한테 들려야 해. 그는 여태껏 한 번도 거르지 않고 매달 두 차례 요양원을 방문했다. 휴일 첫날과 마지막 날. 어머니를 더 자주 찾아가 보고 싶은 마음은 컸지만, 근무 날에는 섬에 발이 묶여 꼼짝달싹할 수가 없었다. 요양원 출입구를 들어설 때마다 만약 어머니가 나도 잊어버렸으면 어쩌지, 하는 두려움에 휩싸일 때가 많았다. 다행스럽게 이번에도 그녀는 아들을 기억하고 있었다. 그의 얼굴을 보자 어머니의 얼굴에 옅은 미소가 지어졌다.

“석호야, 얼굴이 많이 야위었구나. 무슨 일이라도 있니?”

“아무 일도 없어요. 그냥 잠을 좀 설쳤을 뿐이에요.”

무심한 듯 말하던 그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자신의 건강을 염려하는 어머니의 덩그렇게 말린 등허리가 매우 황량하게 보였기 때문이었다. 얼른 눈물을 훔친 그는 그녀의 손을 던지시 잡았다. 어머니의 켠한 눈동자를 보고 있자니 처음 요양원에 모셨던 날이 문득 생각났다. 요양원에서 나오자마자 그가 맨 처음 챙긴 일은 여태 미뤄왔던 아버지의 사망 신고였다. 해양 사고의 경우 법 개정예 따라 특별 실종은 1년 만 지나도 사망 처리가 가능해졌다고 하던 주민센터 직원의 설명에 그는 침묵을 지킨 채 가만히 고개만 주억거렸다. 실종예 ‘특별’이란 게 무슨 소용인 건지…. 뭐가 특별하다는 건지 도통 이해할 수 없었던 그는 아버지의 사망신고서를 가만 내려다보았다. 살아있다는 증거도 없지만 죽었다는 증거도 없는 영식은 이제 공식적으로 죽은 사람이 되었다. 아버지 최영식 이름 옆에 비로소 새겨진 ‘사망’이라는 두 글자가 낯설고도 묘했다. 사실상, 그는 줄곧 아버지를 생각하고 살았던 것은 아니었다. 곰곰이 생각해 보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잊고 지냈다. 아니, 솔직히 잊고 싶었다고 하는 게 더 옳을지도 모르겠다. 인생에는 아무리 발버둥 쳐도 뜻하는 바대로 되지 않는 일이 있는 것처럼, 그에 게는 영식의 실종이 그러했다. 영원히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와도 같았다고나 할까.

‘우리는 여전히 유가족이 아닌 실종 가족인 거야. 아직은 한 가닥 실오라기만큼의 희망이라도 남아 있지 않겠어?’라는 마음과 ‘오랜 시간이 지났잖아. 이제 그만 포기하고 단념해도 괜찮다고.’라는 양가적

감정이 온통 고통으로 변해 가슴속 깊숙이 자리 잡은 지 오래되었다. 수십 년 동안 실종된 사람이 집으로 돌아온 어느 외국의 놀라운 뉴스처럼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기적적인 일이 일어나길 그는 내심 소원하고 있었다.

침에 돌아온 그는 어느 때와 마찬가지로 등롱 창을 공들여 닦았고 제시간에 어김없이 등대의 불을 밝혔다. 한참을 등명기가 잘 작동하는지 확인하고 나서 숙소로 돌아왔다. 저녁을 먹고 일찍 잠자리에 들었다. 새벽에 교대 근무를 하려면 조금이라도 자뉘야 했다. 얼핏 선잠이 들었다가 금방 깼다. 잠은 쉬 오지 않았고 밤은 무척 길었다. 여러 번 베개를 고쳐 베며 잠을 청하다가 겨우 잠이 들었고 알람이 울리기 전에 잠이 깨었다. 시간을 확인했다. 오전 5시 전이었다. 밖은 아직 어슴푸레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라디오를 켰다. 주파수를 날씨 채널에 맞추고, 근무 일지를 펼쳐 오늘 점검해야 할 항목을 살펴보았다. 배전판을 손봐야 했다. 그는 아침 식사하던 도중에 수평선 너머로 동이 터오는 것을 보았다. 참으로 아름다웠다. 이 풍경도 더는 못보게 되겠지. 그는 광조도로 들어오기 전에 군청에 들러 사표를 제출했다. 사직서를 받아 든 직원이 놀라서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으며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10년 이상 남은 퇴직을 앞당겼다. 아쉬움이 조금 남긴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마음이 편안해짐을 느꼈다.

그날 밤 자정이 막 지날 무렵이었다. 등표들의 등명기가 잘 작동하는지를 점검하던 도중에 해경으로부터 지원 요청을 받았다. 인근 해상에서 수색 중이라고 밝혔다. 민간인 3명이 밤낚시를 하던 가운데 보

트 엔진이 고장 나서 몇 시간째 껌껌한 바다 위를 표류하고 있다고, 진작에 119를 통해 구조 요청을 받았으나 주위가 너무 어두운 나머지 정확한 위치를 확인할 길이 없어 수색에 난항을 겪고 있다고 했다. 일반인이 말한 바로는 등대 불빛이 깜박거리긴 하는데 등대 이름을 몰라, 그들의 배가 출발한 지점에서 반경 100km 안에 있는 모든 등대에 연락 중이라는 해경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그는 재빨리 에어 사이렌을 가동했다. 그로부터 얼마 되지 않아 다시 그들로부터 연락이 왔다. 광조 등대의 무신호기 소리를 들은 사람들 모두 무사하게 구조되어 지금 인근 육지로 이송 중이라고 말했다. 아, 진짜 다행이야. 그제야 안도의 숨을 내쉬던 그는 갑작스레 떠오르는 생각에 자신도 모르게 속말이 툭, 하고 튀어나왔다. 저들처럼 아버지도 무사히 구조되었더라면, 저렇게 안전하게 가족의 품으로 돌아왔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는 안도감과 안타까움의 감정이 거듭 교차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다음날도 늘 그랬듯이 그는 6시 정각에 등명기를 밝혔다. 그리고 숙소로 걸어갔다. 어둠에 싸인 섬 전체가 질게 내려앉은 해무로 뿔뿔리싸여 있었다. 달마저 거무죽죽한 구름에 가려졌다. 어둑한 길 끝에 멈춰 섰다. 멍하니 바다를 내려다보던 그의 시선이 이번에도 찬연한 빛을 내뿜는 등탑으로 옮겨갔다. 유일하게 깊고 어두운 바다를 비추는 한 줄기의 빛. 일정한 주기로 밤하늘에 빛을 흩뿌리는 광조 등대를 계속 올려다보던 그는 기도하듯 웅얼거렸다. 내가 얼마나 이곳에 애착을 갖고 살아왔는지 아무도 모를 거야. 그때 별안간 번개가 번쩍였

고 우르르 광광하는 천둥소리가 들려왔다. 곧이어 강한 바람을 동반한 소나기가 쏟아졌다.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퍼붓는 탓에 그의 시야가 자꾸 흐려졌다. 비에 흠뻑 젖은 몸이 부르르 떨렸다. 급히 숙소 쪽으로 뛰다 말고 뒤를 돌아보았다. 유일(唯一)한 빛이 장대 같은 빗속의 어둠을 뚫고 내비쳤다. 그가 외쳤다. 아버지! 그 한마디가 메아리쳐 돌아왔다. 아버지! 줄기차게 내리는 빗소리에 기대어 마지막 인사도 제대로 하지 못한 아버지에게 간절히 소원했다. 당신과 진짜 이별할 기회를 달라고, 제발 어머니에게도 당신의 죽음을 받아들이고 다시금 살아갈 힘을 달라고, 당신을 향하던 빛을 멈추고 이제부터 그녀의 삶에 온전한 빛을 비추는 등대로 살게 해 달라고, 라고 외치던 그는 울고 또 울었다. 길 잃은 어린이에 마냥.

그는 그날 밤 그토록 보고싶었던 아버지의 꿈을 처음으로 꾸었다. 그가 집으로 돌아오는 꿈이었다. 조금은 늙고 초췌한 모습을 한 영식은 웃음기 가득한 얼굴로 서 있었다. 초롱초롱한 그의 눈에 가득히 핀 달빛이 정말 예뻐다. 아버지, 정말로 돌아오셨군요. 눈물이 났다. 기다려온 시간이 억겁의 세월 같았다. 가슴이 벅차올랐다. 너무 기쁜 나머지 아버지를 와락 껴안았는데, 그의 몸이 얇고 마른 낙엽처럼 바스락거리며 순식간에 사라져버렸다. 아악! 하고 괴성을 질렀다. 화들짝 놀라 일어나 보니 온몸이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다. 그 생생한 장면이 그저 한낱 꿈이었던 말인가. 그렇지만 그렇게 꿈에서라도 아버지를 만났다는 사실이 기쁘기만 했다. 시간을 확인했다. 자정에 가까웠다. 그는 밖으로 나왔다. 절벽으로 이어지는 비탈길을 쪽 내려갔다. 비가 온 뒤라



섬의 모든 풍광이 뚜렷하게 다가왔다. 바다를 지켜보았다. 맑은 공기가 자유로이 섬을 유영했다. 캄캄한 바다가 등대에서 퍼져 나오는 빛을 받아 일렁거렸다. 저 멀리 배 한 척이 불을 환하게 밝히고 있었다. 오징어 어선의 어화 빛처럼 휘황찬란했다. 만선을 알리는 뱃고동 소리가 은은하게 울려왔다. 그 배를 뚫어지게 주시했다. 파도를 헤치며 드넓은 바다를 향해 힘차게 나아가는 배는 아득히 멀어져 갔다. 이제 저들도 집으로 돌아가는 것인가. 나와 어머니처럼. 그 하나의 빛이 마음속에 뚜렷하게 아로새겨졌다.

며칠 뒤 근무를 마치고 숙소에서 쉬고 있던 석호에게 동료 K가 말했다. 등대만 없어지는 건데, 왜 일은 그만두냐고. 다른 등대로 옮겨 가면 될 일이 아니냐는 지극히 현실적인 말에 그는 씩씩한 웃음을 지어 보였다.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았는데... 그가 요양원에 계시는 어머니와 함께 고향으로 돌아갈 생각이라고 말하자 K는 아무리 부모지만 치매에 걸린 노인을 남자 혼자 돌보기는 매우 힘든 일이라는 조언을 건넸다. 공무원직을 관두는 그에게 도통 이해할 수 없다는 듯한 낮은 빛을 드러내던 K는 평생 연애도, 결혼도 안 하고 살 거냐고, 그게 진정으로 자신이 원하는 게 아니지 않냐는 말에 그는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이며 응수했다. 일전에 마주한 어머니의 얼굴에 체념의 빛이 어려 있었다고, 아버지에 대한 기억조차 또렷하지 않은 그녀의 멈춰진 시간을 더는 그대로 둘 수 없다고, 무엇보다 배가 어둠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지켜주는 등대처럼 지금부터 나도 어머니를 지켜주고 싶다는 감성적인 말을 K에게 하고 싶지 않았다.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고 마침내 광조 등대에서의 근무 마지막 날이 되었다. 오늘 같은 날은 연차 휴가로 대체할 수 있었으나 그러고 싶지 않았다. 등댓불은 마지막 밤까지 밝혀둬야 하니까. 단 한 척의 배도 바다에서 방황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 간절한 마지막 바람에서였다. 오늘도 예외 없이 등명기를 닦았다. 이 일도 오늘이 지나면 못 한다는 생각이 들자 극세사 천으로 렌즈를 닦는 손길이 더욱더 정성스러워졌다. 그때 마침 전화벨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다. 본청에서 온 연락이었다. 기어이 올 게 왔구나! 수화기를 잡은 손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숨을 기다랗게 쉬면서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썼다. 수화기 너머 들리는 목소리를 경청하는 그 짧은 찰나가 영원같이 느껴졌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그는 차분하고 나직한 음성으로 대답했다. 내일 오전 6시가 되면 등대의 전원 장치는 일제히 차단될 것이다. 밖을 보았다. 어느덧 해가 넘어가고 있었다. 저녁 햇살이 고운 자태를 드러내더니 분홍빛으로 물들었다. 차츰 불그스름하게 물들어가는 석양이 내비치는 바다는 실로 장관이었다. 저녁 6시 정각이 되자 등명기가 켜졌다. 깜깜한 어둠 속에서 프레넬 렌즈가 마지막 광채를 뿜어냈다. 그는 매시간 알람에 맞춰 등명기가 잘 돌아가는지 확인하다가 영롱한 빛이 내비치는 바다를 하염없이 내려다보았다. 그곳을 바라보는 그의 눈빛은 평온하기 그지없었다. 이상하리만큼 마음이 안온했다. 까만 밤하늘을 빼곡히 채운 무수한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광활한 바다와 유난히도 뽕얇게 떠 있는 달이 그림처럼 펼쳐졌다. 어렸을 적 아버지와 물끄러미 올려

다본 보름달이 문득 떠올랐다. 그날도 새하얀 달이 어두컴컴한 바다 위를 유영하고 있었다. 방파제에 나란히 앉아 고요히 낚싯대를 드리웠던, 한적한 가로등 불빛에 비친 아버지의 거무스름하고 주름진 얼굴이 빛났던, 모든 순간의 기억이 그리움으로 변해 있었다. 그와 나눴던 대화와 따뜻한 포옹까지도.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가슴이 뭉클하고 애틋했던 기억이 이제 아련한 추억으로 남아 있었다.

밤이 새까맣게 깊었다. 밤바다는 바람 한 점 없이 고요했고 달이 가득히 내려앉아 달그림자가 드리웠다. 은은한 달빛이 잔잔한 물결 위로 떨어지면서 반짝하고 빛을 내었다. 빛에 출렁이는 바다를 응시하던 그는 한결 마음이 놓이는 듯한 안색을 드러냈다. 이슬한 밤도 거의 다 지났다. 등롱 너머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바다가 새벽 동을 받아 물고기 비늘처럼 번들거렸다. 아침 6시 정각이 되었다. 그는 등대의 모든 전원을 끄고 난 뒤 등대 문을 굳게 걸어 잠갔다. 낡고 허름한 등대의 외벽을 한참이나 만지고 나서 관사 쪽으로 발걸음을 옮기던 그는 빛이 꺼진 등대를 조용히 올려다보았다. 그리고 등탑의 불이 다시 밝아지는 것을 가만히 상상했다. 내가 그토록 사랑했던 이 등대를 절대로 잊을 수 없을 것이라. 정성 들여 닦아내던 등롱 창을 지그시 바라보다가 이내 걸음을 돌렸다. 열은 바람결에 촉촉한 풀 내음이 코끝을 스쳤다. 청명한 하늘과 푸른빛의 바다가 맞닿은 수평선이 드넓게 맞닿아 있었다. 아득히 날아가는 갈매기가 그의 시선 안에 머물렀다. 등명기 불빛이 건넌 바다 저 멀리 미명의 새벽빛이 올라오고 있었고, 그 광경을 본 그의 입언저리에는 잔잔한 미소가 번지고 있었다.



## 제 11회 등대문학상 시/시조

# 최우수상



### 김영건

경남 김해시

#### 프로필

경남 진주 출생  
조선대학교 외국어대  
중어중문학과 졸업

#### 수상내역

2007년 문화일보 신춘문예  
시 당선  
2007년 강원일보 신춘문예  
동시 당선

#### 당선소감

##### 밤에게 이야기하듯

나는 씁니다. 나의 모든 것이자 그래서 아무것도 아닐 수 있는  
나의 사랑들에게,

그러나 나는 시가 온다는 말을 믿지 않습니다. 내가 가야 합니다.  
그래야만 합니다. 꼭 그래야만 하는 줄 알고 있으면서도 나는  
지금 누워있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 등장했던 참돌고래와  
새끼를 등에 업고 다니던 귀신고래를 떠올리는 중입니다.

##### 문득

고요, 란 단어는 고백, 이란 단어와 친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객관적으로 입증하거나 구체적으로 설명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냥 그런 것 같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예컨대 청각으로 오는 단어인 고요를 보는 순간 말할 수 없는  
것을 말하고 싶은 내가 입을 꼭 다물고 한 번도 꺼내지 않았던  
내면의 이미지가 됩니다. 이 이미지(고요)는 다른 이미지(고  
백)로 전이되거나 중첩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는 말  
입니다. 고요, 란 단어도 고백, 이란 단어 또한 무슨 ‘열매’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꺾라는 게 고백의 장르이기  
때문이 아닐는지요.

등대문학상이란 이름으로 이 열매를 얻게 해준 울산지방해양  
수산청, 울산항만공사, 한국향로표지기술원 그리고 심사위  
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어쩌면 나는 내가 다시 태어나기를  
기다리기 위해 여기까지 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미 왔다갔  
거나 끝내 오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다시 사랑을 깨닫는, 그런  
저녁입니다.

---

## 라디오존데\* radiosonde

제 11회 등대문학상 최우수상 ✦ 시/시조  
김영건

고래가 죽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 등장했던 참돌고래든  
새끼를 등에 업고 다니던 귀신고래든 이미 예견된  
죽음에 익숙해져야 했던 고래는 마침내  
다정을 말하고 있다. 저만치 7천 년 전의 반대구 암각화를  
옛본 고래의 깊은 바닥으로 하늘이 내려오고  
나는 바다를 걷는 등대가 되어  
어둠에 섞이고 있다.

행성의 지위를 잃어버린 명왕성썸에서 보면  
내가 입고 있는 팬티가 죽었다고 비를 내려 보낼 수도 있을 것 같은  
저녁, 나는 내가 아는 모든 인간들의 머리를 물웅덩이처럼  
밟고 다니기 시작하는 것인데

왜 그런 날 있잖아요. 누군가 놓아버린 풍선이 된  
기분, 누군가 내가 태어나기 오래전부터 나를 기다렸고  
너무 늦었다는 듯 나를 높이 던졌고  
고래마져 가닿지 못한 깊은 바닥으로 나는 미련 없이  
널브러졌고

그때부터였을 것이다. 나는 몸을 들락거리는 마음의 흔적을 보려고  
하나뿐인 딸을 등에 업고 다니는 귀신고래처럼 하늘을  
올러다보았을 테고, 그러다 내가 없는 곳으로 기울어지는  
몸을 고래자리나 물병자리처럼 노래하며  
받아쓰기 시작했을 것이다.

정말이에요. 살아있는 동안 한 번쯤은 감쪽같이  
하늘도 땅도 없는 곳으로 사라지고 싶었어요. 라면냄비 속으로 풀어놓는  
동물복지 달걀처럼, 생각보다 잘 보여서 뜨겁고 그만큼 어둡고  
아픈 날들이 이어지고

고래는 죽으면 죽을수록 다정해졌다.  
천번 어딘가 고래와 내가 들어가 살 방이 있는 까닭 때문일 것이다.  
어쩌면 고래는 죽은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숨을 쉬고 있는지  
神의 이름이 흰 포말처럼 부서질 것 같았다.

GPS를 달아도 정확한 위도와 경도, 고도를 측정할 수 없는  
마음에, 귀신의 무덤처럼 나도 몰랐던 나의 요새(要塞)에  
휘-휘- 영원이란 말을 풀어놓는 시간, 남은 게  
이것밖에 없네. 한 줄도 남기지 않고  
줄 게.

—비.

지치면 미칠 수도 없다는 이야기를 나는  
고래가 떠오른 바다에게 해주었다. 라면냄비 가득 빗소리가  
끓고 있다.

---

\* 대기 상층의 기상을 관측하는 장치.



## 제 11회 등대문학상 소설

# 최우수상



### 김성대

경기도 용인시

#### 프로필

속초에서 자람  
육군사관학교 졸업, 대령 예편  
현) 동네책방 (비박스) 운영

#### 수상내역

2021년 《경기히든작가》  
소설부문 당선

#### 당선소감

제 고향인 속초에서는 1980년도 초반까지도 ‘반공궐기대회’란 게 열렸습니다. 북한에 의한 어선 피랍사건이 끊이지 않았기에 북한에 대한 적개심이 가득하던 때였습니다. 실제 궐기대회 중에 혈서를 쓴 친구가 있을 정도였으니까요. 하지만 납북된 어부와 가족들이 겪어야 했던 고통과 인권유린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들의 인권회복을 위해 애쓰고 있는 고향 친구를 만나지 않았다면 저는 아마 이 사실을 영원히 몰랐을 것입니다.

최근에 납북귀환어부에 대한 진실규명이 이루어지고 있어 다행스럽긴 하지만 그들의 피해와 명예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는 여전히 미흡합니다. 국가의 진정 어린 사과 또한 선행되어야 하겠지요.

얼마 전에 속초를 다녀왔습니다. 어렸을 때 친구들과 놀았던 영금정 바닷가를 거닐고, 저녁에는 동명항 횃집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고향친구들과 소주잔을 부딪치면서 자연스럽게 과거의 시간으로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조심스럽게 친구들에게 말했습니다. ‘무심해서 미안했다’고. 그리고 ‘그때의 아픔과 슬픔을 이야기로 만들었다’고.

제 글이 납북귀환어부와 가족들의 오랜 상처에 작은 위로라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족한 작품을 뽑아주신 심사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 땅 끝에서 바다 끝에서

제 11회 등대문학상 최우수상 ◆ 소설  
김성대

폭풍우가 몰아쳤다. 바다는 시퍼런 칼날을 휘둘렀다. 파도는 산산 조각 나며 흰 포말이 되어 갈기갈기 흩어졌다. 배는 금방이라도 전복 될 듯 위태로웠다. 두 남자가 성난 파도에 맞서 사투를 벌이고 있었다. 뱃머리 쪽에 서 있던 남자가 힘 빠진 손을 들어 육지를 가리켰다. 그곳에는 화염에 휩싸인 검은 등대가 있었다. 등대는 바다가 아니라 하늘을 향해 불빛을 쏘았다. 남자의 표정은 모호했다. 기뻐하는 것 같기도 했고 울고 있는 것 같기도 했다. 등대 근처 절벽 위에는 어린 소년이 바다를 향해 온몸으로 울부짖고 있었다. 하늘과 바다의 경계, 물과 물의 경계는 분명하지 않았다.

오늘 인터뷰할 ‘제임스 한’의 작품, ‘침몰’이었다. 그림은 불안한 기운이 가득했다. 색감은 어두웠고 인물들은 처절했다. 바라보고 있노라면 그림 속 폭풍우가 휘몰아치는 바다에 그대로 빨려 들어갈 것 같았

다. 막상 제임스 한의 작품을 보고 나니 벌써부터 어떤 이야기를 나누어야 할지 막막했다.

“어렵게 인터뷰를 따왔는데 그 작가의 작품 세계뿐만 아니라 세밀한 인생사까지 포함한 이야깃거리를 제대로 끌어낼 수 있는 사람이 선배 말고는 딱히 떠오르지 않더라고요.”

신문사에 근무하는 후배가 인터뷰를 맡아달라는 요청을 해왔을 때 좀 더 숙고했어야 했다. 이곳 출신에다가 나이대가 비슷하다는 말만 없었어도 인터뷰를 맡지 않았을 텐데 하는 후회가 밀려왔다. 이즈음 나는 이십팔 년을 일했던 출판사를 나와 지역 신문사와 연계된 잡지사에서 문화기자로 일하고 있었다.

사람들의 반응을 살피며 전시된 다른 작품들을 천천히 둘러봤다. 사람들은 ‘침몰’을 건성으로 한 번 훑어보고는 지나쳤다. 그들의 관심은 온통 유명작품 쪽으로만 쏠렸다. 원슬로 호머의 ‘걸프스트림’과 모네의 ‘폭풍우 치는 벨-일 연안’ 앞에는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북적였다. 한적한 지방 소도시 문화제에 거장들의 작품들이 전시되었으니 그럴 만도 했다.

올해는 등대 건립 65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등대문화제가 예년에 비해 큰 규모로 열렸다. 행사가 열리는 속초등대는 1957년 6월 8일에 불을 밝힌 이래 동해안 연안을 운행하는 선박의 지표 역할을 톡톡히 해왔다. 속초등대 건립 시 설치된 3등급 수은 중추식 회전등명기는 직경이 무려 1미터에 달했다. 불빛이 최대 36킬로미터 거리까지 도달한다고 하니 놀라울 따름이다. 등대 내부에 있는 나선형 계단을 따라 올

라가면 동해바다를 조망할 수 있는 전망대가 나온다. 이곳에 작품이 전시되어 있었다. 사람들은 작품을 감상하기도 했고 멀리 보이는 동해바다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기도 했다. 인터뷰가 진행되는 오후 2시까지는 아직 여유가 있었다. 그림을 보며 답답했던 마음을 해소할 겸 전시장 바깥으로 나왔다.

평소엔 한산했던 곳이 등대로 올라가는 계단 초입부터 입장객들로 북적였다. ‘속초 등대 문화제’라고 쓰인 플래카드가 바닷바람에 펄럭이고 있었다. 바다는 하늘과 짙은 남색으로 맞닿아 경계가 불분명했다. 야외 전망대에서도 등대의 절경을 담은 사진전, 바다를 소재로 한 그림 전시회, 야외 음악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시민들에게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했다. 야외 전망대 난간에 기대어 파도가 일렁이는 바다를 내려 놓고 바라봤다. 그때 누군가 어깨를 건드렸다. 돌아보니 윤석이었다. 중학교 때까지만 하더라도 만배와 함께 삼총사로 불릴 정도로 단짝이었던 녀석이었다. 고등학교를 마치고 서서히 멀어지기 시작해서 지금은 동창회를 나가도 눈인사만 나누는 사이가 되었다.

“어쩐 일이나? 네가 여길 다 오고.”

“나 같은 놈은 이딴 데 오면 안 되나?”

툭니가 서로 어긋나며 돌 때 발생하는 묘한 비틀림 같은 것이 느껴졌다.

“자식 말꼬리 잡기는. 전시된 작품 중에 ‘침몰’이란 그림, 상당히 독특하지 않니?”

“폭풍우 치는 바다에 배 한 척 있는 그림 말하니? 섬찔하더라. 등대가 불타는 것도 이상하고. 작가가 바다에서 불행한 일을 많이 겪은 모양이다. 언제 회 한 번 먹으러 넘어오라.”

윤석은 아바이 마을에서 횃집을 운영하고 있었다. 그는 인사치레를 하고 계단을 따라 바닷가 쪽으로 성큼성큼 내려갔다. 언제부터 이런 사이가 됐는지. 입안에 쓴맛이 감돌았다. 행사 관계자를 만나 인터뷰 시간과 장소를 최종적으로 확인한 뒤 바닷가 근처 카페로 들어갔다. 브런치를 주문하고 노트북을 열었다. 제임스 한과 관련된 검색어를 입력했다. 그는 최근에 세계 미술계를 이끌어갈 20인으로 선정될 만큼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었다. 1년 전 뉴욕 첼시 갤러리에서 작품 전시회를 가졌다는 기사가 눈에 띄었다. 미술 비평가들은 만선의 부푼 희망, 가족을 향한 애뜻한 그리움, 흥포한 바다에 대한 두려움, 밤낮 없이 그물을 당겨야 하는 고단함 같은, 선원들이 망망대해에서 느끼는 다양한 감정들을 작품 속에 잘 녹여냈다고 극찬했다. 늘 접하는 일상적 멘트의 나열 같아 식상했다.

이렇게 정보가 없어서야. 아무래도 오늘 인터뷰가 쉽진 않겠단 생각이 들었다. 신문사 후배에게 작가에 관한 추가 자료를 요청한 후 카페를 나와 영금정 쪽으로 걸어갔다. 파도가 바위에 부딪히며 내는 소리가 거문고 소리와 비슷하다고 해서 영금정으로 이름 지었다는데, 아무리 귀를 쫓긋 세워 봐도 내겐 파도 소리처럼 들렸다. 바다를 담은 찬바람의 비릿한 짠 내만 코끝에 맴돌았다. 태풍은 어젯밤 포항 앞바다를 통해 빠져나갔다. 바람은 여전히 사나웠다. 패딩의 지퍼를 목 윗

부분까지 올랐다. 내친김에 동명항까지 걸어갔다. 만선을 기원하며 달아놓은 깃발들이 정박한 배들의 돛대에서 금방이라도 찢어질 듯 펄럭였다. 선창가에 정박한 고기잡이배들은 야간 출항을 준비하느라 부산스러웠다. 선원들은 뱃전 위를 움직이며 그물을 점검하기도 했고, 밭전기를 돌려 집어등에 불을 밝히기도 했다. 검푸른 바다가 발아래서 일렁거리며 발 묶인 어선들의 엉덩이를 툭툭 건드렸다. 어선 하나가 바닷물을 가르며 앞으로 나아갔다. 뱃머리에 부딪힌 바닷물이 하얗게 포말을 일으키며 양쪽으로 갈라졌다. 발아래로 하얀 물거품이 생성과 소멸을 반복하고 있었다.

‘침몰’이란 작품이 아까부터 계속 신경을 건드렸다. 등대가 불타는 것도 그렇고, 검은 등대가 상징하는 게 뭔지도 모호했다. 배가 결국 전복된다는 뜻일까? 울부짖는 아이가 겪게 될 삶의 몰락을 의미하는 걸까? 궁금증은 점점 커졌다. 더 많은 정보가 필요했지만 시간이 촉박했다. 무슨 놈의 인터뷰를 번갯불에 콩 볶듯 하면 어찌란 거야. 조급한 마음에 옆머리를 박박 긁었다. 이러지 말고 물어볼 것부터 먼저 정리해 보자. 그게 낫겠다. 이번 전시회에 참여한 이유? 첫 질문은 이것으로 하고, 조금 전 검색한 자료를 보니 바다라는 소재를 통해 절망이나 두려움 같은 인간의 감정을 날 것 그대로 표현한다고 했으니……, 바다를 주제로 한 작품세계를 추구하는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도 물어봐야겠다. 질문거리를 고민하느라 머리가 한참 복잡해지고 있을 때 후배가 보낸 작가의 프로필이 도착했다는 알림을 받았다. 한국계 미국인으로 바다를 소재로 하여 독특한 작품세계를 구축하고 있다는 정도

가 그와 관련된 정보의 대부분이었다. 이미 파악한 내용과 다를 바 없었다.

그림은 언제부터 그리기 시작했는지, 그림을 그리게 된 특별한 계기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은 마지막에 해야겠다.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힌 것 같아 한결 마음이 가벼워졌다. 인터뷰가 예정된 등대 전망대로 향했다. 전망대에 도착하니 통통한 체구의 남자가 형클어진 머리칼을 손으로 쓸어 넘기며 먼바다를 바라보고 서있었다.

“제임스 한, 맞으시죠?”

돌아보는 남자의 얼굴에서 순간적으로 당혹감이 나타났다가 사라졌다.

“오늘 인터뷰 때문에 오신 분이시군요. 제임스 한입니다.”

그가 내민 손을 잡고 짧은 인사를 나눈 다음, 전망대 한쪽에 마련된 테이블로 자리를 옮겼다. 그의 실루엣 뒤로 바람물결이 일렁였다. 검은 빨테의 안경 너머로 보이는 그의 눈이 어딘지 꽤 익숙했다. 마치 오래 전부터 알고 지낸 사람처럼 친숙한 느낌이 들었다. 나는 날씨 이야기로 가볍게 대화를 시작한 후 본격적인 인터뷰를 시작했다.

“이번에 전시한 작품, ‘침몰’의 분위기가 상당히 어두운 것 같습니다. 작가님이 작품에서 표현하고자 했던 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실 수 있나요?”

그는 답을 하는 대신 자신의 그림을 봤냐고 되레 반문했다. 말을 할 때마다 얼굴 피부가 일그러져 부자연스러워 보였다. 특히 왼쪽 눈언저리가 그랬다. 작품 속 등대를 손으로 가리키던 인물이 연상됐다. 나

는 긍정의 제스처로 고개를 끄덕였다.

“최근에 교통사고가 크게 났어요. 수술을 몇 차례 받았는데도 아직까지 말할 때 불편합니다.”

“아 괜찮습니다. 편하게 생각하고 말씀해 주세요.”

그는 고개를 살짝 숙여 감사하다는 뜻을 표시했다. 그리고는 자기가 인터뷰어인 것처럼 작품 속 등대에 대해 어떻게 생각했는지 다소 무례하다 싶게 질문했다. 나는 한참을 고민한 후 조심스럽게 의견을 밝혔다.

“절망을 표현한 것이 아닐까요? 희망이 되어야 할 등대가 화염에 휩싸여 제 기능을 못하고 있으니까요. 바다를 향해하는 선원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절망스러운 것 같은데요.”

“우리는 등대에서 보통 희망적인 이미지를 연상합니다. 누군가에게는 절망의 대상이 되기도 하는데 말이죠. 등대에 가졌던 믿음이 무참히 깨어질 때, 등대가 더 이상 등대가 아닌 것이 될 때, 그때야말로 세상 모든 등대가 검게 보이지 않을까요?”

등대가 더 이상 등대가 아닌 것이 될 때라니? 그는 왜 이런 뜬구름 같은 이야기를 하는 걸까? 의아한 마음을 잠시 접어두고 다음 질문을 이어갔다. 인터뷰는 삼십여 분간 진행됐다. 마지막으로 그림은 언제부터 그리기 시작했는지, 그림을 그리게 된 특별한 계기가 무엇인지를 질문했다. 그의 얼굴이 급격히 어두워지기 시작했다. 말 못 할 사정이 있음을 직감한 나는 서둘러 인터뷰를 끝냈다.

“나중에 한 번 더 만나 뵐 수 있으면 좋겠네요.”

나는 명함을 건넸다. 명함을 받아 든 그가 나를 힐끗 쳐다보더니 무슨 말을 하려다가 멈칫했다. 그의 태도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더 이상 관심을 두지 않았다. 기사를 오늘 중으로 마무리 지어야만 했다. 인터뷰 내용을 정리해 기사를 작성한 다음 신문사로 보내고 나니 저녁 어스름이 짙게 내려와 있었다. 노트북을 닫고 일어서는데 휴대전화가 울렸다. 등대에서 마주친 윤석이었다. 간간이 얼굴을 마주하는 경우는 있어도 개인적인 연락을 취한 경우는 거의 없었다.

“니 오늘 인터뷰한 ‘제임스 한’이란 작가, 혹시 만배 아니니?”

“만배?”

“등대문화제 기획팀이 지금 여서 회식 중이다. 널 보고 ‘제임스 한’이란 작가가 나랑 같은 학교를 나왔다 하지 않겠니. 혹시 아는 사람이 아니냐고 묻는데 갑자기 만배가 떠올라서 니한테 전화했다.”

“만배라니? 뭘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야.”

그렇게 말을 하고 전화를 끊었지만 뭔가 찝찝했다. 내가 만배를 기억 못할 리가 없잖아? 제임스 한의 얼굴에 만배의 얼굴이 계속 오버랩됐다. 머릿속이 엉킨 실타래처럼 헝클어졌다. 그러다가 중학교 3학년 때의 여름이 선명하게 그려졌다. 만배와 나는 등대 앞 바위해변에 누워 절벽 위 하얀 등대를 바라보고 있었다. 하늘에 맞닿아 있는 등대가 바다뿐만 아니라 하늘 길까지 알려주는 것 같았다.

“오늘따라 등대가 예쁘네. 그렇지 않냐?”

“나도 너처럼 등대가 아름답게 보이면 좋겠다.”

그 말을 하고 만배는 먼저 집에 가겠다고 일어섰다.



전시회가 열리고 있는 등대로 급히 뛰어갔다. 뛰어가는 내내 오랫동안 지워졌던 기억이, 그와 함께 했던 시간이 양파껍질 벗겨지듯 하나씩 속살을 드러냈다. 전시회장에 도착해서 인터뷰에서 미처 질문하지 못한 것이 있다고 관계자에게 부탁해 그가 묵고 있던 숙소의 연락처를 어렵게 알아냈다. 한참을 망설이다 통화버튼을 눌렀다.

“오후에 인터뷰했던 기자인데…… 혹시 제가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닌가…… 해세요.”

“…….”

그는 말이 없었다. 가쁜 숨소리만 희미하게 들렸다. 시간은 느리게 흘렀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었다.

“나 경선이다. 너 만배 맞지? 아까는 바로 알아보지 못했다. 미안하다.”

전화기 너머로 짙은 망설임이 느껴졌다.

만배와 연락이 끊긴 것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부터다. 우리는 설악중학교가 있는 교동 한적한 주택가에 몇 집 건너 살았는데 초등학교와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같은 학교를 다녔다. 중학교에 다닐 때만 해도 만배 아버지는 고기잡이배를 두 척이나 갖고 있었다. 배 한 척이 집 한 채보다 비쌀 때였으니 만배 집은 우리 집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부자였다. 하지만 만배 아버지가 간첩으로 몰리면서 그의 집안은 순식간에 몰락했다.

침묵은 길었다. 침묵의 무게를 도저히 견딜 수 없다고 생각했을 때 그가 입을 열었다.

“그래 무슨 일로……?”

“내일 저녁에 시간 되면 윤석이랑 같이 얼굴 봤으면 해서.”

“윤석이? 양미리?”

어떡하든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었다.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궁금했다. 만배와 윤석, 그리고 나는 중학교 때 단짝 친구였다. 우리는 윤석을 양미리라 불렀다. 뺨뺨 마른 몸에 얼굴이 가늘고 길어 생김새가 양미리와 비슷하다고 해서 붙인 별명이었다. 만배는 몸이 통통하고 입이 커서 심통이(도치)로, 나는 눈이 작아서 가자미로 불렸다. 우리 셋은 어물전 삼총사가 되어 잠시라도 보지 않으면 금방 죽을 것처럼 한시도 떨어지지 않고 붙어 다녔다. 그런데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에 들어가면서 떨어지기 시작했다. 한 번 떨어지게 되면 접촉력이 급격하게 상실되는 불량 투명테이프처럼 떨어졌다. 이유가 뭔지도 정확히 모른 채 우리는 각자 다른 길을 향해 걸어갔다. 나는 그것을 성장 과정의 하나라고 생각했다.

윤석의 வீ집은 아바이 마을 끝 편에 있었다. 그곳으로 가려면 갯배를 타야 했다. 갯배는 사람이 줄을 당겨야만 움직였다. 녀석의 집에 놀러 갈 때마다 만배와 나는 디글자 모양으로 꺾인 쇠꼬챙이를 쇠줄에 걸고 서로 끌겠다며 다뤘다. 윤석은 그런 우리를 보고 촌놈이라고 놀렸다. 아바이 마을에서는 동해바다와 청초호가 동시에 보였다. 좁고 긴 사주에 의해 동해로부터 자연적으로 격리되어 만들어진 청초호는 시내의 건물과 멀리 보이는 설악산이 물에 잠기면서 꽤 그럴싸한 그

림을 만들어 냈다. 태풍은 물러갔지만 바람은 여전히 켜다. 윤석이 손바닥을 비비며 입구에서 서성이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장사 잘 돼?”

“친구란 놈이 몇 년 만에 오는데 장사가 잘 되겠니?”

“미안하다. 이제부터라도 자주 올 게.”

“니는 만배를 어찌 한 번에 못 알아볼 수가 있나? 옛날이나 지금이나 어찌 변한 게 하나도 없니.”

나는 사람 얼굴과 이름을 잘 기억하지 못했다. 학교 다닐 때는 암기를 못해 성적은 늘 바닥에 머물렀고, 어렵게 들어간 출판사에서도 동료들의 이름을 매번 다르게 불러 구설수에 오른 적도 많았다. 내 눈에 는 사람들의 얼굴이 다 고만고만했다.

“만배가 좀 늦는 갑다. 니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추운 걸 그리 못 참나. 가게 안에 먼저 들어가라. 내는 만배 오면 같이 들어갈 테니.”

찬바람에 잔뜩 움츠린 나를 보고 윤석이 말했다. 무심한 말투에서 그간 내게 섭섭했던 마음이 조금씩 풀어지고 있다는 게 느껴졌다. 저녁시간이 되자 바람이 거칠어졌다. 10월이 되면 설악산에서 내려 부는 바람과 바다에서 올라 부는 바람이 힘겨루기를 했다. 그때마다 돌풍이 일었다. 사람들은 원산내기가 심술을 부리는 것이라고 했다. 바람이 심할수록 그 해에는 큰 눈이 내렸고, 고기잡이배는 말이 묶여 사람들의 삶은 더욱 팍팍해졌다.

30년이란 시간이 훌쩍 지나 다시 한자리에 모였다. 잔이 넘치도록

소주를 따랐다. 건배소리와 함께 세 개의 술잔이 경쾌하게 부딪혔다. 단숨에 잔을 비운 뒤 만배에게 바로 못 알아봐서 미안하다고 거듭 말했다.

“몇 년 전에 교통사고가 크게 나 심하게 다쳤어.”

만배는 안면골절 수술을 여러 차례 받아서 옛날 모습과 많이 달라진 거라 했다. 자신도 거울을 보면 웬 낯선 사람이 자기를 보고 있는 것 같아 깜짝 놀란다며 미안해하는 나를 편안하게 해주었다.

“나는 니가 세계적으로 유명해질 줄 알았다. 이 새끼 중학교 때부터 고집 센 게 보통이 넘었잖니. 그게 다 이유가 있었던 거다.”

윤석의 말에 그게 고집 센 거랑 무슨 상관이 있냐며 만배가 싱겁게 웃었다.

“너희들은 그동안 어떻게 지냈니? 윤석이 너는 사관학교 가고 싶어했잖아?”

만배가 우리의 근황을 물었다.

“지난 이야기를 와 들추고 난리니.”

윤석은 아버지가 실향민인데다 삼촌이 납북되어 송환되는 바람에 신원조회에 걸려 최종 면접에서 해군사관학교 합격이 취소되었다. 윤석은 자기 앞에 있던 술잔을 들어 한입에 비웠다. 만배가 도루묵찌개와 심통이 숙회, 물가자미 무침회가 가득 차려진 술상으로 화제를 돌렸다.

“이거 진짜 먹고 싶었다.”

“많이 먹어라. 니 정말 많이 보고 싶었다. 어찌 그리 연락 한 번 없

을 수 있나?”

윤석은 섭섭하다는 듯 만배에게 술을 권했다.

“니들 학교 앞 문방구에서 도루묵 알 팔았던 거 기억나나? 학교 끝나고 집으로 가는 길에 많이 사 먹었잖니. 그게 생각나 얼마 전에 도루묵 알을 왕창 사지 않았겠니. 한 술이나 쪼는데 다 버렸다. 옛날 맛이 아닌 기라.”

학교 앞 문방구에는 지금의 순대집처럼 모락모락 김이 나는 양은술이 입구에 자리를 잡고 있었다. 비닐을 젖히면 동글동글한 도루묵 알이 먹음직스럽게 쌓여 있었다. 알은 쪼고 질겼다. 씹으면 떼글떼글한 알갱이가 미끌미끌한 점액질을 빠져나와 입안에서 터졌다. 씹을 때마다 ‘오도독오도독’ 하는 소리가 났다. 비싼 껌 대용으로 도루묵알을 씹고 다녔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도루묵 알은 해초와 함께 바닷가 모래사장에 자주 떠밀려 왔다. 그만큼 도루묵은 흔했다. 팔아도 제 값을 못 받으니 친구 집 어딜 가나 있었다. 찌개에, 구이에, 조림에, 그도 아니면 식해로 등장했다.

“오늘 만배 온다고 해서 양미리 좀 구웠다. 금방 갖고 올게.”

윤석은 웬만하면 양미리를 먹지 않는데 오랜만에 만난 만배와 나를 위해 양미리를 준비한 모양이었다. 감초 같은 녀석이다. 양미리는 겨울에 먹어야 제 맛이다. 깨끗하게 씻은 후 연탄불 위 석쇠에 올려놓고 소금을 살살 뿌려가며 내장을 빼지 않고 통째로 구워 뼈째 먹는다. 우리는 접시에 담긴 양미리를 걸신들린 듯 먹어 치웠다.

“중학교 2학년 땡가, 공설운동장에서 북한 어선나포에 항의하는 규

탄대회 열렸잖니. 니들 기억나니?”

“기억나지. 그날, 만배 너 혈서 썼잖아.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 손가락을 찢어 혈서를 쓴다는 게 말이 쉽지. 그때 모두들 손가락을 입에 넣고 눈치 보고 있는데 갑자기 너희들 있는 곳이 웅성웅성하는 거야.”

내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만배와 윤석이 눈을 마주치며 박장대소를 했다. 한참을 웃고 난 후 윤석이 불과해진 얼굴로 사건의 전말을 밝혔다.

“내가 책가방에서 손톱 다듬을라고 연필 깎는 칼을 꺼내지 않았겠니. 그런데 만배 이 새끼가 내가 혈서 쓴다고 칼을 꺼낸 걸로 생각했던 모양이야. 미쳤니? 하고 손에 든 칼을 뺏으려 하지 않았겠니. 나는 안 뺏기겠다고 야랑 몸싸움을 했고. 그런데 서로 잡고 밀치다가 그만 만배 손가락이 베였잖니. 손에서 피가 철철 나오길래, 이왕 이렇게 된 거 혈서나 쓰자고 했지. 그걸 보고 옆에 애들이 떠드는 바람에 단상까지 올라가게 된 거다.”

허무한 결과에 내가 어이없는 표정을 짓자, 윤석은 눈물까지 흘리며 웃었다. 각자의 궤도를 돌며 멀어졌던 시간들이 조금씩 가까워지는 느낌이 들었다. 소원했던 마음이 하나 둘 사라지고 있었다. 건배소리가 높아졌고 취기가 올랐다.

“지금도 대원극장 그대로 있냐?”

만배가 나를 보며 말했다.

“없어진 지 오래됐다. 문 닫은 지 20년도 넘었다. 지금은 그 자리에 호텔이 들어섰다.”

“그렇겠지. 시간이 많이 흘렀으니…….”

만배는 멍하니 어두운 밤바다를 바라봤다. 중학교 때였다. 당시 새로운 영화가 개봉할 때마다 극장 측에서는 아버지에게 극장표 몇 장을 보내오곤 했다. 공짜표를 몰래 빼돌린 나는 종종 만배를 불러 영화를 보러 갔다. 만배는 영화보다 극장 간판이나 영화 포스터에 더 관심이 많았다. 그때 극장 간판을 그렸던 사람이 있었는데 만배는 그 사람이 일하는 창고를 수시로 기웃거렸다. 만배가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것도 아마 그때부터였을 것이다.

“학교 마치면 거의 매일 극장에 갔어. 극장 간판을 그리던 배씨 아저씨라고 계셨는데 그분한테 그림을 처음 배웠어.”

만배가 그때를 회상하며 말했다.

“미국에는 언제 건너간 거야?”

“고등학교 졸업하고 서울 가 한 2년 공사관에서 일하며 돈을 모았어. 그리고 비행기를 탔지. 고맙게도 배씨 아저씨가 미국에서 화가로 활동하고 있는 친구분을 소개해주셔서 그분 밑에서 일하며 그림을 배웠어.”

“고생 많았겠네. 그래도 가끔 연락 좀 하지 그랬냐?”

“나라고 너희들을 안 보고 싶었겠냐? 너희들에게 연락하면 결심이 흔들릴 까봐 두려웠어. 가더라도 성공해서 가고 싶었어. 이 악물고 버텼지. 너희들과 보낸 추억이 없었다면 절대 건딜 수 없었을 거야.”

만배가 두 손으로 얼굴을 문지르며 흐르는 눈물을 훔쳤다.

“아버지 장례식은 그렇더라도 니 형 장례식 때는 왔었어야지. 니 형

죽기 전까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나?”

윤석은 답답하다는 듯 술잔에 소주를 따라 거푸 마셨다.

만배 아버지는 10년 전에 돌아가셨다. 만배 형도 고문 후유증으로 시름시름 앓다가 작년 겨울에 죽었다. 나는 만배 아버지와 만배 형 장례식 모두 가지 못했다. 아니 갈 수 없었다. 10년 전 만배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부고를 접하고 속초로 내려갔었다. 검은 넥타이를 매고 집을 막 나서려고 하는데 아버지가 누구 장례식장에 가냐고 물었다. 만배 아버지 문상을 다녀오겠다고 하니까 아버지가 방 안에서 나를 불렀다. 중학교 다닐 때 만배 그 아이는 빨갱이니 어울리지 말라고 혼을 냈던 기억이 떠올랐다.

“앉아라.”

이어 아버지는 책장 깊숙한 곳에서 수첩 서너 권을 꺼내와 내 앞에 놓았다. 중학교 때 극장표를 몰래 가지고 나올 때 책장 안에서 가끔 봤던 수첩이었다, 형사수첩, 속초경찰서란 글씨가 표지 위아래로 새겨 있어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었다.

“내가 목쓸 짓을 많이 했다.”

수첩을 펼치자, 거기에는 납북어부들을 속초 시내에 있는 여인숙에 끌고 가 북에서의 행선지와 발언내용, 간첩 지령 수령여부 등을 집중 추궁했던 일, 전기고문을 비롯해 술한 구타와 폭행을 자행했던 일이 일자별로 소상히 기록되어 있었다. 또 다른 수첩에는 경찰서 고위 간부와 속초지검 검사가 자신들의 출세를 위해 납북되었다가 귀환한 사람들을 어떻게 간첩으로 몰고 갔는지도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었



다. 거기에는 만배 아버지도 있었고 만배 형도 있었다. 그때는 여름이었고 전날 비가 내려서인지 무척 습했다. 선풍기가 돌아가고 있었는데도 땀에 젖은 옷이 몸에 짝짝 달라붙었다. 아버지가 말로만 듣던 간첩 조작 담당 형사였다니 눈앞이 깜깜했다. 아버지의 위선에 숨이 막혔다. 그 길로 서울로 올라왔다. 다시는 아버지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았다.

그로부터 두 달 후에 일하고 있던 출판사로 아버지가 불쑥 찾아왔다. 아버지는 내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다.

“죽기 전에 꼭 참회하고 싶다.”

같이 일하고 있던 동료들이 이상한 눈초리로 날 쳐다봤다. 창피한 마음에 아버지 손을 잡고 밖으로 나가 이야기하자고 했다. 아버지는 갖고 있던 수첩을 내 손에 쥐여 주며 눈물을 흘렸다.

“부탁한다. 네가 그들의 인권 회복을 위해 노력을 해주면 안 되겠니?”

그때부터 남북귀환어부와 그 가족을 위한 인권회복을 위해 매달렸다. 수첩에 적혀있던 분들을 하나하나 찾아가 빌었다. 빨갱이로 살아야 했지만 빨갱이가 뭔지도 몰랐던 그들이었다. 그들은 탓하기보다 고맙다고 했다. 진실만 규명된다면 여한이 없다고 했다. 분노를 표하기보다는 위로와 용기를 주었다.

“작년 초에 형이 한 번 보고 싶다고 연락이 왔었어. 부랴부랴 비행기 표도 끊고 첼시 갤러리 전시회만 끝나면 바로 들어오려고 일정도 조정했어. 그런데 숙소로 가던 중에 교통사고가 크게 난 거야. 6개월

가까이 병원에서 지냈어. 형이 죽었다는 소식도 그때 들었어.”

만배는 멍하니 창밖 밤바다를 바라봤다. 등대불빛이 밤바다를 밝히고 있었다. 아버지가 경찰이었던 사실을 만배는 알았을까? 자기네 집이 몰락하게 된 것이 내 아버지 때문이라고 하면 나를 여전히 친구로 대할까?

“임마는 뭘 생각을 이리 골똥히 하니? 경선아, 니 아버지 아직 살아가시지? 만배야, 경선이 아버지 경찰이었던 거, 니 알았나? 존나 멋있었다. 우리 동네에도 가끔 와서 납북됐다가 돌아온 사람들 뭐 하는지 알려주면 용돈도 주고 그랬다.”

“갑자기 그 이야기는 왜 하고 지랄이야.”

나는 윤석을 향해 눈을 부라렸다.

“니 아바이 멋있다고 한 게 머 잘못됐나.”

속에서 불덩이가 끓어올라 밖으로 나갔다. 언젠가는 밝혀질 일이었지만 막상 아버지 이야기가 나오니 친구들 얼굴을 똑바로 볼 수가 없었다. 죽을 때까지 감추고 싶었던 어두운 민낯이었다. 가게 옆 하수구에 쭈그러 앉아 토악질을 했다.

1년 전부터 급속도로 건강이 악화된 아버지는 올 초에 세상을 떠났다.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다. 겨우 숨만 붙어있던 아버지를 마지막으로 봤던 날, 아버지가 누워있던 침상 맞은편 벽에 달린 티브이에서는 납북귀환어부 과거사 및 인권침해사건을 재조명하는 특집 프로그램이 방영되고 있었다. 동해지역 납북귀환어부와 그 가족에 대한 인권침해 사실을 조사했던 나는 그간 조사했던 자료를 정리하여 몇 년

전 언론매체에 제보했다. 반드시 진실규명이 필요하다는 아나운서의 멘트가 막 끝나자, 환자 모니터링 장비에서 빨간 불이 깜박거리면서 ‘삐삐’ 하는 기계음이 울렸다. 소리는 다급했고 날카로웠다. 미세하게 떨리던 초록선은 이내 직선으로 바뀌었다. 다가가서 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생전의 마음고생을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졌다.

내가 걱정됐는지 만배와 윤석이 밖으로 나왔다. 우리 셋은 방파제에 걸터앉았다. 등대 불빛이 먼바다를 향해 산란하듯 흩어졌다. 우리는 어두운 바다를 말없이 바라봤다.

“미안하다. 만배야. 네 아버지와 형 일 정말 미안하다.”

“네가 미안할 게 뭐 있냐? 네 아버지 경찰이라고 해서 그러는 것 같은데. 난 다 잊었다. 아니 다 잊었다는 것은 거짓말이겠지. 하지만 그 게 우리의 잘못은 아니잖아.”

눈물이 쏟아졌다. 나는 어깨를 들썩이며 큰 소리로 흐느꼈다. 만배가 내 어깨에 손을 걸쳤다.

“아버지가 간첩으로 몰려 투옥되고, 생계 때문에 학교를 그만둔 형이 배 타고 나갔다가 아버지에 이어 또 간첩으로 몰렸을 때는 정말 죽고 싶었다. 친구들은 저마다의 목적지를 향해 어디론가 가고 있는데 나는 점점 무기력해지고. 너는 나를 점점 멀리하고…….”

“이 새끼들은 오랜만에 만나 가지고 왜 다 울고 지랄이니.”

윤석도 눈물을 펄펄 쏟아냈다.

“이번에 전시한 침몰이란 작품, 그거 아버지와 형 생각하며 그렸다. 인터뷰 때 등대가 누군가에게는 절망이 될 수도 있다고 했잖아. 아버

지와 형 이야기야. 북한 경비정에 의해 강제로 납북되었다가 이듬해 송환되었을 때 멀리 보이는 속초등대를 보고 이제 살았다며 엄청 기뻐했었는데……. 지옥이 기다리고 있었던 거지.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림을 완성하고 나니까 나를 그토록 괴롭혔던 절망과 고통이 몸 안에서 조금씩 빠져나가는 게 느껴졌어. 그때 깨달았어. 등대는 등대일 뿐이라는 사실을. 등대를 바라보는 마음이 문제였던 거지.”

“애들아. 내일 납골당에 모신 아버지와 형한테 인사드리러 가려는데 같이 갈래. 내 꿈이 시작된 대원극장이 있던 곳도 가보고.”

“기절 무슨 말이라고 하나. 당연히 같이 가야지.”

윤석이 기가 차다는 표정으로 말했다.

“배씨 아저씨는 아직 살아 계시냐? 어떻게 지내시는지 얼굴 한 번 뵙고 싶다.”

“응. 지금 서울 양재동에 살고 계시. 여기 오기 전에 인사드리고 왔다. 엄청 반가워하시더라.”

만배가 환한 얼굴로 말했다.

“35년 만에 우리 삼총사래 다시 뭉치는 거니. 이왕이면 내일 배 타고 바다도 한 번 나가는 게 어떨겠니?”

우리 셋은 내일 만나기로 하고 각자 집으로 향했다. 갯배 쪽으로 걸어가는 데 캄캄한 어둠 속으로 빨간 등대가 모습을 드러냈다. 누군가에게는 희망이기도,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절망이기도 한 등대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 묵묵히 자신의 소임을 다하고 있었다. 암흑의 바다를 향해 불빛을 쏘아낼 뿐이었다. 만배의 그림 속 등대도 저 어딘가

에 있을 것이다. 누군가에게 절망이 되었던 검은 등대는 과거의 고통과 함께 깊은 바닷속으로 침몰되어 버렸으면 좋겠다.

다음 날 우리는 만배 아버지와 만배 형을 모신 승화원에 갔다. 나는 조심스럽게 올 초에 돌아가신 아버지의 부고를 뒤늦게 알렸다. 윤석은 뭐 이런 새끼가 다 있냐며 혀를 찼다. 우리는 만배 아버지와 만배 형, 그리고 내 아버지 모두에게 인사를 드렸다. 나는 너무 늦게 와 죄송하다고 용서를 빌었다. 승화원을 나와 대원극장이 있던 곳으로 갔다. 극장은 사라지고 호텔이 들어선 것을 보니 기분이 묘했다. 우리의 시간과 추억이 훼손된 것 같아 섭섭했다. 만배는 호텔 주변을 돌며 자신이 그림을 그렸던 곳이 여기쯤이 아니었을까? 하며 애석해했다. 간단하게 점심을 먹은 다음 윤석의 고기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갔다. 바다는 고요했다. 설악산에서 불어온 바람이 바다를 가볍게 어루만졌다. 우리는 아무 말 없이 나란히 뱃머리에 서서 등대를 바라봤다. 만배 아버지와 만배 형, 그리고 이 바다를 지나간 그 누군가도 여기 어디쯤에서 저 등대를 바라봤을 것이다.

하얀 등대는 오늘도 여전히 땅 끝에서 바다 끝에서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땅 끝은 바다의 시작이었고, 바다의 끝은 땅의 시작이었다.



## 제 11회 등대문학상 수필

### 최우수상



#### 박미림

경남 사천시

#### 프로필

경남 산청군 출생  
방송통신대학교 국어과 졸업  
산악잡지 '사람과 산'에  
'부산 근교의 산'과 '경남의 산'  
연재

#### 수상내역

산악잡지 '사람과 산' 공모  
산악문학상 수상(2003년, 시)

#### 당선소감

귀촌한 지가 사오 년 되었다. 진종일 이웃 얼굴 보기도 힘든 산촌의 일상은 흰 구름이 산마루턱을 베고 누운 것처럼 한갓 지다. 바쁘다고 설레발을 쳐봐야 텃밭을 가꾸는 게 전부다. 내일도 오늘과 별 다를 바가 없다. 하루에 절반은 손도 대지 않고 그대로 놔둔 여백으로 충만하다. 더러 두서없이 지난날을 떠올리고 추억에 젖는 시간으로 그 여백을 채운다. 그리운 추억의 장소를 찾아가 곰곰 그 추억을 되새겨 보기도 한다. 당시의 나를 재발견한다고 할까. 그 재발견을 글로 쓰면서 가슴 뭉클했는데, 수상까지 하게 되어 더욱 값지다.

고향으로 돌아온 나를 반겨준 소꿉친구들, 세상살이와 동떨어진 내 안부를 묻고 저들의 안부도 전해주는 지인들, 먼 강화도까지 운전해 준 동생과 동행한 가족 모두에게 고마움 전합니다. 심사위원님, 이 공모전을 주최하고 주관한 관계자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

## 펼

제 11회 등대문학상 최우수상 ◆ 수필  
박미림

‘뒷개’는 외갓집 마을의 펼이다. 마을 뒤쪽을 꿰찬 이 뒷개는 올망졸망 이마를 맞댄 산과 산을 나무울타리 삼아 빙 둘러쳤다. 산골짜처럼 깊숙한 이 뒷개에 썰물이 지면, 밀물 속에 잠겼던 펼이 건너편 갯바위까지 쭉 기지개를 켜다. 그 가장자리를 에돌아 싹튼 파래며 이름 모르는 해초에도 파르라니 생기가 돈다. 펼 사이로 난 갯골은 앞바다로 빠져나간 썰물의 뒤통무늬 양 나직한 곳을 따라 굽이돈다. 켜 걸음 같은 잔물결이 수르르 갯골에 인다.

펼은 육지의 퇴적물질과 바다의 부유물질이 뒤섞인 곳이다. 하루에 두 번 밀물이 들락날락하는 바다의 영역이라 썰물 때도 움푹한 웅덩이마다 잔물이 고인다. 그늘 한 점 없는 뜨거운 햇볕을 쬔고, 한밤중 교묘한 달빛에 얼비쳐도 막 밀물이 빠진 것과 진배없이 질퍽하다. 그렇듯 움푹한 웅덩이의 잔물, 햇볕과 달빛으로 육지의 퇴적물질과 바

다의 부유물질을 염장하고 발효시킨다. 부글부글 끓 진회색은 펄이 살아 숨 쉬는 생명의 빛깔이다. 한 발 디디면 무릎까지 쭈욱 빨려 들어가 바닥에 착 달라붙고, 그 발을 빼내려면 뒤통뒤통 다리를 치대야 할 만큼 차진 힘을 함유하고 있다. 펄은 바다의 장독이다.

가리맛, 낙지, 피조개, 쑥, 참꼬막, 비단짱뚱어, 흰발농게 등 펄은 다양한 생명을 품고 키운다. 이 생명들은 밀물과 썰물의 부침에 맞짱 뜨면서 먹이활동이 가능한 때를 숨죽여 기다린다. 조개류는 관자를 이용해 한 쌍의 껍데기를 열고 닫으며 밀물 속 유기물을 걸러 먹는다. 야행성인 낙지는 밤에 활동하며 밀물 속 게와 조개를 잡아먹는다. 반면에 비단짱뚱어와 흰발농게는 썰물이 돼야 꼬물꼬물 펄 구멍에서 기어나와 부산을 댈다. 펄을 통째로 삼켜 유기물을 걸러 먹고 나머지 펄은 경단처럼 둥글게 말아 다시 게워낸다. 밀물과 썰물이 번갈아 교차하는 절반의 삶터, 펄의 생존법은 곧 물때를 맞추는 것이다.

초등학교에 다니던 시절이었다. 여름방학을 맞아 외갓집에 간 나는 언니와 동생, 또래 외사촌들과 어울려 뒷개에 나가 놀았다. 펄 가운데 솟은 모래 등에 올라 썰물이 남긴 물결무늬를 밟으며 맨발로 마구 달음박질쳤다. 발뒤꿈치에서 모래알들이 툭툭 튀겨 올라 장딴지를 때렸다. 그 뽕박질이 지치면 털썩 모래 등에 퍼질고 앉아 백합조개를 쫓다. 손바닥을 모래 위에 대고 손가락을 가지런히 모은 다음, 손등에 모래를 퍼 올려 다독다독 두꺼비집도 지었다. 그 집 속에 손을 넣었다, 뺐다 하면서 펄 구멍을 들락날락하는 칠게 흉내를 냈다. 야, 하고 칠게를 향해 소리를 질렀다. 깜짝 놀란 칠게가 순식간에 펄 구멍 속으로 쏙 들



어갔다. 조금 후 꼬물꼬물 기어 나오는 칠게를 향해 연거푸 야, 하며 친한 척 성가시게 굴었다. 노는 내내 갯바람을 마시고 갯냄새를 훌쩍거리며 짹조름해졌다.

나는 바다 하면 항상 펄이 떠오른다. 설 추석 휴가 때나 연말이면 한나절 짬을 내 들리는 곳도 순천만 갈대숲이다. 자연생태공원이 생기기 이전엔 논과 펄의 경계인 흙둑에 올라서면 바로 무성한 갈대숲이 펼쳐졌고, 지금은 나무 텍 탐방로를 따라 갈대숲을 산책할 수도 있다. 찾는 시기 때문인지 몰라도 갈대는 늘 선물처럼 반갑고 설렌다. 갯바람과 동고동락하는 갈대도 잎과 줄기를 사르륵사르륵 흔들고, 자갈색 갈꽃을 피우고, 시나브로 솜털 단 씨앗을 진눈깨비처럼 흩날린다. 갯가를 따라 무리를 지어 서로 모나지 않고 수수한 생김새가 조화로운 멋을 더한다. 밀물 속에 서 있을 때도 뿌리 쪽 줄기만 잠겨 푹푹하게 잎들을 서걱댄다. 밀물과 썰물을 모두 품은 바다의 숲, 갈대는 전혀 딴판인 망망대해의 시작점이기도 하다.

강화도 마니산 정상에 올랐을 때다. 야간산행을 한 덕분에 희뽀한 새벽녘 평야처럼 드넓은 펄과 조우하는 뜻밖의 행운을 누렸다. 펄을 높은 곳에서 내려다본 건 처음이었다. 그 펄은 낮은 곳에서 바라보던 편편한 모습과는 달리 요동치듯 움푹움푹 꺼지고 또 솟구치며 첩첩 뻗어가는 퇴적암 지대처럼 웅골찼다. 펄의 굴곡 사이사이에 가는 물길이 촘촘히 연결되어 조금 넓은 곡선의 물길을 만들고, 또 그 물길들이 만나 절벽처럼 가파르게 깎인 갯골을 이루었다. 미처 알지 못했던 그 역동성은 펄 끝자락까지 거침없이 뻗어가 아스라이 가물거렸다.

사람도 펄의 생명이다. 펄이 삶터인 사람들은 서로 약속이나 한 듯 밀물과 썰물의 물때에 맞춰서 일상을 꾸린다. 썰물 때면 빨배를 끌고 펄에 나가 참꼬막과 가리맛조개를 캐고 낙지를 잡는다. 펄 범벅이 된 분주한 일손도 밀물이 찰 시간이 되면 서둘러 펄을 빠져나와야 한다. 나 또한 펄의 생명일 게다. 살아가면서 겪는 이직과 병고 등 삶의 밀물에 부대끼다 보면, 도움을 청할 곳조차 없는 난감한 상황이 한두 번뿐 이겠는가. 통장 잔고에 찍힌 '0원'을 쳐다보면서 입술을 꼭 깨문 적이 있다. 매사에 차지지 못한 난 마음마저 쪼들리는 삶의 물때를 맞추느라 늘 동분서주했다. 나를 쥐락펴락하는 삶의 밀물에 등 떠밀리고 허둥대며 눈칫밥이나 얻어먹기 일쑤였다.

조도(鳥島)다. 외갓집 마을은 그 이름이 말하듯 겨울철새들이 월동하는 보금자리였다. 초겨울 무렵 청둥오리와 쇠기러기 떼 등 겨울철새들은 몇 날 며칠을 쉬지 않고 뒷개로 날아왔다. 겨울방학 때 봤던 그 철새들은 종일 뒷개를 들쭉시며 해초를 뜯고 펄을 쪼며 먹이사냥을 했다. 혹시, 독길 밑에 웅크려 매의 눈으로 훑쳐보는 내 호기심을 눈치챘을까. 느닷없이, 서너 마리가 뒷개를 박차고 날아오르면 그 많은 철새들이 덩달아 떼 지어 날아올랐다. 나를 감시하듯 허공에 점점이 흩어졌다 모이고 또 흩어졌다가 모여들었다. 그 군무는 뒷개 하늘을 단숨에 펄 색깔로 물들였다. 이윽고, 내 호기심이 안전하다고 판단했을까. 철새들은 나지막이 허공을 두어 바퀴 더 돌면서 날개를 접고 사뿐히 뒷개에 내려앉았다.

비단 월동뿐이라. 펄은 번식지에서 월동지로 이동하는 나그네새인

개펄, 안락꼬리마도요가 휴식을 취하면서 기력을 회복하는 중간 기착지 역할도 한다. 또한 텃새인 검은머리물떼새의 변함없는 서식지다. 정화 능력이 뛰어난 펄의 생명들은 건강한 먹이사슬을 형성한다. 사철 텃새들을 먹이고, 나그네새와 철새들이 머물다 떠난 후 때가 되면 다시 찾아올 만큼 풍요롭다. 물론 철 따라 날아오는 새들도 펄을 풍요롭게 퍼덕인다. 그 무리 속엔 천연기념물이며 세계적 희귀조인 흑두루미도 있지 않은가. 펄에 깃든 새들의 날갯짓은 아름다운 풍경이 되고, 그들이 날아오고 날아가는 먼 미지의 세상을 아득한 그리움으로 물들인다.

오며 가며 들리는 남해의 바닷가였다. 한번은 썰물 때라 막 펄이 드러나는 참인데 그 물 빠짐이 매우 빨랐다. 펄로 내려서기도 전에, 맞은편 섬으로 이어지는 바닷길이 초승달처럼 예쁜 포물선을 그리며 모래 등 마냥 도드라졌다. 그 길에 쪼그리고 앉아서 모래를 한 움큼 쥐고 만져보니 몽땅 쾌각이었다. 형체 없이 잘게 부서진 것, 아직 형태가 남아 있는 소라 껍데기가 뒤섞인 채 햇빛과 물빛을 머금고 반짝였다. 쾌각은 들고나는 물살에 점점 더 잘게 부서질 터, 또 다른 생명을 품고 키우는 펄로 거듭나고 있었다.

뒷개는 툭 튀어나온 산봉우리에 가로막혀 앞바다가 보이지 않는다. 감쪽같이 산봉우리 뒤로 돌아앉아 앞바다를 잊은 듯 외톨이지만, 어릴 적 추억이 오롯한 내 가슴속 같은 곳이다. 나는 성장한 후 드넓은 세상을 품으려 뒷개를 떠났다가, 나이 들수록 소중해지는 어린 날을 찾아 말없이 돌아왔다. 여태 모래 등을 뛰어다니는 어린 나에게 내밀

성취의 꾸러미는 없다. 그것도 모르고 짐게발에 묻은 핏을 조물락조물락 비벼대는 칠게가 반갑다. 빈손이나마 두 팔을 활짝 벌려 뒷개를 품어 본다. 모래 등이 최고였던 어린 날의 뒷개가 사실은 앞바다로 이어지는 드넓은 세상이었음을 비로소 안다. 이 뒷개에 아쉬움이 알알이 박힌 내 지난날을 부려놓고 포용과 순리의 물때를 맞춰 볼 참이다.



# 우수상

시/시조  
소설  
수필





제 11회 등대문학상 우수상

시/시조



이석재  
유종인  
박수호

---

## 팔미도

제 11회 등대문학상 우수상 ◆ 시/시조  
이석재

사월이 시작되자, 섬은  
어스름과 함께 밀려드는 밀물 소리를 들으며  
몸살을 앓았다

발치계에서부터 차오르는 푸르스름한 저녁 음계는  
겨우내 바람이 할퀴 생채기를 다스리기 위해 분주하였고

연초록 잎들의 허밍 소리에 매달린 그들은  
저마다의 빗길로 풍성한 꽃잎을 열었다

무릇 자연의 코러스는 가슴으로 들어야 하는 것을

영흥도를 지나 등이 굽은 향로의 맨살 위에 쓰러지는  
어스름이

영종도 쪽으로 또 다른 궤적의 하늘길을 열 때

사람이 사람으로 이어지는 세상에서

흐르지 않는 길은 없는 것일까

물비린내 나는 역사의 그림자가

불안정한 음표로 제물포를 흔들고 한양으로 내달렸을 때

팔미도 등대가 왜 말을 잊어버렸는지

질곡의 기억을 온몸에 새긴 갯바위들이

왜 하염없이 육지 쪽을 바라보는 망부석이 되었는지

굳이 말을 꺼내지 않아도 조금은 알 것 같기도 하다

섬이, 건조한 등을 어둠에 부비며 잘그락거리는 소리를 내면

송도 쪽으로 향하거나 갑문으로 향하거나

바다는 온통 부표들의 불빛으로 소란해진다

미처 떠나지 못한 섬의 꼬리뼈 부근에 쌓인 낙엽들만

불빛의 웅덩이에서 뒤척이며 짧은 봄밤의 실밥을 푼다

그렇게 어둠이 길 밖에 서 있는 것들의 배경이 되면



그때서야 가장 간명한 궤적으로 드러나는 등대의 불빛  
터럭만큼의 욕심도 없이 어깨에 등대 하나 올려놓은 모습으로  
결코 안색을 찌푸리지 않는 섬은 다시 따뜻한 침묵으로 엮드린다

모르는 길은 잠시 쉬어가는 법이라고  
넌지시 깊이 감추었던 낱말들 풀어놓으며.

---

## 등대식당

제 11회 등대문학상 우수상 ◆ 시/시조  
유종인

세월을 대신해 우리가 늙는 게 아닐까요  
빛에게 얻어든 빛은 무량하니  
바다의 어둠한테도 뭐 좀 먹여야 하지 않을까요

육지를 대신해  
등대로(燈臺路) 근처에 밥집을 차렸지요  
빛은 곧 밤의 음식이어야 하듯  
바다에 나가 써먹을 밥심을 좀 차려주자고

밤바다로 헤드랜턴을 머리에 쓴 저 등대가  
밥집 주인은 석가(釋迦)라 했지요 더러 해수관음보살이라 했지요  
어느 땐 천수관음보살이라 했다가 헛갈려도 좋은 건  
밤바다가 미로 같은 날들  
등대가 거기 빛의 고봉밥을 퍼

뱃길의 밤배들에게 퍼줄 때면 그마저도 앞치마를 두른  
성모마리아라는 이도 있지요

어복(魚福)이 잘 드는가 밤의 점상(占床) 위에 빛의 쌀알을 흩뿌리는 일,  
툴툴거리며 포구에 든 새벽 어선들 시장기는  
소라껍질과 계란껍질이 덮인 석류 화분이 석류꽃 미소로 맞는  
등대로 근처 밥집이 채워주죠

빈 배로 돌아온 걸 아는 주인일수록  
뱃사람들 식탁엔 반찬 가짓수가 한둘 씩 더 늘어나고  
고봉밥은 한 번 더 고봉을 얹고 국은 한 국자 더 듬뿍 푸는 국자,

밤에는 머리에 헤드랜턴을 낀 흰 등대 아저씨가 있다면  
새벽부터 한낮엔 포대화상 같은 등대밥집 아줌마가 있죠

조금때 바다는 고기가 가물어도  
등대밥집 아줌마 푹푹한 인심은 천수관음의 손을 빌렸는지요  
어느 날 통도사에서 만난 교수는 그러셨지요  
날마다 빛을 뿌리십시오  
등대를 바라는 등대식당 밥심으로  
우리는 날마다 빛을 파종하며 빛의 고봉밥을 먹여가는 거라고

---

## 제보선창

제 11회 등대문학상 우수상 ◆ 시/시조  
박수호

지워져 버린 곳  
늘 바다가 밀려와서 일렁거렸다  
어느 날은 더 깊숙이 밀고 들어왔고  
땅으로 기어오르고 싶어 했다  
어떤 때는 심드렁해서  
뒤척거리며 어른거리다가  
몸을 돌려 나가 버리기도 했다  
어부는 물때에 맞춰 바다로 나갔다가  
조금이 되면 선창에 배를 댔다  
그런 날은 등불은 일찍 꺼졌지만  
집마다 두런거리는 소리가 새어 나왔다  
그렇게 골목마다 쏟아진 새끼들을  
바다는 흔들어 키웠다  
봄여름 가을겨울

또 봄여름 가을 이어 겨울  
כות수염이 거뭇해질 무렵  
선창 선술집에서 얼큰히 취해  
흘러나오는 뺏사람들의 젓가락 장단에  
목포의 눈물을 들으며  
하나둘 선창을 떠났고  
계절은 계절을 밀어내며  
사소한 이야기를 덮어두었다  
세상 속으로 날아간 아이들은  
새 떼처럼 흩어져 가끔  
가슴 아픈 소식을 전해오기도 하고  
잔물결로 흩어지는 이야기를  
바람결에 실어 오기도 했다  
어찌 세상일이 마음대로 될 것인가  
살다가 삶이 버거운 놈은  
비린내가 그리운 선창에 찾아들어  
기억 저편의 이야기를 뒤적거리는 동안  
어둠은 소리 없이 내리고  
하늘에는 별이 떴다  
별은 바다에도 떨어져 흔들리며 서 있고  
다순구미 언덕에도

돌아서는 것들을 다독이듯  
따뜻한 불빛이 하나둘 눈을 껌벅거렸다  
바람도 돌아갈 곳으로 돌아가고  
조금 새끼들이 떠난 켜보선창에는  
별들이 수없이 박혀있었다





제 11회 등대문학상 우수상

# 소설

---

◆◆◆  
박복영  
이충호  
박영숙



---

# 포세이돈\*의 귀환

제 11회 등대문학상 우수상 ◆ 소설  
박복영

## 1

“텅”

방문을 힘껏 닫고 뿌리치듯 손잡이를 놓는 손끝이 떨렸다. 차가운 금속성 손잡이에서 아귀의 지느러미에 찢린 것처럼 시린 통증이 밀려왔다. 육신거리는 통증을 꼭, 참아가던 밥상머리는 가끔씩 사기그릇처럼 깨어졌다. 마루에 앉아 장화를 당겨 발목을 집어넣는 발아래 그림자가 그물에 걸린 아귀처럼 꿈틀거릴 때마다 환한 달빛이 토닥이듯 사내의 어깨 위에서 은은하게 빛났다. 할머니의 말끝이 목에 걸린 가시처럼 남아 있었다. 지 아빌 잡아먹은 놈이.

초겨울 칼바람은 지독한 두통 같았다. 방파제를 따라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무릎을 한 움큼 바늘로 찌르는 것처럼 따끔거렸다. 온몸으

로 맞는 칼바람이 파도를 한 겹씩 꺾질을 벗기며 밀려와 테트라포드에 부딪쳐 부서질 때 바람 소리가 컷가를 스치며 무슨 말을 속살거리는 것 같았다. 사내가 주춤거리다 두 손을 들어 털모자 덮개를 내리며 중얼거렸다. 컷속을 파고드는 바람 소리를 차단하자 컷가를 맴돌던 말들이 조금 나아진 듯 두리번거렸다.

테트라포드에 부딪쳐 굉음을 내며 부서진 포말은 끝내 해독할 수 없는 암호 같았다. 바다는 끝없이 살아야 했으므로 출렁이지 않으면 안 되었으리라. 할머니처럼. 사내의 웅크린 가슴을 죽여라 떠미는 칼바람에 균형을 잡느라 바짓단은 깃발처럼 부대꼈다. 떠 흔들리는 부표 같은 생을 기억했을 땐 이미 아버지는 몸 안 깊숙이 상처로 박혔고 어부의 궤적을 따라가기엔 아직 어설픈 몸짓이 남아있었을까. 3년 남짓 어부의 길은 흐릿해 보이지 않았다.

이윽고 방과제 길 끝을 마주하고 섰다. 더 나아갈 수 없는 길 끝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다며 서성거릴 때 불안함처럼 뒷덜미를 후려치는 첫소리 같은 칼바람 소리. 바다는 어스름에 갇힌 수평선을 팽팽하게 당기며 당당하게 서 있었고 사내는 절정을 향하는 한 편의 오페라 주인공처럼 하늘을 올려다보며 서 있었다. 돌아서면 시작인 길 끝이었다.

등 뒤로 배들은 파랑<sup>〃</sup>을 피해 자궁처럼 움푹 팬 포구에 정박의 닻을 내려놓고 휴식에 든 듯 들물 바람에 뒤척였고 먼바다 쪽에선 먹구름이 천천히 구겨진 얼굴로 내려서고 있었다. 갈매기들마저 집으로 돌아갔는지 쓸쓸한 등대에선 외로운 불빛이 서서히 눈을 뜨는 저물녘이

었다. 희미하게 깨어나는 기억의 끈을 붙잡고 절대 놓을 수 없는 화가 치밀어 오르는 듯 사내가 몸을 부르르, 떨다 주저앉았다. 멀리서 어설픈 척이 포구를 향해 깃발을 펼치며 험레벌떡 뛰어오고 있었다.

## 2

“딸랑딸랑”

출입문 위에 달아놓은 알림 종이 손뼉을 쳤다. 사내가 스팀다리미를 받침대에 내려놓고 다리던 와이셔츠 어깨를 잡아 털며 돌아왔다.

“어서 오세...”

말도 끝나기도 전에 가죽점퍼에 파마머리를 한 청년이 긴 머리카락을 파도처럼 출렁이며 이미 세탁소 안에 들어서 있었다.

“찾으러 왔는데요?”

뜬금없는 말에 사내가 말없이 웃으며 뒷머릴 쓸어내리는 등 뒤로 청년의 청바지가 아직 뜯어진 채 흠어져있다. 사실 급하다고 말은 들었지만 이렇게 일찍 찾으러 올 줄은 생각지 못했다는 듯 사내의 얼굴에 미안한 기색이 역력했다.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쓸어 올리며 주춤거리던 청년이 알겠다는 듯 거울 쪽으로 돌아서며 창밖을 봤다. 건너편 자전거 가게 앞에 세워둔 바이크를 확인하듯 쓰윽 훑어보더니 오른쪽 바지 뒷주머니를 뒤졌다. “~날 데리러 오거든~” 방한바지 속에 핸드폰이 왜 데리러 오지 않느냐는 듯 귀 터져라 울렸다. 사내가 돌아서서 아직이라는 뜻인 양 오른손을 들어 좌우로 흔들어 보이자 청년은

알았다는 듯, 아니, 서둘러달라는 듯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돌아서 나갔다. 길 건너 바이크 옆에 남자아이가 서서 손을 흔들었다.

검지 손가락에 낀 가죽 골무가 뜯어진 바짓단을 헤집었다. 통을 줄이고 접어 꿰매는 가봉 바늘이 골무 홈에 밀려 힘겹게 들어갈 때마다 실을 팽팽하게 잡아당겨 꼬인 실을 풀었다. 청년은 아이를 데리고 어디로 갔을까. 아이가 가고파 했던 곳은 어디일까. 접힌 바짓단을 따라듬성듬성 꿰맨 바늘자국이 청년이 떠나간 길처럼 흐릿했다. 머리 위 형광 불빛이 침침하다는 듯 사내가 탁상용 전구를 당겨 바늘 길을 환히 비췄다.

가봉 마친 자리를 당겨 주름을 풀어주고 스팀다리미가 칙칙, 주름을 다리자 꿰맬 자리가 선명해졌다. 등 받침 없는 의자를 당겨 앉아 노루 발을 내려 바늘 위치를 잡았다. 탁탁탁, 후렴구 같은 바늘이 일정하게 걸어가기 시작하자 신호등을 따라 걸어간 듯 사람들이 지나간 자리처럼 발자국이 남았다. 발자국을 따라가면 청년을 만날 수 있을 것 같았다.

쪼그려 앉아 하루의 고달픈 삶을 꿰매는 바늘이 너무 멀리 온 것처럼 닳아 반짝였다. 앞만 보고 달려온 바늘 끝이 사내가 살아온 삶처럼 빛날 때 난로 위에서 조용히 입을 다물었던 양은주전자 주둥이가 수증기를 뿜으며 씩씩거렸다. 닳도록 걸어진 길이 화난 듯 자꾸만 수증기를 뿜어 올렸다. 고요의 무게가 재봉틀 돌아가는 소리마저 짓누를 때 집중하던 사내를 양은 주전자 뚜껑이 들쭉거리며 불러 세웠다. 잃

어버린 휴식처럼 사내의 무릎에서 우둑, 관절 풀리는 소리가 났다.

쉴 틈도 없이 연탄집게 위에 걸쳐있는 목장갑을 끼고 주전자 손잡이를 감싸 쥐며 조심스레 양은 주전자를 내려놓았다. 불룩 튀어나와 이곳저곳 찌그러진 양은 주전자 뚜껑을 열고 페트병에 담아놓은 수도물을 부었다. 화난 듯 씩씩거리던 양은 주전자가 천천히 조용해졌다. 그제야 사내는 목장갑을 벗고 창가로 다가섰다.

창밖엔 햇살이 골목을 돌아 맞은편 과일가게 간판을 담고 있었다. 사내가 청바지를 공중에 툭툭, 털고 비닐 카바를 입혀 천장 높이 옷걸이에 걸었다. 이미 걸린 옷들은 기다림이 지루한 듯 움직임도 없었다.

제 위치를 차지한 옷들을 비집고 사내가 구석으로 걸어 들어갔다. “딸깍”안쪽이 보이지 않는 불투명 유리가 반쯤 끼워진 알루미늄 샷시문을 열고 허리를 굽혀 들어가 문을 닫았다. 잠시 후 “쌐아, 꾸르륵” 물과 함께 화장실 물소리가 요란하게 건물을 빠져나갔다.

아직 해 질 녘도 아닌데 골목길은 어두워져 일찍 켜 불빛들이 골목길을 환히 밝히고 있었다. 채 마르지 않은 세탁물들을 만져보다 걱정하며 손가락을 비빌 때 TV에서 데모하는 대학생들을 향해 쏘아대는 최루탄 재색 연기가 화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사내가 뒤로 물러서다 꿈지락거리던 손가락이 “앗” 뜨거움에 놀라 소스라쳤다.

사내가 왼손을 쥔 채 출입문을 열고 과일가게로 절뚝거리며 뛰어 들어갔다. 사람들의 그림자가 불빛을 잡아당기며 각자 집 쪽으로 바빠 지나갈 때 빠라바라바, 치킨가게 배달 오토바이가 그 앞을 단박에

지나쳐갔다. 손끝의 상처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 뒤를 힐끔 돌아다본 골목에는 어느새 가등 빛이 깃을 세우고 있었다.

### 3

조각구름에 가렸다 나타나는 달빛이 수면에 사내의 그림자를 당겼다 놓을 때마다 하얀 입김이 갈매기 울음을 밀치며 허공에 흩어지다 사라졌다. 들물 바람이 비린내를 물고 들이치자 갑판을 오르는 사내의 발걸음이 빨라졌다. 내딛는 발자국마다 철썩 거리는 장화가 선착장의 고요를 깨우는 동안 갑판에 쌓인 그물코에 비린내가 살아 푸득거리고 있었다. 갈매기들이 서두르라는 듯 자꾸만 갑판 위를 맴돌았다.

철썩, 거리며 좌현과 우현을 두드리는 파도의 손바닥이 섬섬한 배웅을 준비하듯 지칠 줄 몰랐다. 들물에 흔들릴 때마다 느슨해진 хот줄이 팽팽해졌다 다시 느슨해지곤 했다. 분주하게 절뚝거리며 출항을 준비하던 사내가 오라말뚝에 묶인 хот줄을 풀어두고 기관실로 향했다.

팡팡 한 냉기를 헤집고 허릴 굵혀 문을 열자 혹, 경유 냄새가 얼굴을 덮쳤다. 잔뜩 찌푸린 얼굴로 두리번거리다 뒤집혀 말린 목장갑을 펴 끼고 차갑게 식은 엔진 스위치를 당겼다. 푸득, 푸드득 찬 기온 탓인지 엔진은 단번에 걸리지 않았다. 사내가 장갑을 벗고 두 손을 비비다 손이 시린 듯 둥글게 쥔 손을 입으로 가져다가 입김을 불어넣었다. 시동이 걸리다만 탓인지 사내가 마른 장갑으로 점화 플러그 주위로

흘러나온 기름을 닦아내고 손가락을 비벼 다시 스위치를 천천히 당겼다. 푸푸푸둥, 시동이 걸리자 뿜어져 나오는 검은 연기가 포구의 하늘에 둥근 도너츠 모양을 만들며 퍼져 날아갔다.

선착장 냉동 창고 지붕에 앉았던 갈매기 서너 마리가 놀란 듯 울음조각을 흘리며 방파제 쪽으로 날아갔다. 울산호의 굳은 어깨 근육을 풀어주려는 듯 힘찬 엔진 소리가 갈매기 날아간 어둠 하늘을 꼭, 눌렀다 풀어주었다. 어두워진 하늘에 밀려든 구름조각들이 바다 쪽으로 고개를 들어 길을 열어주었다. 잠들지 않은 공판장 불빛이 배웅 같았다. 포구를 천천히 빠져나가는 뱃머리가 화살표를 그으며 바닷길을 열었다.

아직 열리지 않은 바다 저쪽에 아직 돌아오지 않는 아버지가 있을까. 저 바다 끝을 붙잡고 천천히 집어가면 아버지를 만날 수 있을까. 등대 불빛 같은 내일이 있을까. 엔진에서 뿜어져 나온 검은 연기가 공중에 두리번거리다 멀리 사라졌다. 사내는 식사 전 할머니의 말을 잊을 수 없다는 듯 입에 문 담배꽂초를 잘근잘근 깨물어 씹고 있었다. 아직 어둠 직전이었다.

#### 4

세탁소로 돌아왔을 때 TV에선 고향 소식을 전하는 리포터의 설명이 이어지고 있었다. 사내가 봉대를 감은 손가락을 매만지며 바라보는 바깥엔 푸른 시절을 잃어버린 가랑잎들이 길 위를 몰려다니다 게

단 구석에 모여 떨고 있었다. 바람은 돌개바람을 돌리며 채찍을 휘두르고 있었고 골목길을 돌아 길 밖으로 돌아 나가려다 길을 찾지 못한 검정 비닐봉지 하나가 맨홀 구멍에 처박혀 있었다.

나는 누구일까. 내 생의 출처는 어디에 있을까. 사내가 덜컥거리는 창문을 밀어 잠그며 지끈거리는 기억의 자물통을 여는 듯 두 눈을 감았다.

“길을 잃고 울고 있는 너를 시장통 구석에서 데리고 왔지. 잘 건지도 못해 아무도 거들떠보지도 않더구나. 마침 나도 혼자 세탁소를 하던 때라 많이 외로웠단다. 그래서 내가 널 데리고 왔고, 그 후로 너희 부모를 찾으려 수소문도 해봤지만 아무도 아는 사람이 나타나질 않더구나.” 언젠가 자신을 키워주고 세탁기술까지 가르쳐 준 고인이 된 그분을 떠올렸을까 어느새 사내의 눈가에 축축한 눈물이 젖어 있었다. 분명 세상 어딘가에 나를 기억할 사람이 있을 거란 생각에 다다랐을 때

“딸랑” 기억의 매듭을 놓친 사내가 세탁소 출입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다. 바깥이 추운 듯 굵은 어깨를 움츠리며 왼 무릎을 손으로 짚고 오른쪽 무릎을 굽혀 계단을 내려설 때 어깨에 걸린 어둠마저 출렁였다. 중심이 흔들리는 어깨를 흐린 가등빛이 부축하는 듯 길을 트자 계단 아래 웅크렸던 길고양이가 골목 쪽으로 달아났다.

“강형, 강혁영 있어요?”

봉대를 감은 손을 앞세워 조심스레 과일가게 손잡이를 밀며 들어섰다. 열린 유리문이 닫히는 소리에 박스를 정리하던 강씨가 전기스토브 옆으로 붉은 레자가 뜯어진 낡은 의자를 내밀었다. 털썩, 무너지듯



앉는 사내 곁으로 의자를 가져와 강씨가 웃으며 앉았다. 턱수염이 따라 웃는 듯 구레나룻이 썰룩거렸다. 까만 붓 같은 강씨의 턱수염이 아무 걱정도 없다는 듯 깎지 않아 덥수룩했다. 다리를 펴고 기지개를 켜는 강씨가 돌려놓은 전기스토브가 뜨거운지 사내가 다리를 벌리며 손을 비볐다.

“손은 괜찮은 거, 근디 어떤 일이여?”

커피포트에 물을 붓고 종이컵을 꺼내 나란히 세우며 강씨가 사내의 얼굴을 힐끗 쳐다보았다. 일회용 커피믹스를 손으로 찢어 컵에 쏟을 때 커피포트가 끓기 시작했다. 종이컵에 담긴 설탕과 프림 속에 커피 알갱이가 사막에 붉은여우 같았다. 자신을 보이지 않은 채 몸을 숨긴 커피 알갱이들처럼 사내가 말없이 몸을 움츠렸다. 창밖엔 아무 걱정하지 말라는 듯 하나, 둘 날리던 눈발이 잠시 그쳤다. 끓는 물을 종이컵에 부어 저으며 강씨가 입을 열었다.

“눈이 꽤 올 모양인데 무슨 일 있는 거여?”

“아니, 괜히 돌아가신 아버지 생각이 나서”

“눈도 오고 날씨도 꾸물꾸물형게 심란한 모양이구먼, 허긴 아버지라고 생각했승께”

진열대 아래에서 꼬리를 흔드는 강아지를 발로 밀어내며 강씨가 종이컵을 내밀었다. 창밖의 눈발처럼 풀어져 날리는 커피향내가 가게 안 과일향보다 짙었다. 천정으로 올라가 뜨거운 수증기에 글썽해지는 알전구 불빛이 더욱 차갑게 느껴졌다. 투명한 알전구처럼 알몸인 사내를 노려보듯 알전구 속 필라멘트가 눈부시게 빛을 쏘아댔다. 자

신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계보를 꺼내 비춰보고 싶다는 듯 일어서서  
알전구 불빛 아래 서서 뜨거운 커피를 마셔 보았다. 밖은 불빛을 덮고  
진열대에 몸을 내민 과일들이 날아든 눈송이를 맞으면서도 처연하게  
앉아있었다. 춥고 시린 날들은 어김없이 다음 계절을 불러 세우고 다  
시 떠날 것이다. 세탁소 아버지처럼 과일가게에 앉아 세탁소를 바라  
보던 사내가 서둘러 종이컵을 의자 밑에 내려놓으며 일어섰다.

“왜, 벌써 갈려는 거?”

말없이 나가는 사내의 저쪽에 누군가 세탁소 문을 열고 있었다. 길  
밖에 서성이던 청년이 세탁소에 들어서는 사이 사내가 어느새 뒤따라  
들어섰다. “딸랑, 딸랑” 출입문 위 알림종이 몸을 흔들며 기지개를 켜  
다. 뒤따라온 초겨울 바람이 한순간 세탁소 안을 뒤흔들었다. 출입문  
옆 달력이 펄럭이자 이내 비닐 카바를 입은 옷들이 추운 듯 부스스, 서  
로 몸을 부벼댔다. 사내의 흔들리는 걸음이 서둘러 비닐 카바를 씌운  
옷들을 하나, 둘 뒤질 때마다 주인을 찾는 비닐 카바 속의 옷들이 힐끗  
힐끗 얼굴을 내밀었다.

옷걸이와 함께 넘겨진 옷을 청년이 쓱, 훑어보곤 수선비를 건넸다.  
비닐 카바를 비집고 흑, 석유 냄새가 코를 찔렀다. 경중경중 돌아서는  
등 뒤로 안녕히 가세요. 사내가 안부를 전했다. 어쩌면 수선이란 께매  
고 세탁하고 다림질하는 과정보다 수공임을 받는 순간이 수선일 거란  
생각을 했다. 삶은 살면서 알 수 없어 바뀌지듯 수선되는 것. 사내의  
알 수 없는 표정이 벽 거울에 얼핏 스치다 사라졌다. 자정이 다가온 바  
깁엔 눈이 쌓여 환했다.

어군탐지기도 켜지 않은 채 배가 멈춘 곳은 아버지가 지형물만 보고 이따금 가르쳐 준 어장이었다. 섬 쪽으로 갈라진 여러 갯골이 합류하는 곳이라고 했다. 속도를 줄이며 익숙한 듯 사방을 둘러보는 먼 시선 속으로 바다를 포옹하듯 낮은 산줄기가 엮여 있었다. 그 끄트머리 주상절리를 이룬 암벽들이 누군가 기다리듯 묵묵히 서있었다. 아버지는 늘 그곳을 중심으로 보라고 했었다. 늘 말은 없었지만 어깨에 얹은 거친 손바닥에선 따듯한 밀어처럼 체온이 흘렀었다. 서둘러 돌아보면 숨비 소리처럼 갈매기 울음이 살고 싶다, 살아야 한다,며 어스름 낀 수면을 깨우고 있었다.

끝내 속내를 보이지 않는 바다. 어부 아닌 어부가 되어 계보를 잇는 사내가 그물을 풀어 바닷속에 넣는 손길이 분주해졌다. 점으로 수면에 떠 흔들리는 부표들을 건져 올릴 때마다 윤슬이 아버지가 가르쳐 준 어장에 핀 꽃송이 같았다. 파도는 속내를 보이지 않는 바다의 지느러미가 되어 밀려왔다 가며 사내의 기우는 걸음을 부축해 주었다. 만월이 되지 못한 달은 남서쪽 먼바다를 응시하고 있었다.

노란 깃발을 묶은 부표를 한쪽으로 정리하고 담배에 불을 붙였다. 깊게 빨아들이자 담뱃불이 벌겋게 달아올라 입술 쪽으로 다가섰다. 심호흡으로 연기를 뱉어낼 때 낮아진 먹구름이 파도를 덮을 듯 내려서며 진눈깨비를 눈송이로 바꿔 놓고 있었다. 자식을 잃은 어미의 심정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아들과 며느리이자 마누라를 잃어버리고도 한 번도 찾아보지 않은 할머니와 아버지가 원

망스리울 뿐이었다. 하물며 자신의 슬픔은 아랑곳하지 않고 지 아빌 잡아먹었다니.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분노를 삭이는 길은 아버지를 데려간 바다와 대항하는 것이라 생각했다. 바닷속 아버지를 불러내 내 생은 왜 그런 것이냐고 물어보고 싶을 뿐이었다.

냉정하게 휘날리는 눈송이들이 어지럽게 바람을 끌어들여 흩날리고 있었다. 내 몸에 상처가 버거웠던 거겠지. 그래도 그토록 외면하던 아버지가 나를 받아준 것은 꿇긴 핏줄 때문이었을 테지. 어머니를 쫓아낸 그 시름에 지고 싶지 않았던 거겠지. 죽을 때까지 언제나 불편했을 테니까. 체념한 듯 시린 손을 붙여 켜 라디오에선 파랑이 예상보다 빨리 접근하고 있다는 소식이었다.

## 6

“계십니까, 계세요?”

늦은 밤 누군가 세탁소 출입문을 흔들며 다급하게 부르고 있었다. 칼바람마저 창문을 흔들며 어서, 일어나란 듯 호들갑을 떨었다. 벽에 걸린 돛바를 걸쳐 입으며 바라본 창밖은 내린 함박눈으로 환해져 있었다.

“누, 누구세요?”

슬리퍼를 신고 출입문을 열었을 때 문밖엔 두 명의 남자와 한 명의 여자가 서 있었다.

“아, 경찰입니다. 혹시 박민철 씨 되십니까?”

“네에... 그런데요, 왜 그러죠?”

그때, 키가 작고 체구가 작은 여자분이 앞으로 나서며 급히 말을 이어갔다. 자신은 요양원에 근무하는데 서수연이란 분이 위독하다고, 그 분이 급히 찾아달라는 분이 있어서 이렇게 실례인 줄 알면서 찾아왔다는 것이었다. 그 이름은 박민철이고 소아마비를 앓고 있고 목뒤에 점이 세 개가 일렬로 박혀 있다고. 아, 그리고 나이는 범띠니까 서른셋 일거라고.

요양원을 찾아가는 차 안에서 사내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자신의 신원을 손금 보듯 들여다보는 요양원 직원 앞에서 고개를 끄덕이다 끌려가듯 실은 몸은 구석에 몰린 고양이 앞 쥐처럼 불안할 뿐이었다. 출생의 끈조차 잡아보지 못하고 무관심인 듯 살아온 지금까지 자신의 존재는 그저 살아 있으니 살아야 할 짐승 같은 존재로 여겼으니까.

어머니 서수연이 이상 증세를 보이기 시작한 것은 세 달 전부터였다고 했다. 유독 증세가 심해진 것은 한 달 전부터였다고 했다. 침대 밑에 향시 가방을 싸놓고 증세를 보이기 시작하면 아들을 찾아간다고 하며 출을 시도한 게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 했다. 몸빼 안주머니에서 꼬깃꼬깃 찢은 손수건을 풀어 서너 살 된 사내아이의 사진을 보여주며 아들이 지금 아파서 꼭 가야 한다고.

병실에 들어서니 담당 의사는 체력마저 바닥나 그나마 정신력으로 희미한 기억을 붙들고 버티는 중이라고 했다. 침대에 자신을 낳은 어머니라고 보기엔 너무 초라한 반백의 할머니가 누워 올려다보고 있었다. 풀려버린 동공엔 그렁그렁 한 눈물이 금방이라도 쏟아질 듯 일렁

이고 간신히 세운 손가락이 사내의 손을 부르다 그만 툭, 침대보에 떨어졌다. 하고픈 말도, 묻고픈 말도 없이 흰 천이 몸을 덮었다. 유품이라곤 낡은 옷 몇 벌과 약간의 돈이 남은 통장, 도장, 그리고 주민증과 부안군 위도, 박민석 이란 쪽지 하나가 전부였다.

## 7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흘날리던 눈발은 점차 굵은 눈발이 되어 시야를 가려오고 파도는 금방이라도 짓밟을 듯 발굽을 세워 달려들고 있었다. 아버지와 나선 출어가 마지막이 된 그날 밤 같았다. 그날은 눈송이 대신 소나기가 바닷길을 지우고 있었지.

온몸에 돋은 힘줄들이 신경을 곤두세우며 지도에도 없는 아버지의 좌표마저 잃을까 불안함에 꿈틀거릴 때, 말馬고삐를 당기듯 기다리던 시간을 당겨 일찍 그물을 당기기 시작했다. 어창 옆으로 올라오는 그물을 돌돌 말아 쌓는 동안 눈발은 더욱 거세졌고 파도는 뱃머리를 후려치며 부서져 갑판 위 집어등보다 더 높게 튀어 올랐다. 성난 파도는 백마처럼 흰 이빨을 드러낸 채 발굽을 흔들며 짓밟을 듯 밀려왔다.

뱃머리가 방향을 잃고 고꾸라질 듯 기울어지다 일어설 때마다, 눈발을 모는 바람 속에서 말뚝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두 귀를 덮은 털모자 덮개에 가려 말은 알아들을 수 없었으나 분명 누군가 귓가를 속살거리다 달아나는 듯했다. 하얗게 풀어지는 입김이 올라와 자꾸만 속눈썹에 달라붙었고 그물은 쉽사리 올라오지 않았다. 아버지가 서둘

러 엔진 가속레버를 당기던 그날 밤처럼.

사막의 모래 폭풍에 휘말린 붉은여우처럼 자세를 낮춘 채 부서져 쏟아지는 포말에 대항하는 생과 사의 경계에서, 그물을 당길 때마다 금방이라도 엎어질 듯 기우는 좌현이 위태로웠다. 끼이익, 거리며 그물을 당기는 도르래가 안간힘으로 버티다 끝내 숨통을 놓칠 순간, 올라온 그물에 흰 배를 드러낸 채 펄떡거리는 아귀, 아귀들.

그때, 회오리바람이 선체를 휘감아 밀쳐내자 제자릴 땀똥던 고물의 프로펠러가 그물을 휘감았다. 앞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제자리에서 터질 듯 달아오른 엔진의 가속레버를 놓지 않고 당기는 사내의 팔뚝에 시퍼런 힘줄이 튀어 올랐다. 아버지의 거친 숨소리 같았다.

저려오는 손가락에 물린 신경줄의 떨림이 그날 밤 그물에 걸린 아버지의 발버둥으로 되살아나고 있었다. 아버지의 거친 비명에 눌러 주춤거릴 때 엔진을 끄라는 외침 속으로 엉겁결에 절뚝이며 달려가 누른 스위치는 도르래의 작동 스위치였지. 당겨진 밧줄이 순식간에 풀리며 밧줄은 아버지의 발목을 감은 그물과 함께 바닷속으로 사라졌지. 아버지의 비명소리와 함께.

그물에 포획된 아귀들의 몸부림이 프로펠러의 먹살을 잡고 사내의 목을 조여 오고 있었다. 그때 아버지의 거친 손바닥 같은 칼바람이 사내의 따귀를 후려쳤다. 잘라야 한다, 버려야 나갈 수 있다는 아버지의 외침 소리가 들렸다. 아, 그렇구나. 가속레버를 목도리로 묶어두고 선장실을 뛰쳐나와 장대에 묶인 낚을 쥐었다. 단번에 잘라야 한다. 기우는 좌현을 붙잡고 저릿한 통증처럼 밀려오는 파도의 급소를 찾아 장

대에 묶은 낫으로 그물을 당기던 밧줄을 잘랐다.

치솟는 파도의 높이에서 아버지의 찢어지는 절규처럼 툭, 잘려나간 그물을 헤쳐 나오는 아귀들이 아귀, 아귀 날개를 퍼덕이며 서서히 가라앉을 때 잘려나간 그물은 상처가 아니었다. 절뚝이는 걸음이 가속 레버를 푼 후에야 안도의 한숨보다 먼저 절망의 깊은 비명이 가슴속에 요동치고 있었다. 주저앉은 선장실에 들이치는 눈송이들. 칼바람은 잦아들었으나 함박눈이 된 바다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었다. 속도는 온전히 풀리지 않았고 등짝을 흐르는 땀방울은 식지 않아 사내는 짧은 무릎을 당기며 어금니를 또 깨물었다.

잃어버린 좌표를 찾아 돌아보다 시선이 멈춘 곳. 아버지가 오른쪽 어깨를 짚고 잘려나간 중지를 감춘 채 가리키던 쪽에 번뜩이는 불빛이 있었다. 눈송이와 눈송이가 겹쳐다 풀어지는 순간마다 손짓하는 등대불빛. 닳아 짧아졌지만 수선 옷의 급소를 찾아 반짝이던 재봉틀 바늘 같았다. 파도의 먹살을 잡고 흔드는 불빛은 아버지의 함성이었다.

## 8

“왔나, 몸은 괜찮고. 죽을 뻔했담서?”

선술집 문을 열고 들어서자 여수택이 말을 걸었지만 사내는 말이 없었다. 이미 예감했다는 듯 들고 온 쟁반에 담긴 밑반찬을 내려놓으며 어떤 말도 위로가 될 수 없음을 안 것일까. 양은 주전자를 흔들어 막걸리를 따르는 여수택의 손길이 조심스러웠다. 안주도 없이 단숨에



들이켜자 주전자를 들어 한잔 더 따라주고 돌아설 때 탁자에 놓인 젓가락이 지들끼리 몸 부딪치며 차그렁, 바닥에 나뒹굴었다. 할머니가 밥상에 던지던 젓가락처럼.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 사내가 허릴 굽혀 젓가락을 집어 올려 쓱, 소매에 닦았다. 창문이 갯바람에 덜컹거리자 혈꽃, 쳐다보다 사내가 주전자를 집어 들었다. 따르는 막걸리가 부서지던 파도의 포말 같아 선뜻 잔을 들지 못했다. 뽕양개 먼지 낀 창문만 바라보다 젓가락을 집어 걸절이를 한 입 넣어 씹는 동안 술잔을 휘돌던 막걸리가 잠잠해졌다. 말짱게 가라앉은 막걸리처럼 심정이 가라앉았을 때 동살이 유리창을 헤집고 들어와 다독이듯 등짝을 두드렸다. 그때

“민철이. 할미 땀시 마이 서운한가?”

동네 촌장 어르신이 창가에서 나지막이 불렀다.

“느그 아버지가 수연을 마이 좋아했제. 이웃동네라 그래가 동거도 했고 마, 그래 느를 낳은 기라. 근데 느가 소아마비인기라. 아버지는 펄쩍 뛰었제. 수연이는 기르자고, 기르겠다고 하는데... 느그 아버지가 느그 엄니를 쫓아내 뿌린 기라. 할매는 그래도 종손인데 찾아야 한다고 얼마나 발품을 팔았는지 아나. 근데도 못 찾은 기라. 그 후론 모두들 아무 소식도 듣지 못했제. 낭중에 들은 얘기지만 느그 엄니가 시장골목서 생선 좌판을 하는 걸 누군가 봤다는 소문이 있었느기라. 그래가 느그 할매가 시장이란 시장은 다 찾아댕기며 찾고 그란 거 아니가. 그러다 지쳐 포기할 즈음, 어느 날 느가 나타난 기라. 느가 나타나기 전까지 짹짹하던 느그 아버지도 한 이십 년쯤 지나니께네 마이

약해지더라고만... 술만 마시면 보고 싶다고도 하고, 느그 엄니도 찾고 싶다고도 하고... 느가 왔을 때 내색은 안 했어도 느그 아버지가 얼마나 좋아했는지 아나... 아파, 내일이 기일이제?”

따른 막걸리가 가라앉아 표면이 말짱게 된 잔을 바라보던 사내가 젓가락으로 휘, 돌리다 홀쩍, 들이켰다. 주전자가 물구나무를 서고서야 일어서 어르신께 잔을 따르고 꾸벅, 인사를 하곤 말없이 걸어 나갔다.

술이 덜 깬 얼굴로 세수를 마친 물을 수채구멍 앞에 쏟았다. 미명의 바다는 아직 채 어둠이 걷히지 않아 태고의 비밀을 숨기고 있는 듯했다. 파도소리와 바람소리만 들려오는 바다 저쪽이 늘 궁금했다. 저 어둠을 열고 들어서면 아버지와 어머니를 만날 수 있을 것 같았다. 어둠을 천천히 짚어가면 아버지의 넓은 어깨와 어머니의 따듯한 눈길이 있을 것만 같았다.

서둘러 수건으로 얼굴을 닦고 모서리가 떨어져 나간 상위에 조기를 올리고 고사리를 올리고 사과를 올렸다. 종지에 쌀을 담아 향을 꽂고 불을 붙이는데 손끝이 떨렸다.

향 끝이 불꽃을 한 모금 머금었다가 쭉, 손을 흔들자 꺼지며 기억의 끈처럼 흰 연기를 뽑아 올렸다. 피어오른 향내에서 아버지 냄새가 났다. 뒤늦게 알아차린 비린내였다.

새벽안개가 피어오르기 시작한 바다는 몽환적이었다. 마치 밀가루를 뿌려놓은 듯 바다는 포구와 경계가 불확실했다.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삶처럼. 지방을 태우고 바다가 내려다보이는 장독 옆에 나란히 앉았다.

“할머니. 그만 들어가세요. 바람이 차요”

“.....지랄허네. 지 애빌 잡아먹은 것이”

할머니의 얼굴엔 분노와 허망함이 교차했을까. 녀를 잃고 지그시 눈을 감고 있었다. 무심한 표정 속에 통증처럼 그리움이 옥신거리는 듯 검버섯 핀 목주름에 힘줄이 가늘게 떨렸다. 멀리 바다 쪽에서 안개를 헤치며 햇살이 다가오고 바람은 다시 파도를 몰고 있었다. 사내의 절뚝거리는 발자국들은 은비늘로 돌아나고 짧은 무릎은 지느러미로 일어설 것이다. 사내의 거칠어진 손바닥이 할머니의 주름진 작은 손 등에 몸에 뻐 비린내를 풀어놓으며 꼬옥, 포개지고 있었다.

---

\* 바다의 신 神

\*\* 파랑주의보

---

## 아버지의 등대

제 11회 등대문학상 우수상 + 소설  
이충호

오늘은 투망이 늦었던 관계로 양망도 늦었다. 하지만 그물을 따라 올라온 물고기는 평일보다 많았다. 도다리 한 통 반과 그 밖에 우럭 다섯 마리, 문어 한 마리를 건졌다. 며칠 전부터 그물에 걸려오던 도다리가 서른 마리나 올라왔다. 겨울철 동안 많이 올라왔던 대게의 계절이 끝난 것은 아니지만, 이제부터는 도다리의 계절이다. 물에선 꽃이 피면 봄이란 것을 알 수 있지만 동해바다에선 도다리가 잡히면 봄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며칠 사이에 도다리가 많이 잡히는 것은 봄이 왔다는 증거다. 도다리가 돌아온 봄엔 출어하는 어부들의 얼굴에 웃음기가 넘친다.

오늘은 함께 일하던 김 씨가 쉬는 날이라서 나 혼자 바다로 나왔다. 보통날에는 아침 6시 반이면 선적항인 주전항에서 바다로 나와서 오후 5시 무렵이면 귀항하지만, 오늘은 김 씨가 쉬게 되어 출어도 늦었

고 돌아가는 시간도 한 시간이나 늦었다. 비록 길이가 7미터밖에 되지 않는 1.9톤 소형 연안자망어선이지만 그물을 내리고 올리는 일이 그리 만만치만은 않다.

지난겨울엔 대게와 갑오징어를 주로 잡았다. 대게나 오징어를 잡을 때처럼 고정자망 방식은 같지만, 대게나 오징어는 그물을 내리는 깊이를 중층자망으로 하고 도다리는 표층자망 방식을 택한다.

오늘은 일을 보조하는 김 씨가 없는 데다 물살마저 빨라서 투망에 애를 먹었다. 먼저 대나무 장대 끝에 달린 스티로폼 부표를 던져 물 위에 띄운 뒤 닻을 내리고 배를 전진시키면서 그물을 물속에 내려야 하는데, 중간에 그물이 엉켜서 다시 시작해야 했다. 가라앉지 않도록 일정한 간격으로 뜬이 달린 뜬줄과 아래 언저리에 밧돌이 달린 밧줄이 수직 방향으로 전개되게 해야 하는데 중간에서 그물이 꼬여버린 것이었다. 그물을 치는 과정이 가장 신경 써야 하는 일인데 오늘은 어떻게 하다가 문제가 생겼다.

고기를 잡는 것이나 세상사의 이치가 다르지 않다. 그물을 투망하는 것은 자연의 이치에 따르는 것이다. 그물은 밧줄에 달린 돌의 침강력과 뜬줄에 달린 뜬의 부력으로 수중에서 수직으로 펼쳐지게 된다. 내려갈 것은 내려가고 올라올 것은 올라와야 하는 것이다. 두 가지 힘이 존재함으로써 그물은 제 역할을 하게 된다.

그물을 잘 깔아야 잘 잡힌다. 그물을 고기가 지나다니는 길목에 잘 설치하는 것이 관건이다. 그것이 그날 하루의 어획을 결정한다. 그물을 잘못 치면 그날의 일은 망치게 된다.

중형 어선 이상엔 어군탐지기 소나가 있고 그물을 걸어 올릴 때 양망을 사용하기도 하지만 소형 어선은 사이드 드럼을 이용해서 손으로 그물을 올려야 한다. 먼저 부표를 들어 올리고 부표줄을 당겨 올려서 그물을 올리는데 보통 뜰줄과 발줄을 몽쳐서 들어 올린다.

그물이 갑판에 올라오는 순간은 기대와 아쉬움이 교차하는 순간이다. 그물에 걸린 물고기가 많으면 많은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아쉬움은 있기 마련이다. 투망을 하고 양망을 하기까지의 시간은 기다림의 시간이고 소망의 시간이기도 하지만 담담한 마음을 갖지 않으면 안 된다. 비록 빈 그물이 올라오더라도 나의 실수이거나 그날의 운이라고 받아들여야 한다.

어부에겐 손끝의 느낌이 있다. 오늘은 양망 할 그물을 잡은 느낌이 달았다. 먼 거리에 펼쳐진 그물이지만 손끝에 와닿는 감촉이 웬지 무척하게 느껴졌다. 마침내 사이드 드럼을 타고 그물의 첫 자락이 올라오고 그다음 자락의 그물코에서부터 파닥거리는 물고기들이 보였다. 걸려 올라오는 수가 예상보다 많았다. 그물을 펼쳐 코에 박힌 물고기를 한 마리씩 떼어내어 통에 담고 그물을 정리하여 제 자리에 돌려놓으면 일과는 끝난다. 몸통이 오동통한 것들이 꼬리를 파닥거리며 튀어 오르기도 한다. 눈을 말짱게 뜨고 나를 올려다보는 놈들도 있다. 모양은 비슷하지만 한 마리 한 마리 손에 와닿는 느낌은 다르다. 손으로 잡으면 여느 생명체와 마찬가지로 살아있는 것의 싱싱함이 몽클하게 온몸에 전해져 온다. 역시 도다리의 계절을 실감 나게 한다. 통을 가득 채우고도 몇 마리가 남았다. 물 오른 도다리의 파닥거림에서 봄의 생

동감이 느껴진다.

어항으로 돌아가는 마음은 잡힌 물고기의 무게만큼이나 뿌듯하다. 오늘도 하루 바다에서 많은 것을 얻어 돌아가기 때문이다. 일을 끝내고 어항으로 돌아오는 어선들의 여기저기 보인다. 멀리 방파제가 보이고 그 뒤로 송림과 키 작은 건물들이 보일 때 마음은 평온해진다. 어느새 펄펄하고 열렬했던 시간이 지나고 칠순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었지만 이렇게 날마다 한결같은 마음으로 나갈 수 있는 일터가 있다는 것은 나에게 주어진 축복이라면 축복이다. 바다에 감사하는 마음들이 때가 많다.

외환위기가 닥치고 몇 개월 만에 다니던 회사에서 정리해고를 당한 것은 젊은 나에게 절망과 같았다. 갈 곳도 없고 오라는 곳도 없어서 실의에 빠져 있었다. 마흔둘이란 나이에 우울증까지 겹쳐 할 일 없이 거리를 배회하며 술이나 마시고 신세타령을 하고 있을 때였다. 거의 반폐인이 되다시피 한 나의 이런 모습을 안타깝게 지켜보던 아버지가 어느 날 나를 불렀다.

“이 못난 놈아, 이보다 수십 배나 더 어려운 시대를 살아온 사람들도 있는데 젊은 인간이 어찌 이 모양이냐?”

아버지는 굳은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눈빛도 굳어 있었다.

“바다로 나가 보아라. 바다만큼 희망적인 곳은 없다.”

아버지의 말엔 확신이 차 있었지만 나에겐 공허하게 들렸다.

“선원이 되라고요?”

아버지의 말을 다 듣지도 않고 나는 대들듯 말했다. 그때까지만 해도 내 머리엔 선원이 된다는 것은 난폭한 바다 어디론가 팔려가는 것 같은 생각이 가득 들어 있었기 때문이다.

공교롭게도 그때가 바로 동해바다에서 명태가 사라지기 시작할 무렵이었다. 동해바다에서 그 많던 명태 떼가 사라져 가자 정부와 수산업계는 당혹스러워했다. 명태잡이를 원양어업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아버지는, 국내 명태잡이 선원들 중에서도 원양어선 쪽으로 방향을 바꾸는 사람이 많겠지만, 북양 명태잡이 어선에 선원이 더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격이 소심하고 겁이 많은 데가 바다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었던 내가 바다에 뛰어든다는 것에 선뜻 마음이 내키지 않았다.

“아버님은 평생을 바다에서 보냈는데, 당신이라고 못할 게 뭐 있어요?”

말없이 지켜보던 아내가 어느 날 조심스럽게 말을 했다. 좀 서운한 감도 들었지만 아내의 말은 소심한 나를 책망하는 말로 들렸다. 그날 밤 나는 지그시 어금니를 깨물며 원양어선을 타기로 마음을 굳혔다.

선원모집 광고를 뒤져 부산으로 가서 두 회사에 지원서를 내었는데 명태잡이 원양어업을 주업으로 하는 신양교역에서 나를 뽑아 주었다. 그다음 날 바로 어업훈련소에 들어가 일주일 동안 교육을 받고 선원수첩을 받았다. 배치된 선박은 6천5백 톤급 전진호였다.

선상생활에서 필요한 속옷과 간단한 소지품을 챙겨 가족과 헤어지고 승선하던 날은 온종일 마음이 설렘과 두려움으로 두근거렸다. 몇



번이나 마음을 다져먹었지만 마치 유배지로 끌려가는 사람처럼 외로움과 두려움이 가슴을 무겁게 눌렀다. 밤이 되자 온도는 급강하했던 시간에도 몇 번씩 뱃머리를 넘어오는 높은 파도가 불안함을 더 가중시켰다. 부산에서 1,800마일이나 떨어진 러시아 오츠크해까지 가는 데만 6일 밤낮이 걸렸다. 북태평양의 거친 파도는 어장에 닿기도 전에 사람의 혼을 빼고 몸을 짓이겨놓았다.

그때가 11월 말이었다. 북태평양은 이미 한파가 몰아닥쳐 숨이 멎을 것 같았다. 방한 헬멧을 쓰고 얼굴을 감싸는 보호 장구를 둘러쳤는데도 머리가 얼어터지는 것 같은 고통을 느꼈다. 겨울 파도가 거칠기로 악명 높은 쿠릴열도 해역을 지나 오츠크 해로 들어가야 했다. 우여곡절 끝에 어장에 도착하여 어탐이 시작되었으나, 첫날부터 몰아치는 눈보라에 눈을 뜰 수 없었다.

북태평양 명태어선은 전대판을 장착한 그물을 수평방향으로 끌어서 명태를 잡는 트롤선이었다. 목줄과 전개판, 후릿줄, 끌줄이 서로 연결되어 있어 그 길이만 수 킬로나 되는 엄청난 그물은 보기만 해도 주눅이 들 정도였다. 그런데 그 그물이 뽁뽁 얼어붙어 거대한 얼음덩이가 되곤 했다. 아침나절 동안은 얼어붙은 그물을 해머로 두드려 깨고 기관실에 연결된 호스의 노즐로 스팀을 뿜어 녹여내어야 했다.

그물은 저녁에 내리고 아침에 양망한다. 낮 동안 소나로 고기떼의 흐름을 관찰하면서 수시로 쌍안경으로 새떼를 관찰하던 선장은 일몰 무렵에 조업 준비를 지시했다. 이미 주위가 어둑해졌다. 광도가 높은 여러 개의 집어등을 밝히고 투망을 시작했다. 거대한 그물이 바닷속

으로 끌려 들어갈 때는 긴장되는 순간이었다. 자칫 실수하면 그물에 끌려 들어가 버리기 때문이었다.

투망이 끝나면 선장이나 수석항해사는 어탐기를 관찰하며 밤새 그물을 끌고 다닌다. 투망 17시간 만인 다음날 아침 10시쯤 양망이 시작된다. 이미 갈매기 떼들이 양망되는 그물 위로 하얗게 날고 돌고래 떼들도 그물 주위를 맴돌며 먹잇감이 가까이 왔음을 알린다.

그물을 바치던 전개판이 갑판에 올려지고 원치가 거대한 그물을 갑판에 끌어올리면 그물 안엔 명태가 가득하다. 그물코를 터뜨리면 파닥거리는 수만 마리 명태들이 갑판에 쏟아진다. 곧이어 선원들이 숨가쁘게 어삼으로 한 곳으로 모으면 그것들은 컨베이어 벨트를 타고 갑판 아래 공장으로 내려간다. 거기서 연육가공품으로 만들어지거나 냉동되어 상자에 담긴다. 이러한 작업이 날마다 반복된다. 처음 며칠은 정신을 차릴 수 없을 정도로 힘들고 잠이 모자라 쓰러질 것만 같았는데 열흘을 넘어서자 어느 정도 익숙해졌다. 며칠마다 운반선이 오면 마치 고향 사람들이 온 것 같아서 웬지 모르게 가슴이 설렜다.

명태의 조업 시기는 9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였기 때문에 5월이 되면 해역을 남하하여 쿠릴열도인근에서 쾅치잡이로 전환했다. 그물도 봉수망으로 전환하고 조업은 보통 11월까지 계속되었다. 한 번 그 해역에 입어하면 선박에 고장이 없는 한 조업은 계속되었다. 나는 북양으로 간지 10개월 만인 이듬해 8월에 잠시 귀국했다가 다시 베링해로 갔다.

그 당시 한국어선 30여 척이 입어료를 내고 러시아 수역에서 조업

중이었다. 조업 중에 같은 회사 소속 어선을 만나는 일은 흔하게 있었다. 그러나 바로 그해 12월 근거리에서 조업하던 같은 회사 소속 진성호가 침몰했다. 건조한 지 35년이나 되어 노후화된 배의 선창 밑바닥에서 물이 차오르면서 침몰했다는 소식이 타전되었다. 그 전문엔 악천후인 경우 안전을 절대 우선으로 해서 조업하라는 지시도 담겨 있었다.

선원 60여 명이 실종되고 마지막까지 배를 지키기 위해서 구명복도 입지 않은 채 선박과 운명을 함께했다는 선장의 이야기를 듣고 많은 사람들은 안타까워했고,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잠아 울린 명태를 지키고 선원들을 한 사람이라도 더 구하기 위해서 끝까지 갑판에 남았던 선장의 직업의식과 책임감에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다.

울릉도 인근에서 잡은 고래를 선상으로 끌어올리던 중에 밧줄에 엉켜 바다에 떨어진 동료선원을 구하기 위해서 앞뒤도 돌아보지 않고 물에 뛰어들었다던 아버지다. 그날 밤 아버지의 얼굴이 수만리 바다를 달려와서 그 선장의 얼굴에 겹쳐졌다.

“바다가 아무리 거칠어도 선박은 그렇게 쉬 침몰하지 않는다. 최악의 상황에서도 여러 가지 자연의 원리가 작용해서 뜰 수 있게 만들어진 게 선박이다.”

배에 대한 아버지의 믿음은 확고했다. 인류가 만들어낸 최고의 발명품이 배라는 말을 나는 수도 없이 들으며 자랐다. 참혹한 사고가 발생한 그 상황에서도 아버지가 했던 그 말은 나에게 힘이 되어 주었다. 거의 반평생을 바다에서 터득한 그 말엔 아버지의 믿음이 깃들어 있

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 말은 나에게도 좌우명처럼 새겨진 믿음의 말이 되었다.

장생포의 포경선 선원이었던 아버지의 이름은 박등명(朴燈明)이다. 선상생활 절반 이상을 하급 선원으로 일했던 아버지의 이름은 할아버지가 지어준 것이라고 하셨다. 젊은 나이에 포경선 선원이 된 것도 할아버지 때문이었다고 했다.

울기둥대를 거쳐, 장생포에 와 있던 일본인 포경선주 오까다의 고래 해체장에서 일하던 중 해방이 되어서 일본인들이 떠나고 조선포경회사가 설립되는 과정을 옆에서 지켜보았다는 할아버지다. 할아버지의 노력으로 아버지는 한국전쟁이 끝나던 해에 포경선을 타게 되었다고 한다.

그렇게 시작된 포경선원 생활은 장생포 포경선의 마지막 선원으로 배에서 내렸다. 스물셋에 포경선에 승선하여 34년 동안 갑판원으로 묵묵히 일하시던 분이였다. 선장도 포수도 아닌 하급 갑판원이었다. 배운 것도 없고 기술도 없었지만 성실하였다는 것이 아버지가 자신에 대해서 한 말이였다.

동해바다엔 이렇게 할아버지에서 아버지, 그리고 나에게까지 3대의 인연이 씨줄처럼 이어져 있다. 아버지는 할아버지 때문에, 나는 아버지 때문에 선원이 된 것이였다. 어쩌면 주어진 운명의 씨줄 같은 것이 거기에 있었는지도 모르는 일이다.

갑판장을 대신하여 망루 코퍼에 올라 하루 종일 바다를 관찰하며

고래의 물뿔이를 기다리고, 고래가 잡히면 갑판으로 끌어올려 해체를 하거나 운반선에 실어 보내는 일을 반복했다고 한다. 일손이 부족할 땐 기관장을 도와 기관실을 살피는 일도 하고, 엔진과 전기장치, 동력 전달벨트, 윤활유 상태를 살피는 일은 물론이고, 보일러실과 선미의 물탱크와 연료탱크, 배수장치의 빌지판과 밸브 등을 점검하는 일도 하였다고 한다.

아버지는 동해바다에서 최후의 포경 선원이었다. 국제포경위원회가 영국 브라이튼에서 회의를 열어 1985년 이후부터는 상업포경 모라토리엄을 결정하면서 장생포의 고래잡이는 황혼을 맞았다. 모라토리엄은 위험한 활동을 일시적으로 중지한다는 뜻이었으나 사실상 영구 금지와 마찬가지였다. 많은 사람들이 실의에 빠지고 고래산업에 의존하던 사람들은 하나둘씩 장생포를 떠났다. 그러나 아버지는 2년을 더 포경선을 타고 배에서 내렸다. 조사포경의 명목으로 한 척의 포경선에 고래잡이를 허용했기 때문이다. 34년 5개월을 근무했고 그때 나이가 쉰일곱이었다. 아버지가 마지막 출어를 했다가 장생포항으로 돌아오면서 그해 세워진 울기등대 새 등탑에 불이 밝혀진 것을 보았다고 했다.

배에서 내린 날 아버지의 손에 들린 것은 몇 장의 사진과 ‘이노우에 항해일지’라는 두툼한 노트 한 권뿐이었다.

일부 사람들은 몇 년이 지나면 고래잡이가 재개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기대를 했지만 아버지는 그렇게 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아버지는 몇 년 동안 날만 새면 바닷가로 나갔다. 그리고

즐비하게 발이 묶여 있는 그 많은 포경선들을 망연히 바라보곤 했다. 몇 년이 지나고 자신의 반평생을 보낸 대양호가 고철로 처리되기 위해 끌려가는 것을 보고 눈물을 흘렸다. 그날 밤 집에 와서도 멍하니 밖을 내다보며 잠을 이루지 못했다.

“동해바다엔 참 고래가 많았다.”

이 말을 할 때는 서랍 깊숙한 곳에서 항해일지를 꺼내어 무릎 앞에 놓고 지그시 눈을 감고 지난 세월을 더듬곤 했다.

2월 말이 되면 동해에는 해안선을 따라 조밀한 수온 전선이 형성되는데, 울산에서 축산에 이르는 연안과 울릉도 주변 해역에는 냉수역이 각각 발달되고, 대화퇴 쪽으로 갈수록 수온 약층이 뚜렷하게 형성된다. 4월 이후 울릉도를 중심으로 대화퇴 남단에 걸쳐 대체로 한랭한 수온전선이 발달하고 대화퇴보다 연안해역에서 수온 약층이 조밀하게 형성된다.

플랑크톤이나 크릴새우가 주식인 고래는 그러한 먹이들이 많이 서식하는 한류에 주로 습생하게 되는데, 그러한 조건으로 본다면, 2월 말 경에 고래를 포획하기 가장 좋은 곳이 바로 울릉도 일대가 된다는 것이 아버지의 말이었다.

이것은 이노우에 선장의 항해일지에도 잘 기록되어 있다고 했다. 이 일지는 일본인 이노우에 선장이 쓴 것으로 그가 일본으로 돌아가면서 당시 고래 해체장의 주무를 맡고 있던 할아버지에게 “한국바다에서 쓴 항해일지는 한국인에게 넘겨주고 싶다.”는 말과 함께 주고 간 것이라고 했다. 할아버지는 몇 년이 지나 포경선을 타는 아버지에게

그것을 주었다는 것이다.

그 항해일지가 마치 바다에 생사를 걸어온 모든 포경선원들의 자취를 대변해 주기라도 하는 것처럼 아버지는 그것을 소중히 간직해 왔다. 가끔씩 지난날을 회상하면서 서랍 속에서 빛바랜 일지를 꺼내 뒤적이곤 했다.

흑한의 바다에서도 아버지의 그런 모습은 지워지지 않았다. 긴 세월 동안 바다에서 보냈던 아버지의 모습이 떠오를 때는 나 자신에게 반문하곤 했다. 아버지의 삶에 비하면 나는 무엇인가? 아버지가 바다에서 보낸 삼십몇 년의 세월에 비하면 내가 명태잡이 원양어선을 탔던 십여 년의 세월은 감히 말할만한 것이 되지 않았다. 바다에서 아버지의 장정은 우리나라의 해양산업의 발전에 기여한 이름 없는 헌신자의 길이었다면, 나는 그것을 바탕으로 발전한 수산업의 한 영역에서 혜택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밖에 없었다. 조업 중인 선박이 거대한 그물을 끌며 밤바다를 훑고 있을 때 나는 갑판에 서서 어둠 속으로 그 바다를 지켜보곤 했다. 아내와 아이들의 얼굴이 떠오르고 아버지와 어머니의 모습이 보였다. 그 흑한의 바다에서도 나를 건디게 해 주는 힘은 가족이었고, 그 근원에 아버지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아버지는 망망한 바다에서 고래를 쫓고 있을 때 멀리 섬이나 물에서 빛나는 등댓불이 보이면 한없이 반갑고 알 수 없는 힘이 생겼다고 했다. 할아버지의 마음이 깃들여 있는 듯한 등댓불, 그것은 바다에서 오랜 세월 동안 아버지에게 힘과 용기를 준 믿음의 근원이었다고 했다.

내가 원양어선을 타고나서도 아버지는 나에게 여러 차례나 말했다.

“산다는 것엔 시운이 있고, 바다에는 인간에게 보이지 않는 신비함이 있다. 네가 믿는 것만큼 바다는 너에게 무엇인가를 돌려줄 것이다.”

아버지는 잠시 말을 멎었다가 또 가문의 이야기를 했다.

“시조공께서는 고려 개국 공신이였다. 그래서 홍려부, 지금 이 땅에 너른 식읍지와 유포에 미역바위 12구를 하사 받으셨다. 내가 37세손이니 너는 38세손이다.”

하사 받은 그 미역바위를 관리하느라 수십 대에 걸쳐 강동과 주전 바닷가 일대에 웅거해 살게 되었다는 가문의 내력은, 어릴 때부터 수도 없이 들었던 이야기였다

오랜 터전이었던 주전 바닷가에 살면서 방어진포구까지 나가서 일을 하시던 할아버지가 등대를 세우기 위해서 온 일본인들은 만나게 되면서 등대와의 인연이 시작되었다고 했다.

열일곱 살 청년으로 방어진포구에서 일본인 일행을 만난 것은 1905년 봄이었다고 했다. 그들은 일산만 끝자락 울기곶에 등대를 세우기 위해 온 일본인 기술자들이었다. 며칠에 걸쳐 측량을 하고 위치가 정해지자 곧 공사가 시작되었는데, 터파기 작업을 하고 방어진항에 하역된 장비와 자재를 현장에 운반하고, 거푸집을 만드는 목수의 조공과 콘크리트 타설은 모두 우리나라 사람들이 했다고 한다. 거푸집을 채우기 위해서 물 흐르는 콘크리트를 한 짐씩 지고 비계에 올라 타설하는 일은 까다롭고 매우 힘들었다고 한다. 그해 시작된 공사는 다음 해인 1906년 2월 말에 완공되어 3월에 점등하였다고 했다. 그래서 동해안에 최초의 등대가 서게 된 것이었다.



공사판 노동자로서 성실하게 일하고 총명한 것을 눈여겨본 공사 담당자가 새로 부임한 등대관리 책임자에게 할아버지를 소개해 주었다고 한다. 그래서 할아버지는 등대를 관리하는 잡역부가 되어, 등탑 주변을 청소하고 등탑을 오르내리며 관리자가 하는 일을 도왔다고 한다. 처음엔 일본에서 가져온 미국산 석유를 사용한 90촉광짜리 둥근 석유등을 광원으로 사용했고, 그 뒤엔 카바이드에 물을 떨어뜨려 아세틸렌가스를 발생시켜 등불을 밝혔는데 간수가 이 일을 했고, 할아버지는 간수를 따라다니며 그 일을 보조했다고 했다.

“아버님은 날마다 등탑 안에 있는 나선형 계단을 올라가서 등명기를 닫고 등통의 유리창을 닦는 것이 일과였다고 한다. 빛을 조금이라도 더 밝게, 멀리 보내기 위해서 일심정신으로 일을 했다고 하셨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아버지는 할아버지의 말을 어제 일처럼 기억하고 있었다.

“울기등대가 세워지고 3년 뒤인 1909년에 일본인들이 고래잡이를 위해 장생포에 들어와서 동양포경 장생포사업장을 세웠다. 등대와 고래잡이는 이렇게 비슷한 시기에 시작되었다.”

잠시 기억을 더듬으시던 아버지가 말을 이었다.

“아버님이 15여 년 동안 하시던 등대 일을 그만두고 장생포로 간 것은 간수장 야마자키 씨가 자신의 친구인 포경선 선주 오까다 씨에게 소개시켜 주었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오까다 씨는 포경선을 두 척이나 가진 선주로 장생포에 포경회사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할아버지는 그 회사의 고래 해체장에서 일을 하

였다는 것이다.

내가 베랑해 명태조업에서 돌아와서 대서양 라스팔마스로 출어를 준비하고 있던 2006년 3월이었다. 아버지에게서 전화가 왔다.

“울기등대 점등 1백 주년 기념행사에 참가하고 싶으니 신청해 다오.”  
아버지의 말을 간략했다.

새 등간이 완공되어 문화재로 지정된 구등탑과 부대시설을 점등 100주년을 기념해서 시민들에게 개방하여, 창작공간이나 체험공간으로 제공하는 행사의 일환이었다. 아버지는 동사무소에 일이 있어 갔다가 주민 게시판에 붙어 있는 ‘100년의 빛, 희망의 등대’라는 홍보물을 보았다며, 알아봐 달라고 했다. 그때 아버지의 연세는 일흔다섯이었고 나는 원양어선을 탄 지 8년 차 되는 해였다.

“참 묘한 일이었다. 조사포경마저 끝나고 내가 배에서 내리던 그해에 아버지가 일하셨던 그 등탑도 새 등탑에 불을 넘겼다. 우연이라 하더라도 참 묘한 일이 아닌가…”

그전에도 몇 번이나 했던 말을 그날도 했다. 아버지의 말엔 지난 세월에 대한 그리움이 아득히 묻어 있는 것처럼 들렸다.

날짜를 배정받고 아버지는 들떠 있었다. 마치 할아버지를 만나러 가는 것 같은 착각이 들 정도로 할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다.

“너의 할아버지는 울기등대 등간이 잘 생긴 등탑과 안정되고 우아한 층계가 인상적이라고 말씀하시곤 했다.”

평소 침착하던 음성에 힘이 들어가 있었다. 아버지는, 할아버지의

세월이 물결과 바람에 밀리어 역사의 저편으로 까마득히 흘러가버렸지만 할아버지가 일하셨던 그 공간에 들어가서 지나간 시간을 되돌려 보고 싶었을 것이다.

거기엔 분명 할아버지의 젊은 날 삶이 어딘가에 스며들어 있을 거라고 믿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마음 설레며 들떠 있었을 것이다.

딸을 세 명이나 연이어 낳고 마흔이 넘어 낳은 아들의 이름을 등대의 등명기를 본떠서 ‘등명’이라고 지었다는 할아버지의 마음을 아버지는 다시 새겨 보고 싶었는지도 모르는 일이었다.

“해양진출의 역사를 개척한 것이 등대다. 격동의 우리 근대사가 그대로 담겨 있다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닐 것이다.”

아버지는 전에도 여러 차례나 했던 말을 그날도 했다.

“그 빛이 있었기에 그 고통의 시간 속에서도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을 찾고 희망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이 아니겠느냐.”

아버지의 믿음은 한결같았다. 다른 사람이었다면 아버지의 말이 다소 과장된 연사로 들렸을지 모르지만 나는 아버지의 말이 무겁게 들렸다. 그냥 뱉어내는 말은 아닌 것 같았다. 그 말은 아버지가 가진 할아버지에 대한 공경심이기도 하고 믿음이기도 했다. 그 등대에서 밤을 보내며 빛이 퍼져 나가는 바다를 보고 싶었던 아버지의 마음 깊은 곳엔 할아버지가 있는 것이 분명해 보였다. 마치 등명기 안에 광원이 있는 것처럼.

부산을 떠나 라스팔마스로 가는 뱃길에서 나는 아버지가 등대에서

이들 밤낮을 보내며 잔영 속에서라도 할아버지를 만날 수 있기를 바랐다.

아버지는 거기에서 마음으로나마 할아버지를 만났을 것이다. 이들의 낮밤을 지내면서 할아버지의 삶을 되돌아보았을 것이다. 백 년이 지난 등탑의 벽 속에서 몸을 일으켜 애달픈 시간의 윤희를 풀고 물결처럼, 바람소리처럼 들려오는 할아버지의 목소리를 들었을 것이다. 아버지의 눈에는 깊은 밤 어둠을 뚫고 퍼져나가는 등대의 불빛이 어찌면 할아버지의 현현으로 보였을지도 모른다. 마음이 간절했으니 분명 마음에 어떤 현시가 있을 것으로 믿었다. 저승과 이승, 그 시간은 결코 하나로 이어질 수 없는 것이지만 마음이 간절하면 그 머나먼 별계의 세월도 불과 손바닥 하나의 차이밖에 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등대에서 밤을 지새우며 할아버지의 세월도, 바다에서 보낸 아버지 자신의 세월도 되돌아보았을 것이다. 한 장 한 장이 지난날의 기록처럼 너울져오는 파도의 책장들을 밤새 넘기며 뜬눈으로 새벽을 맞았을지도 모른다.

물결보다 진한 추억의 시간 위로 둥둥 떠다니는 수많은 아버지의 지난 모습이 멀리 대서양까지 달려와서 나의 눈에도 보였다. 한때 정 들었던 사람들도 저 멀리 떠나가고 순정에 불붙어 뜨거웠던 해역에도 마침내 노을은 찾아와서 문득 눈물조차 그리운 지난 세월의 물소리가 나의 귀에도 들렸다. 환청이라도 현실보다 더 뚜렷한 울림이었다. 사랑도 기다림도 바람 속에 물거품이 되는 거라서, 산다는 것은 그런 거라서 반추할수록 더 아련한 해원의 끝으로 흘러가버린 거라서, 마음

은 그렇게 쓸쓸해지는 것이었을까. 아마도 아버지는 복기하듯 지난날을 불러와서 다시 작별하며 하나씩 쓸쓸히 먼 불빛 속으로 돌려보내고 있었을 것이다.

대서양의 한쪽으로 가는 바닷길을 밤낮으로 달려가면서도 아버지의 모습은 지워지지 않았다

“사나운 바다에서도 불빛이 보이면 그 등대가 나를 지켜주는 것 같았다.”

다시 아버지의 말이 떠올랐다.

거친 바다에서 밤을 지새우며 조업을 할 때 멀리 보이는 등대가 마음에 큰 위안이 되었던 것은 나도 마찬가지였다. 아버지의 말처럼, 등대불이 거기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돌아갈 수 있는 육지가 거기 어딘가에 있다는 것과 다르지 않았다. 아버지가 그러했듯이 나 역시 언제 부턴가 등대엔 아버지의 마음이 빙의되어 거기에 서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곤 했다.

아버지는 동해의 독도나 어청도 등대가 밤바다에서의 작업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했지만 나는 북태평양의 그 등대들을 잊을 수 없었다. 쿠릴열도의 여러 섬에서 보았던 등대도 그렇지만 오츠크해 캄차카반도 근해에서 조업할 때 반도 최남단 로팻카곶 해벽 위에서 있던 등대는 오랫동안 기억에서 지워지지 않았다. 눈보라가 휘몰아치던 혹한의 밤바다에서 아득히 바라다 보이던 그 등대는 나에게 아버지의 바람과 믿음이 깃든 신호와 같았다.

아버지는 등대가 보이면 등대가 자신을 지켜준다고 느꼈던 것은 할

아버지가 어디에선가 자신을 지켜준다는 믿음과 다르지 않았을 것이다. 마치 어머니가, 선대의 미역바위가 가족을 지켜준다고 믿었던 것처럼. 어머니는 미역바위가 보이는 마을 앞바다에서 물질을 하고 해녀들과 함께 지냈다. 다른 해녀들은 제주도에서 물질을 나왔다가 거기에 정착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지만, 어머니는 이곳 토박이 해녀로서 그들과 함께 소라와 전복, 미역을 따다. 곽암(藨巖), 미역바위는 조상신이 깃들어 있는 영험한 바위라는 믿음이 대단했던 어머니였다. 아이를 다섯 명이나 낳을 때마다 조상바위 앞에 가서 빌었고, 아버지가 바다로 나가고 풍랑이 일면 어머니는 조상바위에 가서 바람이 멎고 무사하기를 빌었던 것처럼 아버지의 믿음은 할아버지였다.

아버지는 점등 100주년 행사가 있고 나서 8년이 지난 뒤 세상을 떠나셨다. 자신의 분신처럼 간직해 왔던 이노우에 항해일지를 나에게 맡기고 난 1년 뒤였다.

“근처 어딘가에 해양기념관이라도 생기면 이 일지를 기증해 다오.”  
이 말이 아버지의 유언이 되고 말았다.

내가 처음으로 펼쳐본 이노우에 항해일지는 경이로웠다. 거기엔 자신의 항해 기록뿐만 아니라 한국해역에 대한 여러 가지 사실들이 기록되어 있었다. 심지어 서양의 포경선이 동해에 와서 조업했던 시기 까지도 기록되어 있었다. 그것은 아마도 관련 문헌이나 다른 사람의 항해일지를 보고 참고하기 위해서 기록해 둔 것 같았다.

이노우에 선장은 일본 동양포경회사의 포경선 선장이었다. 1909년

5월에 설립된 동양포경회사는 1934년 7월 1일 니혼수산에 통합될 때까지 25년 동안 한국연해의 포경업을 독점하였다. 그가 처음 탔던 포경선은 동양포경 소속인 넥스호였는데 이 배는 노르웨이식 최신형 포경선으로 포수는 윤손이라는 노르웨이 사람이었다고 한다.

동양포경은 7개의 사업소를 한국에 두고 있었다. 그곳이 바로 장생포와 장전, 그리고 신포, 유진, 대흑산도, 대청도, 서귀포 사업장이었다. 그의 항해일지엔 1934년 동양포경이 해체되어 니혼수산에 통합될 때까지 한국해역에서 6천1백3마리의 고래를 잡아갔다고 기록되어 있었다.

1899년 2월 동해에 들어와서 조업 중인 러시아 포경선을 대한제국 함선이 나포한 것 때문에 양국 간의 마찰과 외교문제가 생겼다. 결국 러시아의 요청으로 1899년 3월 29일 대한제국 외무교섭국장 이응익과 러시아 해교장교 출신으로 극동포경의 개척자였던 게이제를링그 백작에 의해서 포경기지 조차(租借)에 관한 약정서가 조인되면서 장생포에 러시아 포경기지가 설치되었다는 기록도 들어 있었다. 그가 어떻게 이러한 자료들을 입수하여 기록했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마치 자신이 목격한 것처럼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다.

1840년대 동해에 왔던 서구 포경선 이름들도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는데, 그것은 미국인 포경선피닉스호 선장이 쓴 항해일지를 옮겨 적었다고 부기되어 있었다. 1849년 3월에 미국 포경선 ‘막티주우머’호가 왔고, 그 뒤를 이어 ‘이어리’ ‘제퍼슨’ ‘줄리언’ ‘리버풀’ ‘파이어나어’호가 동해에 들어왔고, 한창때는 120척이나 되는 서구열강의 포경

선이 동해에 몰려왔다는 기록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러한 기록들은 그가 얼마나 세세하게 한국해역포경의 역사를 꿰뚫고 있었는가를 말해 주는 것들이었다.

나는 일본어로 된 그 항해일지를 더듬더듬 해독해 읽으면서 전율했다. 그날 밤잠을 설치며 지난 바다의 역사를 상상해 보았다. 오랫동안 아버지가 그렇게 소중하게 간직해 온 이유를 비로소 알 수 있었다. 아마도 그 일지는 바다로 나가는 아버지에게 하나의 지침서와 같은 역할을 했을 것 같았다. 한 자 한 자 일본인 선장의 세밀함과 직업의식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고 몇 년 뒤 나는 해양기념관이 아닌 시립 박물관에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 항해일지를 기증하였다. 피땀 어린 그 기록이 귀중한 사료로 거기에 남아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바다가 한눈에 들어오는 봉대산 기슭에 묻힌 아버지는 지금도 이승의 시간 저 너머에서 바다를 보고 계실 것이다. 할아버지의 그 등대가 보이고 바다가 보이는 산기슭에서 아버지의 바다는 아직도 청청할 것이다. 이승에서의 추억이 아련한 날 몸을 일으켜 돌아보면 지나가버린 것들은 다 수평선처럼 아득하겠지만, 바다를 향한 애끓는 마음으로 어두운 세상의 땅 끝에 서서 온몸을 태우며 긴 밤을 지키는 등댓불처럼, 아버지는 간절한 그 사랑을 추억 속에 묻어두기엔 너무 아련하여 오늘도 해가 지면 저기 저렇게 몸을 일으켜 등탑 언저리에 마음의 불을 밝히고 지난 바다를 굽어보고 계실 것이다.

내가 원양어선에서 내려 지금의 이 소형 자망어선을 마련했을 때



나는 다시 마음이 설렘다. 마치 원양어선을 타고 북양으로 떠나는 그 날처럼 마음이 설레서 잠을 잘 이루지 못했다. 그것이 벌써 10여 년이 다 되어 간다.

세월은 흘러갔다 덧없이. 낮과 밤이 바뀌어도 바다는 예나 지금이나 저렇게 질푸른데 나의 인생도 어느새 저만큼 흘러가버렸다. 이제 나의 삶도 육십 대 중반을 훌쩍 넘긴 나이가 되었지만 바다와 함께 하는 나의 시간엔 아직 물고기의 생동감 같은 활력이 얼마는 남아 있다.

바다에서 보는 포구는 저렇게 조용하고 아름답다. 늘 저렇게 등대가 보인다. 일몰의 시간이 지나고 아직은 어둠이 내리기엔 얼마의 시간이 남았지만 등대는 벌써 불을 밝혔다. 어머니의 신앙이었던 선대의 미역바위가 보이고 왼쪽으론 아버지가 누워 계신 봉대산도 보인다. 나를 기다리는 작은 어항의 유도등대도 보인다. 아버지가 보았고 수많은 뱃사람들이 보아왔던 그것들이지만 나에게는 신앙 같은 것들이다. 하루의 일과를 마감하고 돌아오는 마음은 언제나 이렇게 푸근하다.

사랑과 그리움은 끝없는 헌신이였을까. 캄캄한 밤에도 먼바다를 건너서 와야 할 사람이 있어서 문밖으로 하나씩 등불을 내걸고 바람 속에 활활 육신 태우며 서 있는 등대처럼, 아버지는 날마다 내 마음에 와서 나를 지켜준 믿음의 불빛이 되었을까. 어둠을 헤치고 그리운 얼굴이 올 때까지 잠 못 이루시고 수없이 몸을 뒤척이며 마음에 불을 밝혔을까. 등탑을 돌고 돌아 시린 마음에 바람이 일면 하염없이 혈육의 이름을 부르며 스스로 소멸해 빛나는 불빛처럼, 그 수많은 날들 어둠에 묻힌 뱃길을 따라 그리움도 기다림도 파도에 실어 보내며 애타는 마

음으로 가슴 조이며 온밤을 서 있었을까, 아버지란 이름으로.

아버지의 가슴엔 아버지의 아버지가 있었을 것이다. 어둡고 힘든 시간에도 홀로 비를 맞으며 삭신을 파고드는 겨울 해풍에 몸을 맡긴 채 뱃길을 지킨 등대 같은 할아버지가 있었을 것이다.

아버지의 믿음은 아버지의 아버지였고 어머니의 믿음은 미역바위, 그 조상바위였다면 나의 믿음은 또한 아버지였다. 평생을 번번한 믿음의 종교 하나 없이 살아왔던 아버지와 어머니의 신앙이 그러했다면, 나 역시 아버지가 믿음의 근간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저 등대는 사물서의 등대가 아니다. 아버지에게 그러했듯, 나에게도 아버지로 상징되는 등대다. 아버지의 마음이 그 언저리 어딘가 머물러 나를 지켜보고 있을 것 같기 때문이다.



---

## 고백의 바다

제 11회 등대문학상 우수상 + 소설  
박영숙

너울거리는 커다란 생명체를 따라 푸른 심연의 바다를 날아오른다.  
나비의 움직임으로 헤엄치는 짙은 개나리색의 열대어무리들, 흰 백합화의 나른함으로 허물없이 하품하는 조개들, 산벚꽃 무리를 쏟아놓은 듯한 해초들, ‘살아있어. 살아있어.’라고 끝없이 움직이며 존재하는 황홀한 풍경이 연속되어. 비명조차 내지를 수 없는 잔인한 아름다움. 그 안에서 수연의 폐가 풍선처럼 부풀어 숨이 들어오고 빠져나가는 것이 그대로 느껴진다. 수연의 귀가 아니 귀밑의 무언가가 폐와 같이 길게 열리고 닫힌다. 그것은 상처처럼 살의 어느 부분을 예리한 칼날로 열어낸 기관 같다. 활처럼 굽어지는 뼈를 가진 수연은 오직 몸을 움직여 날아오르고 시간을 향해 나아간다.

“야 이 새끼야. 욕실을 또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으면 어떡해. 진짜.”

우진의 옥타브 높은 짜증에 수연의 손가락이 움찔대며 눈이 떠진

다. 불이 꺼진 오래된 천장 등, 암막 블라인드가 내려진 자신의 침실. 어둠 속에 적응된 눈은 뇌에 정보를 제공한다. 수연이 지금 ‘수연과 우진’의 침실에 누워있었고 길고 아름다운 꿈을 꿴다는 것을.

수연이 느꼈던 환희는 얼마나 짜릿했는지. 등과 누워있는 침대 시트 전체가 습습하다. 손바닥으로 침대를 스윽 한번 마르게 비비듯 어루만져본다. 천천히 몸을 일으켜. 무릎과 다리를 침대 밑으로 내려 바닥을 밟는다. ‘다리’라는 것이 생경하다는 듯. 천천히 교대로 움직여 방문을 밀어 거실로 나선다. 거실의 경계선, 화장실 문턱 앞에서 목이 늘어난 초록색 먼티와 몇 년 전 이국에서 산 코끼리 바지를 입은 다소 우스꽝스러운 우진이 얼굴을 야차 같이 일그러뜨려서 기용에게 화를 내고 있다.

깡마른 기용이 오른 손바닥을 파닥거리며, 자기 머리를 톡톡톡 친다. 기용은 불안할 때면 자기 머리를 때렸다. 욕조 가득 비누 거품이 푸푸 날아다닌다. 기용은 욕실에 있는 샴푸와 세안제들을 짜내 최선을 다한 거품을 만들어 낸 듯했다. 욕실 바닥 곳곳에도 거품이 뭉그러진 자국들이 보인다. 머리를 때리지 않는 왼손으로는 욕조의 물을 끝없이 찰싹이는 기용은 스무 살, 자폐다. 자폐 아이가 아닌 스물의 자폐성인.

수연은 대학에서 만난 복학생 우진과 부모가 반대하는 이른 결혼을 하여 아이를 낳아 키웠다. 아이를 키운다는 것은 한 사람의 생기를 그대로 수혈한다고 여길 만큼 힘들었다. 내내 공을 들여 키웠는데도, 기용은 자라지 않았다. 아이에 대한 불안이 끄지 않고 나온 가스 불처럼 결했다. 옷을 다 벗고 욕조에 파묻혀 잠수하다가 뽀글뽀글 거품을 피

위 올리고 물 밖으로 다시 얼굴을 내밀며 시간을 보냈다.

“아니 저 새끼는 일부러 우리 골탕 먹이려고 저러는 거 같아. 수건 이랑 휴지까지 다 적셔놓고, 덩치는 산만한 게. 어휴 ”

수연은 우진의 입에 뭐든지 처넣고 싶었다. 제발 좀 닥쳤으면. 깨어 있는 동안 계속 이어지는 우진의 짜증은 수연을 감정적으로 탈수 되게 만들었다. 늘 우진의 기분을 신경 쓰고 우진의 날 선 짜증 위를 걷는 생활을 해왔다. 반응 없는 수연을 힐끗 보고는 우진이 욕실로 들어간다. 주섬주섬, 샤워기로 바닥의 거품을 씻고 젖은 수건과 휴지를 밖으로 빼낸다.

“나 기용이 데리고. 바다 좀 보고 올게 ”

수연 자신도 예상 못 했던 말이다.

“응.?”

“그냥 좀 답답해서. 바다 좀 다녀오려고.”

수연은 우진의 눈을 보지 않는다. 꼭 가겠다는 다른 강경한 의사소통 표현이다.

기용이 욕조에 나오다가 그대로 미끄러진다. 느린 동작처럼 수연의 눈앞에서. 쿵. 아이는 비명조차 지르지 않는다.

수연이 근무하는 병원 응급실에 두부 엑스레이 촬영을 마친 기용은 땅바닥을 보며, 수연의 옷소매를 잡고 병원 문밖을 나선다. 병원문을 나선 수연은 손 가리개 만들어 해를 바라본다. 따갑다. 피부의 비늘 하나하나가 말라 들어가는 것 같다.

기용은 CT 촬영실에서 요란하게 난동을 피웠다. 검사를 위해 기계에 들어가는 잠깐의 시간에 죽음의 위협을 느낀 짐승처럼 소란을 피웠다. 정맥관을 모두 잡아 뽑아 CT실을 피범벅으로 만들고 말리려던 방사선사들을 마구잡이로 공격했다. 수연은 기용의 주치의에게 CT를 안 찍어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처방을 지워달라고 요청했다. 의사들은 수연의 말을 빈틈없이 의무기록에 옮기고서야 병원 밖으로 나설 수 있도록 해주었다. 난동을 부린 기용 덕분에 후배들이나 팀장의 눈치를 보지 않고 휴가를 쓸 수 있게 되어서 다행이라고 해야 할까. ‘수연의 아이가 자폐라는 것’은 이미 병원의 단물 빠진 이야기 소재다. 수연은 차를 몰아 김포공항으로 향했다. 바다를 향한 마음이 다급하여 차나, 기차를 타면 조금중에 타버릴 것 같았다. 사실, 기용과 갇힌 공간에 오래 있는 것도 불편했다.

장애인 편의를 받아 비행기에 좀 더 일찍 오른 수연은 간만에 발이 공중에 떠 있게 된 것이 싫지 않았다. 20년 전, 수연과 우진은 태교 여행으로 부산에 갔었다. 우진을 반기지 않는 친정 식구들 덕분에 수연은 늘 우진의 눈치를 봤고, 그게 그를 기고만장하게 만들었다.

태교 여행지로 그가 어릴 적 살던 부산을 선택했을 때, 수연은 손뼉까지 쳐 보이며 좋아해 주었다. 송정 해수욕장으로 원피스와 슬리퍼 차림으로 나온 임신 4개월의 수연은 파도를 바라보며 후하고 밀려 나갈 때는 후하고 숨을 내쉬고, 흠하고 들어올 때는 흠하고 들이쉬었다. 우진이 매점에서 빌려온 파란 파라솔과 빨간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종일도 보낼 수 있을 거 같았다. 시간을 바람에 흘려보내던 수연의 눈

에 들어왔던, 바다 위 젊은 남자는 파도에서 미끄러지듯 날고 있었다. 20년 전만 해도 서핑이라는 것이 흔한 스포츠가 아니어서, 2m 정도 되는 타원형의 서프보드를 타고, 나비같이 날고 있는 남자가 신선했다. 소연은 눈을 떼지 못했다.

남자는 날개가 젖을 것처럼 파도 위를 날았다. 푸르륵 푸르륵.

어느 순간 남자가 사라졌었다. 파도가 나비를 삼킨 것처럼.

‘하나, 둘, 셋....., 넷. 열’까지 세어도 남자는 보이지 않고 서프보드만 흔들거리며 나타났다.

“사람이 물에 빠졌어요!!”

수연은 수연이 낼 수 있는 가장 큰 소리를 질렀다. 3월, 햇살이 좋긴 했지만, 해수욕하기는 이른 계절이었고 아무도 쉽사리 바다에 뛰어 들지 못한 채 시간이 흘렀다. 다행히 누군가, 그를 끌고 모래사장으로 나왔고, 수연은 기다렸던 것처럼 바로 심폐소생술을 시작했다. 그때 그녀는 응급실 3년 차 간호사였다. 자신이 임신했다는 것도, 심폐소생술을 하면 힘이 많이 들어간다는 것도 모두 다 잊고 온 힘을 다했다. 그의 빗장뼈 밑에 그려졌던 돌고래 타투가 수연의 흉부 압박에 따라 작아졌다, 커지기를 반복했다. 그의 맥이 돌아오고 마침 도착한 구급차에 실려 가고 나서야 긴장이 풀린 수연이 화장실에 갔을 때, 약간의 피가 팬티에 묻어 있었다. 두 시간 정도 싸하게 뭉쳤다 풀리기를 반복하며 불편했던 아랫배의 통증도 기억났다. 통증에 대해 아무에게도, 곁에 있었던 우진에게조차 말하지 못했던 것조차도, 아삼아삼 떠올랐다.

“네가 굳이 왜??”라고 말하던 우진의 짜증스러웠던 눈빛마저 기억



나, 수연은 짧게 몸서리를 쳤다.

“응으으응응” 언제 깨어났는지도 모르게 기용이 소리를 지르기 시작한다.

“으으응으으으응응” 스무 살의 기용은 여전히 웅알이로 자신을 표현한다. 상념에 젖었던 수연은 큰소리를 내는 기용의 입을 아무 생각 없이 손바닥을 펴서 꺾 막아버렸다. 반사적인 행동이었다. 손바닥으로 입이 막힌 기용은 처음 당하는 엄마의 폭력에 당황한 듯 눈동자가 불안히 흔들렸다.

“조용히 해. 지용아. 제발 조용히.” 아이의 눈동자가 내려앉았다.

수연의 신발로 축축한 무언가가 스며들었다. 따뜻하다 못해 뜨거운 액체. 바닥이 젖고 있다. 스무 살 기용이, 자신의 소변을 그대로 비행기 바닥에 보았다.

수연은 앞뒤 승객과 승무원에게 붉어진 얼굴로 고개를 숙였다. 승무원들은 난감함은 숨기지 못했지만 투철한 직업정신으로 무안을 주진 않았다. 기용의 소변이 좌석 밑바닥으로 흐른 승객 아무도 소리를 지르거나 항의하지 않았다. 다만, 수연을 바라보는 눈길에 천형을 타고 난 인간에 대한 연민을 감추지는 못했다. 뱃속에 거무칙칙하고 물경한 감정이 고였다.

“어쩌다가.”가 수연의 귀에 울리는 것만 같았다. 당신은 “어쩌다가.”

승무원들이 내어준 담요로 기용의 바지를 짜내듯 닦아낸 수연은 얼마 전 비행기 문을 열고 뛰어내리려 했던 누군가처럼 비행기 문을 활

짜 열고 싶어졌다.

“어쩌라고! 나보고 어쩌라고!” 수연의 안에서 주문 같은 욕설이 꼭 두까지 부글부글 올라왔다.

가장 먼저 비행기에서 내린 수연과 기용은 택시를 타고 근처 복합 상가로 갔다.

여행 짐을 전혀 못 썼기 때문에 간단한 의복이 필요했다. 수연은 물건을 살 때마다 느껴지는 어떤 꺼림칙함을 좋아하지 않았다. 간소하게, 버리지 않고 쓸 수 있는 물건들 위주로 골랐다. 주로 검거나 흰 티, 베이지색 면바지와 청바지, 수연이 사는 옷들은 단답형이었다. 청바지를 갈아입으러 들어간 기용을 기다리는 남자 화장실 앞에서 수연은 긴 숨을 내쉬었다. 이제 ‘모자’만 사서 택시를 타면 1시간 내로 바다에 도착할 것이다. 바지를 갈아입을 시간이 여러 번 지났음에도 남자 화장실에서 기용이 나오지 않는다. 수연이 입술을 잘근잘근 깨물었다. 화장실에 들어가는 젊은 남자를 어색하게 붙잡았다.

“저기. 제 아이가 자폐가 있는데. 화장실에서 나오지를 않네요, 혹시 화장실 안에 자폐로 보이는 아이가 있으면 좀 알려주시겠어요?”

젊은 남자가 화장실에서 나와 난감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으며 자폐로 보이는 아이는 없다고 말했다. 수연은 수치심도 잊고 화장실 안으로 들어섰다. 아이는 또. 또. 또 사라졌다.

아이는 자꾸만 사라진다. 놀이공원에서, 휴게소에서, 지하철역에서, 계곡에서, 아이는 매번 사라지고 부부는 늘 정신을 잃도록 허둥대며 아이를 찾아냈었다. 그렇지만, 오늘 수연은 하루가 평생을 살아낸

것처럼 피로했다. 남자 화장실 앞 벤치에 앉아 장면의 막을 내리듯이 눈을 감았다. 수연은 아이가 돌아오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초파리처럼 맴도는걸. 그대로 둔다. 날것의 감정을 그대로 펼쳐놓고 타인의 감정 인양 듯 바라본다. 징그러워도, 악취가 심해도 그저 바라본다. ‘아이가 이대로 사라졌으면 좋겠다.’ ‘우진과 헤어졌으면 좋겠다.’ ‘병원에 다니고 싶지 않다.’ ‘타인의 고통을 더 이상 보고 싶지 않다.’ ‘모든 관계가 모든 시선이 피로하다.’ ‘늘 뜨겁게 따라다니며 내리찍는 햇빛이 제일 성가시다.’ 식탁 위에 차려진 음식처럼 감정을 바라본다. 수연은 기실 어서 빨리, 바다가 보고 싶을 뿐이다.

옷소매를 사그락사그락 만지는 느낌이 들어 걸을 바라보니 기용이 돌아와 앉아있다. 눈을 맞추지 못하는, 아이의 속에는 대체 어떤 세상이 있는 걸까. 요즘 수연은 사실 매우 자주 기용의 실종을 꿈꿨다.

송정 해수욕장 근처에 트윈베드가 있는 호텔을 찾아, 짐을 풀고, 기용과 바다로 나왔다. 바다 위로 홍시 같은 까치 노을이 빙글빙글 돈다. 오늘 하루 종일 아무것도 못 먹었다는 걸 깨달은 수연은 아이가 씹을 젤리와 마른오징어, 생수, 소주를 사 들고 모래사장 위로 걸었다. 허기가 졌던 기용은 젤리 봉지를 급히 찢어 입안에 욱여넣고 양손 가득 마른오징어를 들고 송정 바다로 내달린다. 바닷물을 찾는 기용의 급한 마음이 도화지에 그려진 것처럼 선명하다. 기용은 가르쳐주지 않아도 수영을 할 줄 안다. 수연이 아무리 배워보려 해도 배우지 못했던, 수영을 기용은 그저 물고기처럼 할 줄 안다. 기용을 바라보며, 아침에 꾸었던 꿈을 떠올린다. 분명 바다 안에서 살아있었다. 바다 안에서 숨을 쉬

던 느낌, 몸 전체가 물결 따라 흔들리던 감각들, 폐와 같이 열리고 닫히던 귀밑의 어떤 기관. 그리고 해가 들지 않았던 심연. 자신은 분명 누군가를 따라 날아오르고 있었다.

소주를 따른 종이컵이 눅눅해진다, 얼른 입에 털어놓는다, 술을 먹지 않는 날이 없다. 식사에 대한 허기보다도 술에 대한 허기가 수연을 움직이게 한다. 실타래처럼 촘촘히 묶인 뇌가 탁하고 도르르 풀려버리는 취기에 중독되어 하루하루가 무사히 흘러갔다.

우진의 여자에게 연락이 온 건 3일 전 월요일이었다.

‘안녕하세요. 저는 최우진 이사님과 함께 일하고 있는 이아영이라고 합니다.’라고 시작되는 메시지. 최우진 이사님이 얼마나 가족이라는 소속에 대해서 힘들어하고 지쳤는지, 빠져나갈 수 없는 굴레로 생각했는지. 배우자인 수연을 끄적해하면서도 의리를 지키려는 그의 마음이 얼마나 가륙했는지에 대한 내용이 정리되어 있었다.

상큼한 헛소리에 수연은 부부의 완전한 멸망을 구경하는 기분이었다. 수연은 카톡을 그대로 읽어 들여 우진에게 보냈다. 우진의 고민이지, 수연의 고민은 아니다. 삶은 원래 늘 모욕의 연속이었다. 이까짓 모욕쯤이야 손 닦아낸 물티슈처럼 가볍게 버릴 수 있다.

이혼이라는 프로젝트를 끝까지 끌고 가는 부서장은 수연이 아니라 우진이 되어야 했다. 수연은 이혼을 끝까지 끌고 갈 에너지가 없다. 소주 한 병이 끝나버렸다. 두 병을 샀어야 했다. 기용이 싫어해서 먹지 않는, 오렌지 향 젤리를 사료처럼 우물우물 씹었다.

“물에 들어가기는 추울 텐데요.”

언제 섰는지도 모를 낯선 남자가 조용히 서서 혼잣말하듯 중얼거린다. 물 냄새가 나는 남자였다. 몸의 어느 한구석 분명 젖어있는 곳은 없는데, 젖어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경충한 키에 어중간한 파마가 들어간 머리, 너무 타버려서 이곳저곳 헤진 피부 그는 소연을 잘 아는 듯 아무렇지도 않게 지용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마흔쯤 되었을까.....

“수연을 잘하네요, 물고기 같아요. 배운 아이가 아니라, 물에서 태어난 아이 같아요.”

남자는 골똥히 기용을 바라보고 있었다. 물에서 태어나지 않았다. 수연의 배에서 모든 아이가 태어나는 길로, 응급실에서 태어났다.

“가오리네요. 선사시대부터 살아왔대요. 지금도 인도양과 서태평양 근처에서는 종종 거대가오리가 발견되고 있어요. 그 아이들이 얼마나 살았는지는 알 수도 없죠... 연골로 만들어진 골격을 갖고 있고, 부레와 허파가 없다는 점에서 다른 경골어류와는 달라요, 그 아이들은 커튼이 바람이 날리듯 헤엄치고 숨도 잠처럼 쉬어요. 저 아이는 마치 가오리같이 바다 위를 헤엄치네요.”

수연은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취기가 돌아 몸이 공중에 약간 떠있는 거 같기도 하고 남자가 환상 같기도 했다.

“저는 해운대 아쿠아리움의 사육사예요. 아쿠아리움의 갇힌 아이들이 종일 헤엄치는걸. 보다가, 집으로 돌아갈 때면 그런 기분이 들어요. 나만 집에 돌아가는구나. 아이들은 아직도 집에 돌아가지 못했는데, 나만 또 집에 돌아가는구나. 그래서 바다로 걸어요. 그런데 아쿠아리

움의 아이들처럼 헤엄치는 저 아이를 보고 있네요.”

“저 아이는 자폐예요. 스스로 갇히어서 태어났죠. 저는 저 아이가 두려워요. 제 생의 모든 기운을 갇힌 저 아이 안으로 빨아들이는 것 같아요. 제가 나은 게 아니라 저 아이가 저를 천천히 삼키고 있는 거 같아요.”

“바…. 다. 같네요. 지구의 칠할은 바다인데 바다는 인간에게 아직도 낮가림하죠. 분명 처음 생명을 품고 낳은 것도 바다고, 점점 더 넓어지는 것도 바다인데, 인간을 계속 낮설어하는 것같이 느껴져요. 바다는 그저 인간에게 필요한 걸 가끔 내어주고 우리를 바라볼 뿐이죠”

올바른 문답이 아니다. 서로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한다. 대화가 아니라 고해였다. 이름도 모르는 낯선 이한테만 주저리주저리. 곁을 내줄 수 있는 시간. 취한 바다의 시간. 수연은 가슴을 여미고 여뒀던 단추가 툭툭 터지는 거 같았다. 남자가 조용히 사라졌다. 남자가 수연의 곁에 앉아 좀 이야기를 나누어줄 줄 알았는데, 아쉬웠다. 노을이 바다 끝을 치며 닿는데, 기용은 바다와 노을 끝을 날았다. 남자가 소주 세 병과 새우깡, 초코파이 등을 사 들고 돌아왔다 수연은 기뻐다. ‘기쁘다’라는 감정이 수연의 안에서 형태와 색을 찾고 움직였다.

“달아요.”

그저 ‘달다’는 말과 함께 남자는 투박한 손길로 초코파이를 뜯어서 수연에게 건넸다. 초코파이를 입안 가득 밀어 넣었다. 달았다. 너무 달아서 눈물이 났다.

술을 마시고 우는 주사는 없었다. 다정한 눈길에도 사람은 무너진

다고 하더니, 수연은 그저 단 초코파이에 무너졌다. 눈물은 그녀를 잠식했다. 꺾꺾거리는 소리를 주체하지 못할 만큼. 추하게 흐르는 콧물 닦을 것을 찾다가 가방을 뒤져 양말을 찾아 ‘흥’하고 풀었다. 픽하고 웃음이 났다. 초코파이를 우적우적 씹어 가루까지 털어 다 삼키고 나니, 남자가 녹녹한 종이컵에 소주를 따라줬다. 형클어진 그녀에게 묵묵히 술을 따라줘서 수연은 편안했다.

“아쿠아리움의 물고기들도 바다 꿈을 꿀까요? 미친년같이 들리겠지만. 저는 어제 바다를 나는 꿈을 꾸었어요. 분명 ‘바다의 생명’이었어요. 비루한 인간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이야기는 육지 이야기가 중심이잖아요. 그래서 육지의 구미호나 이무기 같은 것들은 인간을 닮아가려 하기도 하고, 인간을 사랑하기도 한다는 이야기가 흔하죠. 바다의 생명이라고 크게 다를까요? 바다의 생명들은 사실 육지의 생명보다도 훨씬 오래 살아요. 가끔은 그들도 인간의 꿈에, 인간의 혼에 선물처럼 깃들 수도 있는 거 아닐까요?”

“햇빛이 성가실 때가 있어요?”

“가끔요. 그래도 인간은 종종 햇빛에 말려야 해요. 너무 습한 인간은 굼고 아파요.”

물 같은 사육사 남자가 처음 보인 단호한 어투였다.

“형이 있었어요. 형은 바다에 혼을 뺀 사람 같았어요. 부모님이 울고불고 반대했는데도 잠수사가 되었어요, 잠수사가 되어서 지구를 돌다 돌다 돌아와서는, 저를 안아주었어요. 안는다고보다는 붙잡는다

는 느낌이었어요. 형이 한번 갔다 돌아오면 초등학교에 입학했고, 두 번 갔다 오면 저희 집은 이사를 했죠. 형이 가장 자주 하는 이야기는 실러캔스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실러캔스는 5천만 년 전에 멸종되었다고 모두 생각했던 생물인데, 살아있었다고 자기가 본 가장 아름다운 화석이었다고. 그러한 것들에 어찌 영과 혼이 없겠냐고. 바다의 생명들은 가끔 우리를 보러 구경 나올 거라고. 했어요.”

노을이 바다로 잠기고 어두워진다. 기용이 곧 물으로 나와야 할 시간이다. 수연이 기용을 물 밖으로 부른다. 기용이 안 들리는 척. 수연과 멀어진다. 사육사 남자가 양손 가득 펼쳤다 접으며 아이를 다시 물 밖으로 정성스레 불러낸다. 기용이 사육사 남자를 관통할 거 같은 눈빛으로 바라보더니, 물으로 걸어 나온다. 기용의 몸에서 바닷물이 똑똑 미끄러진다. 사육사 남자는 기용을 보고 크게 웃었다. 그는 기용을 익숙하게 안았다. 추위에 바들거리던 기용이 그를 밀어내지 않았다. 남자와 조금 더 같이 있고 싶다. 이 남자에게는 기용이 부끄럽지 않다.

“우리 집에 가서 한잔 더하고 쉬시는 거 어떠세요?”

남자가 자연스레 말을 건넸다.

표면은 외설스럽고 위험한 내용인데. 다정한 말이었다. 수연은 알 수 있다. 이 남자는 해롭지 않다.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고, 기용의 손을 잡아 사육사 남자의 뒤를 따랐다. 호텔에서 스물이 넘는 아들과 자는 것이 내심 불편하기도 했다.

남자의 집은 삼십 분가량 걸어야 했다. 집으로 가는 골목길에서 수연은 남자에게 자신과 기용의 이름을 알려주었다. 남자의 이름은 ‘진



육'이라 했다. 수연과 기용은 마치 오래전 초대받은 것처럼 자연스럽게 사육사 진옥의 집안에 들어섰다. 골목 꼭대기에 위치한 빨간 지붕 단층 주택 앞에는 바다가 펼쳐져 있었다. 세 개의 서프보드가 그의 집을 에워싸고 있었다. 빼격대는 미닫이문을 끼익하고 열자 큰 테이블과 의자 두 개가 집안의 가구의 전부였다. 수연은 텅 빈 그의 집이 마음에 들었다. 심지어 그의 벽에는 그 흔한 그림도, 사진도 걸려있지 않았다. 이 집에서는 사람의 냄새가 나지 않았다. 바닷속에 잠긴 집처럼.

물속에서 한참을 놀다 나온 기용은 따뜻한 물에 샤워를 하고 남자가 사다 준 초코파이를 한 갑 다 까먹었다. 잠시 후, 남자가 내어준 침낭에 들어가서 잠이 들었다. 고치 같은 침낭이 꽤 마음에 들었는지 금세 잠이 들었다. 수연이 큰 테이블 앞 의자에 앉아 스마트폰을 꺼냈다. 둘째 아들 기훈으로부터 카톡이 와있었다.

[엄마 저 기훈이에요. 아빠가 엄마랑 자기랑 이혼할지도 모른다고 말해서. 알았다고 했어요. 저는 형이랑 엄마랑 살고 싶어요. 엄마는 형을 선택하겠지만, 저는 엄마를 선택할 거예요. 그게 제 '결심'이에요.]

열여덟 살 기훈의 카톡은 간절했다. 결심, '할 일에 대하여 어떻게 하기로 마음을 굳게 정함. 또는 그런 마음'을 한 기훈이 애썼했다. 지폐형을 가진 기훈이 초등학교 3학년 때 그린 그림으로 수연과 우진은 여러 번 학교에 불러 갔었다. 바닷속에 떠 있는 알록달록 큰 물고기 세 마리, 바다 밑에 가라앉아 초라하게 해초 뒤에 숨어있는 물고기 한 마리. 선생님에게 기훈은 자신은 가라앉은 물고기라고 말했다. 수연과 우진은 학교 선생들로부터 여러 번 가족 상담을 권유받았다. 기훈을

생각하면 수연의 마음은 공사가 멈추어서 철근이 그대로 드러난 황폐한 건물 같았다. 공사를 더 진행하면 부도가 날 것 같고, 공사를 멈춘 게 지속되면 쓸쓸해지는 그런 마음, 단혀있는 기용으로 인하여 기훈은 형이 있어도 형이 없었고, 부모가 있어도 한 번도 온전히 차지하지 못하였다. 기훈을 생각하면 수연은 늘 종이에 베이는 찢나의 마음이 들었다. 기훈의 카톡 뒤에는 우진의 카톡이 여러 개 와있었다. ‘자신이 왜 다른 여자와 외도해야만 했는지’에 대한 상세한 변명과 ‘이혼은 절대 안 된다는 강경한 의지’를 적어 보냈다. 그러면서 뒤로는 기훈에게 이혼하면 누구를 따라갈 거냐고 물었다. 난생처음으로 스마트폰을 벽에 부딪히도록 세게 던져서 산산이 박살을 내고 싶었다. 스마트폰 전원을 껐다.

진욱은 집을 뒤져서 찾아낸 달걀로 달걀죽을 끓였다. 큰 테이블 위에 달걀죽 냄비와 스테인리스 그릇 두 개, 숟가락 두 개와 소주잔 두 개, 그리고 소주를 놓았다. 그릇과 수저는 캠핑용품의 일부인 듯했다. 수연은 자신이 왜 이 집에서 이 남자와 소주잔을 기울이고 있는지, 이 낯선 여행이 의아하고 기꺼웠다. 아무래도 좋았다.

“형 이야기 좀 더 하고 싶은데 괜찮아요?” 수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다정함을 수연은 빨아들였다. 수연은 다정함이 필요했다.

“형이 잠수하면서 봤던 것들의 이야기를 듣고 나면. 저는 며칠은 바닷속에서 사는 기분이 들었어요. 바다에 들어가면 세상 걱정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고 했어요. 일종의 ‘무아지경’에 빠지게 된다고. 바다는 고요해서 형의 숨소리만 들리고, 환상의 세계가 펼쳐진다고.

형의 눈은 육지에 머물지 않았어요. 늘 바다에 머물렀죠. 육지의 모든 것들은 형에게 짐처럼 느껴지는 것 같았어요.”

수연은 수연이 가진 것들을 떠올렸다. 많다. 수연을 자유롭게 하지 못한 건 우진도, 기용도 아닌 수연의 욕망이었다.

“형수는 늘 형을 기다렸어요. 저도 늘 형을 기다렸어요. 형수는 웃음도 눈물도 많은 벚꽃 같은 여자였어요. 너무 화사해서. 곁에 있는 사람까지 환해지는. 그런. 형이 없는 형수는 최선을 다해 일상을 살아냈죠. 저도 형을 기다리면서 형수와 시간을 보냈어요. 같은 걸 기다리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때때로 지나치게 외롭고, 온기가 필요하죠. 잘못된 걸 알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형수는 저도 사랑하고 형도 사랑하게 되었다고 했어요. 저도 형수와 형을 같이 사랑했으니 그녀의 말은 진심이었을 거예요. 그런 냄새나는 진심도 있잖아요?”

그가 절박하게 물었다. 수연의 몸에 술기운이 사라지고 서늘한 기운이 돌았다. 이해 못 할 것도 없는 삶의 혼한 조각, 심지어 수연의 곁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조각.

“형은…. 형수와 저의 관계를 아는 것도, 모르는 것도 같았어요. 서핑을 타던, 형이 거센 물살에 밀려 바다에 빠졌고, 구조되어 병원으로 옮겨졌다고 연락받았어요. 형은 절대 물에 빠질 사람이 아니에요. 형은. 잠수사니까요. 형은…. 생을 포기하려 했던 걸까요. 부적절한 형수와 저의 관계 때문에? 너무 사랑했던 자들의 배신 때문에.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자신의 존재를 지우려 한 걸까요?”

그의 집 밖에서 바닷바람이 덜컥 덜컥이며 남루한 대문을 두들겼

다. 쉽게 고백하고 쉽게 잊지 말라고. 비바람이 그의 대문을 거칠게, 두들겼다.

“형은 ‘내가 너를 잊더라도 너는 너를 잊지 마. 괴롭더라도, 너만은 너를 잊지 않아야 해.’라고 말하고 떠났죠. 그 후 형은 이십 년 동안 돌아오지 않았어요. 형을 기다릴 수 없는 형수와 저는 빠르게 타인이 되었어요. 서로를 공격하고 비난하고 불결해했어요. 작년에 형이 필리핀에 있다는 뉴스 신문 기사를 봤어요. 필리핀에서 바다에 빠진 사람들을 구하는 잠수 구조사로 살고 있다고. 사람들을 살리고... 있다고. 저는 살아 있는 게 부끄러워요”

모래사장에서 수연의 울었던 것보다 더한 울림으로 진욱이 흐느꼈다. 너무 구슬퍼서. 모든 게 흔들릴 만큼. 분명한 건 진욱은 형보다 더 상처받았다. 형의 복수는 완벽했다. 가끔 세상엔 그런 일도 있다. 수연은 가끔 세상 모든 것을 낳은 마음이 들었다. 수연이 공백 끝에 조용히 입을 열었다.

“제가 좋아하는 작가가 그러더라고요. 용서라는 건. 사랑하는 거라고, 용서라는 건 그만큼 끔찍하고 긴 시간이 필요한 일이에요.”

살아있는 모든 것들은 애처롭고 가엽다. 답 같은 건 애초에 없다. 수연은 진욱을 안았다. 인간이 인간을 안는 것 밖에 달리 뭐가 있을 리 없다.

소연은 그날 다시 꿈을 꾸었다. 심해의 화산 구멍에서 검은 물이 쿵 쿵 솟구쳐 나온다. 생물이 쉽게 접근할 수 없는 뜨거운 온도에서 화산의 구멍구멍이 펄펄 열리며 팝콘처럼 터지는 모습에 수연이 환히 열

렸다 닫힌다. 낮선 바다의 초대에 수연은 폭발한다. 모래색 등가시치와 백 개의 손가락을 닮은 붉은 관벌레, 초연한 눈의 흰 게가 수연의 폭발에 흔들린다.

새벽잠이 없는 기용이 수연의 옷소매를 흔든다. 수연은 눈을 뜨고 옷소매가 잡힌 채, 창문 밖을 바라보았다. 어스름 거리며 해가 다시 기웃거린다. 테이블 위에서 엎드려 잠든 소연과 달리 진옥은 수감자처럼 몸을 웅크리고 구겨진 종이컵 마냥 바닥에 잠들어있다. 수연이 천천히 고요하게 몸을 일으켜 나갈 준비를 한다. 그러나, 기용이 조심성 없이 미닫이문을 킁킁거리며 활짝 연다. 그 소리와 빛에 진옥이 일어나 엉거주춤 앉았다.

“가시는 거예요?”

“네.”

수연이 운동화를 켜어 신고 마당을 나선다. 한쪽 운동화의 끈이 풀렸지만 대충 다른 끈들 사이로 옥여넣는다. 진옥이 허둥대며 새 양말을 들고 따라 나와 수연의 손에 쥐여주었다. 수연이 깔깔거리며 소리내어 웃어본다. 소리를 내 웃어서 수연은 즐거워졌다.

대문을 잡고 수연이 무언가 생각났다는 듯, 자기 빗장뼈를 가리키며 진옥을 돌아보고 물었다.

“진옥 씨 형님. 혹시 목 밑에... 돌고래 타투가 있었나요?”

눈이 커진 진옥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인다.

수연이 답 대신 환히 웃고, 기용의 손을 잡고 대문 밖을 나선다.

베이지색 어린 고양이가 담장 위에서 수연과 기용을 바라본다. 낮선 골목길 보도블록 사이를 비집고 해를 탐하는 초록 들풀이 올라와서 아우성친다. 바닷바람에 아침이 불어온다.

등대가 늘 있던 자리에서 수연과 기용을 바라본다.

수연은 천천히 스마트폰을 켜다.

그리고 밤새 가득 쌓인 우진의 카톡에 답한다.

“기다려. 내가 지금. 가고 있어.”





제 11회 등대문학상 우수상

# 수필

---

◆◆◆  
김삼복  
김은숙  
변재영



---

## 기도 등대의 지문

제 11회 등대문학상 우수상 ◆ 수필  
김삼복

타오르는 불기둥이다. 두 손끝에 등을 올리고 얼마나 빌었는지 열 손가락이 모두 벌절다. 강고한 방파제 위에 암염처럼 붙어 간절히 기도하는 등대라니,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슴속에 하나쯤은 두고 있을 거룩한 신전 같다. 엄숙한 등대로 인해 주눅 든 우리는 우선 멈춤을 했다. 언제부터인가 섬의 앞바다는 오룡묘의 무녀가 아닌 합장한 기도 등대가 지키고 있다. 바닷바람도 등대 꼭대기에서 서서 목넘 중인지 잔잔한 파고가 알게 너울거린다.

명사십리로 눈길을 돌리는 순간, 긴장이 풀린 바닷바람이 등대 끝에서 성급히 내려와 골목으로 뛰어든다. 우리도 덩달아 바람을 따라 나섰다. 구불구불 들어간 섬 집마다 배를 가르 생선들이 대꼬챙이에 벌어진 속을 훤히 드러내고 있다. 속을 비운 고기 배 속으로 가을별과 짙 바람이 파고든다. 짹짹한 바람에 속을 비운 생선들이 처마 밑에서

알뜰하게 풍장을 하고 있다.

시멘트벽이 부서져 내린 골목 끝에서 바람이 다시 한번 주춤거린다. 목선을 따라 바다로 나간 남편의 빈자리를 메우는 아낙의 그물 손질을 훑쳐본 까닭이다. 한쪽으로 목이 기운 여자의 어깨에 삶의 무게가 올라앉았다. 살아내느라 잃어버린 순한 마음을 그물과 함께 꿰매고 있을까, 옆에서 해찰하는 어린 아들의 이름을 부른다. 볼이 빨갭게 익은 아이가 엄마를 보고 빙긋이 웃으며 물코를 닦는다. 고기를 가득 실은 아이 아버지의 목선은 언제쯤 집으로 돌아올까. 임을 그리다 바위로 굳었다는 망주봉 전설이 오늘은 이 집 마당 안에 고였다.

어스레한 박모가 섬마을을 점령해 동네 어귀를 떠도는 개 한 마리가 늑대로 보이는 시간, 배가 정박하는 선착장이 오늘은 한산하다. 벌써 마을 남정네들이 집으로 돌아갔을까?, 푸른 힘줄에 어귀를 채워 내일 첫새벽에 바다로 나가야 하기 때문이리라. 언제나 바다는 캄캄한 비밀로 출렁였다. 바닷속 비밀을 잡으려 아버지의 아버지가 다닌 바닷길을 아들의 아들이 이어 가는 서해 앞바다. 그물을 던지는 어부는 바다가 주는 만큼 받아야 하는 숙명을 지녔다.

캄캄한 바다 위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는 하얀 보름달이 뜨는 밤에도 등대의 빛을 따라 항구로 길을 튼다. 비밀을 뚫어 주는 긴 광선이 휘휘 수면 위를 더듬으면 목선은 뱃머리를 쳐들고 집으로 향한다. 스스로 빛나는 등대는 배를 끌어당기는 붉은 밧줄을 가졌다. 되돌아올 길을 보여 주고 어선을 끌어당기는 밧줄기를 밤마다 뱃머리로 던진다.

풍진 바다를 헤매는 사람들은 어디서나 등대를 찾는다. 삶의 바다

에서 표류하는 인생의 선장들도 마찬가지로다. 굴곡진 삶의 해안 어느 바위 위에서 불빛은 반짝일까. 저마다 밤을 밝히는 횃불이 타고는 있을까. 밤이 되자 등대가 켜지고 등주 모서리에 기대앉았다. 수평선이 사라진 밤바다를 보며 생각한다. 평생을 무릎으로 당신의 자리를 다 지신 분, 두려움으로 표류할 때마다 찾았던 내 영혼의 등대, 돌아가신 아버지를 그려본다.

만주 땅에서 얻은 고춧이 쇠하여 결핵으로 번졌다고 하였다. 기침 소리가 새벽까지 울렸던 윗목, 할머니는 아들의 병환을 속울음으로 지켜보셨다. 몇 개월의 시한을 남겨두고 힘없이 누워있는 가장을 보는 할머니의 심정은 어떤 말로도 그릴 수가 없다. 그렇게 생을 마칠 수는 없었던 아버지는 마지막으로 새벽마다 뒷산을 오르셨다.

홀로 산의 정적을 향해 외친 기도는 왜소해질 대로 왜소해진 한 사람의 뼈저린 몸부림이었다. 신 앞에 최대한 낮은 포복으로 엎드려 새벽공기를 가르느 통곡이었다. 자신을 전부 내려놓고 드리는 기도만이 하늘을 움직이는 것이라 믿었으리라. 결국 아버지는 지문이 찍힌 하늘의 송장을 받아내셨다. 병이 낫자 가족을 떠나 전쟁고아들을 위한 사명의 길로 들어가셨다. 나음을 기적이라 여겼고 기적에 대한 빛을 짚는 아버지 나름의 의식이었다.

전쟁으로 부모를 잃은 아이들에게 마땅히 배워야 할 사람의 도리를 가르쳤다. 자식들의 구멍 난 신발은 지나쳤어도 거리에서 구걸하는 아이들의 빈손은 지나치지 못했다. 손수 지게를 지고 흙과 돌을 나르며 땅을 일구고 밤에는 동네 아이들과 청년들을 모아 가르쳤다. 모든

호흡이 무거운 짐이었을 아버지의 가슴, 무너진 폐를 안고 달린 생에 대한 투지가 우리에게 눈물겨운 가르침이었다. 거친 삶의 무게를 견사하느라 야윈 등이 활처럼 휘었던 아버지의 뒷모습. 갈비뼈가 다 드러난 마른 모습이 자식들에게 붉은 인장처럼 찍혔다. 청빈한 선비처럼 이름 없이 살아도 삶이 아름다울 수 있음을 배웠다.

밤새 등대는 불을 밝히느라 지쳤는지 꾸벅꾸벅 졸면서 아침을 맞는다. 먼바다에서 만선의 배가 들어온다. 모항으로 들어오는 배들은 뱃머리 품새부터 흥겹게 들썩거린다. 기다렸다는 듯이 바람과 갯비린내가 먼저 달려가 남정네들의 젖은 몸을 닦아준다. 어부 옆에 서 있는 아낙들은 한숨을 놓으며 바다가 내준 펄떡거리는 것들을 바구니에 쓸어 담는다. 포구에서 비린내를 흥정하는 아낙들은 밤새 붉은 기도 등대를 가슴에 들여놓고 두 손을 모아 빌고 빌었으리라. 이제 그녀들은 파도와 비를 잠시 잊어도 좋을 것이다. 기도 등대 또한 걱정으로 굳은 합장을 스르르 풀어도 좋으리라.

새벽바람을 앞세워 섬 둘레길을 걸었던 우리는 또 한 번 발길을 세웠다. 동쪽에서 뜨거운 태양이 수평선을 튕기고 있었다. 공처럼 톱톱 오른 아침 해가 창공을 기어오른다. 어부와 그의 아내와 물고기가 집으로 돌아간 선착장은 참으로 평안하다. 섬에서 하룻밤을 빌리고 합장한 붉은 등대를 보며 무너져 내린 마음을 추슬렀다. 몇 달 전 형부의 몸에서 검은 점이 발견되었고 수술하여 이제는 항암치료를 이겨내는 일만 남았다. 두려움에 떠는 언니의 손을 잡았다. 만신창이가 되어버린 언니는 수술실에 누워있는 형부를 두고 아버지의 기도가 생각났단

다. 어쩌면 아버지가 유산으로 물려주신 유일한 빛의 지문을 다시 보았으리라.

사생결단이 내려진 날의 시커먼 뒷덜미가 아직 다 가지지 않았다. 하기가 비밀의 바다가 출렁이는 것은 저 바다나 삶이 바다나 별반 다르지 않다. 분명 도시에서 포효하는 욕망이 우리를 멀미 나게 했을 터, 부려놓지 못한 욕심이 따개비처럼 붙어 멀쩡한 속살을 파먹고 있었던 것이리라.

섬에서 우리를 몰고 다닌 바람이 힘을 서서히 풀었다. 풀려난 바람에 의지하여 이제 섬을 나가야 한다. 우리의 바다, 출렁거리는 우리의 도시로 힘차게 출항해야 한다. 한 치 바닷속이 저승이었을 어부들처럼 병마와 싸웠던 하루들이 아수라장이었을 아버지. 당신이 생을 다하는 날까지 희망을 놓지 않았듯이 언니도 함부로 소망을 내려놓지 않으리라. 유일한 지문은 결코 지워지지 않을 터, 뒤를 돌아보니 두 손 모은 등대가 우리를 힘껏 밀고 있었다.

---

## 아버지의 그물

제 11회 등대문학상 우수상 + 수필  
김은숙

오랜만에 아버지의 억센 팔이 촘촘한 그물을 밤바다에 던져요. 그물이 펴지며 흐르는 소리가 상쾌한 바람을 일으키죠. 밤이 잠깐 환하게 밝아오는 순간이에요. 그러면 은빛 뱃가죽을 뒤집으며 팔딱팔딱 살아있는 바다의 별들이 이드거니 몰려와요. 그럴 때마다 아버지는 ‘후리!’ 우렁우렁한 목소리로 외치곤 해요. 아버지 얼굴에 피어난 환한 파도는 찌든 걱정과 불안을 몰고 수평선으로 달아납니다. 한동안 바닷속에 별이 뜨지 않아 아버지는 한철 바다를 추슬러 변통해야 했거든요. 바닥은 가난을 담보로 하기 때문이죠.

오늘은 남해에 사는 아버지로부터 묵직한 상자가 왔어요. 상자에서는 구수하고 비릿한 냄새가 흘러나와요. 서둘러 열어보니 동그랗게 눈을 뜬 검은 눈들이 올려다보고 있네요. 아버지가 미처 지우지 못한 바닥의 색깔이 파르스름하게 고여 눈물샘을 자극해요. 꼬들꼬들하고 매

끈한 은빛의 언어는 시도 때도 없이 바다를 노래해요. 가슴이 흥건하게 푸른빛으로 젖을 즈음 마른 멸치 떼는 다시 아버지를 데려갑니다.

남해(南海)에는 비릿한 바닷속에도 은하수가 흘러 다닌다는 것을 아시나요. 은밀한 반짝임은 하늘과 바다에도 존재해요. 누군가 하늘과 바다는 하나로 통한다고 했어요. 그래서일까요. 캄캄한 밤이면 하늘과 바다 사이에 별들이 오가는 걸 보았어요. 그건 어찌면 오래전에 아버지가 잃어버린 꿈일 수도 있어요. 이루지 못한 꿈은 바다로 흘러들어 바람이 되었는데도 모르죠. 그래서 바람이 불면 아버지 어깨가 들썩거리곤 했나 봐요.

누가 저토록 많은 은하수를 바다에 풀어놓았을까요. 수평선과 맞닿은 하늘이 흰 가슴을 열고 바다로 걸어들어오면 죽방렴 삼각 그물 안쪽은 자디잔 별들이 팔딱팔딱 뛰어다녔지요. 봄가을이면 물으로 떠난 그리움 때문에 유속이 빨라져요. 가난의 밑바닥에도 반짝임이 있다고 아버지는 믿었어요.

망에 가득 찬 바다의 속살을 끌어올려 뜰채로 가짜 별들을 분리해요. 조치, 갈치, 도다리, 잔챙이를 뺀 멸치만 산 채로 바구니에 넣어야 하거든요. 바구니가 무거울수록 아버지의 이마에는 비린내가 더 선명해지곤 했어요. 아버지는 싱싱한 별을 좋아해서 별에 취하면 콧노래가 흘러나오죠. 이제 별들에서 진한 비린내가 난다고 해도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도 아버지는 바람의 길목 멀리까지 나왔어요. 제대하고 돌아온 이마가 파릇한 아들과 낡은 뱃머리 끝에 마주 앉아 물밑 은하수의 이

동로를 가듯 살피던 아버지는 “아버가 가난해서 미안하구나” 하며 눈가가 축축해져요. 때론 눈이 침침한지 자꾸 눈을 깜빡거려요. 까무룩 졸며 뱃전에서 부표처럼 흔들리다가 다섯 평 물속으로 뛰어든 적도 있어요.

저 멀리 수평선을 쥐고 있는 아들의 미간에 고단함이 묻어나요. 해변에 복두칠성처럼 늘어진 채반에서는 꾸덕꾸덕 어촌의 하루가 짹조름하게 말라가고요. 갯바람에 미역처럼 검게 탄 아버지는 채반 깊숙이 손을 넣어 쉽사리 마르지 않는, 부자간의 뜨거운 거리를 가늠해 보곤 해요. 아들의 넓은 어깨 뒤로 펼쳐진 바다의 속살을 헤아리던 눈빛에는 지나온 세월이 수평선처럼 아득하네요. 아마도 당신의 젊음을 아들의 곳곳한 등에서 읽히기도 하나 봐요.

가끔은 선실 창가에 구겨진 채 걸터앉은 채납고지서가 먼바다를 먼저 살피기도 하죠. 충전된 바람이 모두 바닥난 선실의 선풍기는 혼자 늘어지게 하품을 하고요. 하지만 다행이랄까요. 남해에서는 태풍이 섬을 적셔도 어부들은 오랜 슬픔에 젖지 않는대요. 바닥은 때로 그 힘으로 바닥을 살리기도 하니까요.

별들은 떼살이어서 산 채로 담아야 싱싱해요. 아버지는 반짝이는 게 춤이라고 말씀하시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춤을 보는 듯 눈빛에 생기가 살아나요. “얘야, 저 몸짓을 보렴, 저 시린 등뼈의 흔들림이 파도를 닮았구나.” 어찌 아름답지 않겠어요. 온몸의 기를 쏟아 파도를 타는 절박한 몸짓이야말로 숭고한 삶인 걸 아버지는 진즉 알아본 거죠.

육지 멀치 막으로 온 별들은 이내 펄펄 끓는 가마솥으로 휩쓸려가



뜨거운 수증기 속에 잠겨요. 팔딱이는 소리가 잠잠해질 무렵, 아버지는 가난이든 별이든 바짝바짝 잘 마르길 원했죠. 반짝이는 것이 가난의 마지막 춤이라는 건 저물녘 그물에 걸려든 멸치들의 몸짓이 말해 줘요. 그때 멸치들은 하늘을 바라보며 온몸으로 춤을 추어요. 멸치들도 제 등뼈가 별빛에 시리다는 걸 아나 봐요. 바다를 누비며 떼 지어 다니다 육지 멸치 막으로 온 멸치는 마지막 삶의 궤적을 은빛으로 갈무리해요.

늑진한 해풍도 멸치처럼 채반에 잘 널어 말리면 갈매기로 환생하고 섬에서는 허공 저쪽으로 날아오른 몇 모금 담배 연기도 흰 돛단배가 된다고 해요. 먼 곳에서 유성비처럼 몰려올 수천수만 개의 별들은 오리온, 카시오페이아 별자리보다 투명하고 환하대요. 그래요, 남해의 멸치 떼는 은빛 파도가 비늘에 알알이 박혀 은박지보다 더 눈부셔요. 파도를 갈무리하는 그것들의 미세한 춤을 위해 바다는 가끔 여러 갈래 물길을 만들어요.

썰물이 되면 지죽해협 삼각 그물 속으로 은하수가 떼 지어 몰려와요. 그 소리는 대나무숲에 이는 바람처럼 청량해요. 죽방렴 물속 길목이 순간 활시위처럼 팽팽해지고 물속에 종아리를 담근 대나무 밭이 병긋병긋 웃음을 쏟는대요. 말뚝 밀 촘촘한 밭가락 사이로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은멸치 떼가 당도한 걸까요? 죽방렴 높이 솟은 대나무 꼭대기에서 망을 보던 햇살들이 휘파람을 부네요. 아버지보다 먼저 공중에 불박인 갈매기들의 환호성이 싱싱하게 튀어 오르는 은별들을 짹째 받아 물고는 하늘 높이 날아올라요.

오늘 밤 당신이 올려다본 밤하늘에는 별이 가득한가요. 아마도 바람결에 비린내가 실려 온다면 그것은 순전히 남해의 푸른 심장이 키운 은빛 지느러미 탓일 거예요. 해풍의 모서리가 둥그렇게 오그라드는 섬 끝에서부터 남해의 별들은 눈을 뜬대요. 죽방렴 캄캄한 수심 아래 푸른 숲의 메아리를 숨겨둔 참나무 말뚝들은 입이 무거워요. 저마다 비린 가족사를 안고 다시 천년을 꿈꾼다네요. 이것은 어쩌면 당신 몸에 지느러미가 처음 돌아났던 그때부터 생긴 비밀일지도 몰라요.

오늘은 아버지가 보낸 편지처럼 내 가슴에도 별들이 팔딱거려요. 그동안 내 삶이 아버지를 포획하는 시간이였다는 걸 각진 나무 상자 안의 은하수가 말해주네요. 아버지가 밤하늘 어딘가에서 내려다보듯 나는 자망(刺網)에 가득 찬 희망일까요. 어찌지 못해 뒤돌아 훑었던 눈물이었을까요. 아버지의 거친 등에 새겨진 청람 빛 바닷바람이 오래도록 가슴에서 떠나지 않아요.



---

## 등대바라기

제 11회 등대문학상 우수상 + 수필  
변재영

등대는 기다림이다. “철썩철썩 썩아아~” 발밑에 초록빛 바다가 출렁인다. 내 유년의 아픔이 섬처럼 동동 떠있는 고향 바다, 그리움이 입맛을 당기듯 짭조름한 갯내가 후각을 파고든다. 쪽빛 바다에 갈맷빛 하늘, 기다림의 상징인 빨간 등대, 맴돌이치는 갈매기들의 군무, 갯바위를 훑는 파도의 몸짓까지 아버지의 짧은 생이 웅크린 낮익은 바다가 아니던가.

보물섬 남해 끝자락, 일명 몰갯님이 내 고향이다. 모래톱에 일군 동네라 붙여진 이름이다. 내가 어릴 때만 해도 작은 어촌에 불과했으나 지금은 면청을 비롯하여 현대식 건물이 숲을 이루고 있다. 물매진 언덕을 오른다. 밤새 혼신의 힘으로 타올랐던 등대가 쉬고 있다. 철망 같은 섬에 갇혀 물을 향해 훨훨 날고 싶었던 까까머리 소년을 기억할까. 문득 코흘리개 적 향수가 내 아픈 기억을 불러낸다.

내가 어릴 때 근육질 단단한 아버지는 거룻배를 타고 바다에 나가면 맨손으로도 힘 좋은 송어를 퍽퍽 잡아 올렸다. 만선을 기다리는 가족의 마음을 읽었을까. 아버지는 늘 만선의 깃발을 높이 내걸고 개선장군처럼 돌아왔다. 신이 난 우리 가족들은 살아 펄떡이는 물고기와 함께 웃었다. 피는 속이지 못하는 법. 고기잡이가 좋았던 나는 출항 때마다 아버지보다 먼저 배에 올랐다. 하지만 번번이 쫓겨났다. 언젠가는 가라앉아야 할 배의 운명을 아버지는 일찍 예감하고 계셨으리라.

축 치진 어깨를 곧추세우는데 자식만 한 게 또 있을까. 조업을 나가지 못하는 날이면 아버지는 나를 목마에 태우고 등대로 향했다. 그곳에서 등대지기가 되어 고기잡이 동요를 흥얼거리며 시간의 빈틈을 메웠다. 내게 아버지는 든든하고 자애로운 등대였다. 나는 늘 행복의 세레나데를 불렀고, 그 사랑의 멜로디가 끝나지 않는 파도 소리처럼 오래오래 내 곁에 머물러주기를 바랐다.

몇 년에 한 번씩은 허기진 바다였다. 온화한 모성은 평온으로 가장한 바다의 위선일 뿐, 짐승처럼 포효하는 아가리에 모든 것을 제물로 바쳐야 했다. 매지구름에 포위된 바다가 갑자기 그르렁거렸다. 바람의 역센 손아귀에 휘감긴 파도가 바다를 덮치는 건 순간이다. 불빛을 잃은 등대가 “뿌우~ 뿌우~” 무적을 울렸지만 배들은 돌아오지 못했다. 짐채 같은 너울이 수평선에 떠있는 배를 산 위에 올려놓던 그날, 아버지와 배는 속절없이 주저앉았다. 바다는 두 발로 서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기대는 것이라고 했던가. 육지보다 바다가 더 편하다고 하시던 아버지는 그렇게 한 줌의 흙이 되어 바다로 돌아갔다. 이팔청춘 호

시절도 누려보지 못한 아버지, 순대 속처럼 구불구불한 바닷길은 굴곡진 당신 인생길의 아픈 시간인지도 모른다.

어머니는 바다가 보기 싫다며 문을 닫아걸었다. 그러기를 반년, 겨우 몸을 추스른 어머니가 나를 데리고 등대에 올랐다. 손에는 물에 입원할 친구에게 전할 의복이라며 작은 옷 보따리를 들고 있었다. 구멍가게에서 눈갈사탕도 한 봉지 사고, 내가 좋아하는 단팥빵도 샀다. 등대 그늘에 자리를 깔고 앉았다. 아버지를 빼앗아간 바다는 언제 그랬냐는 듯 그날은 어린양처럼 순했다. 나는 달콤한 빵을 맛나게 먹었지만 어머니는 구경만 할 뿐 눈갈사탕 하나 입에 대지 않았다. 입꼬리는 웃고 있었지만 슬픈 눈망울은 어딘가 불안했다.

어머니가 나를 꼭 껴안았다.

“영아, 사탕 먹고 잠깐만 기다릴래? 엄마가 선착장에 가서 친구에게 옷 보따리 전하고 올게”

나는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다. 잠시 후 연락선이 둔중한 뱃고동을 울리고는 항구를 빠져나갔다. 나는 어머니의 친구분이 타고 있을 그 배를 향해 손을 흔들었다. 하나 남은 사탕을 다 먹어도 어머니는 돌아오지 않았다. 달이 가고 해가 바뀌어도 소식이 없었다.

가진 것 없이 어둠 속에 내쳐진 스물 중반의 미망인, 중심을 잡지 못하고 표류하던 어머니는 그렇게 희미한 불빛을 찾아 불나방이 되어 날아갔다. “서방 잡아먹은 년”이라는 할머니의 비수 같은 폭언도 한몫했으리라. 기왕 떠날 바엔 야반도주라도 할 일이지 왜 나를 등대까지 데리고 갔을까. 나는 그런 어머니를 이해할 수가 없었다. 분명 겉으로

는 분노했다. 원망하고 미워도 했지만 속은 아니었다. 오히려 그리웠다. 아니, 사랑했다는 것이 솔직한 표현일 것이다.

세상이 무너진다는 말이 빈말이 아니었다. 나는 불 꺼진 등대였다. 나를 향해 반짝이는 불빛은 세상 어디에도 없었다. 갑작스러운 아버지의 부재, 홀연히 떠나버린 어머니의 충격까지 대여섯 살 꼬마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버거웠다. 나는 망망대해에 떠 있는 조각배처럼 흔들거렸다.

그리움은 기다림의 또 다른 이름이다. 나는 눈만 뜨면 등대 바라기가 되어 엄마를 기다렸다. 인생은 기다림이라고 했던가. 고기잡이 나간 아버지를 기다리던 그곳에서 다시 집 나간 엄마를 기다려야 하는 내 운명이 한심하여 자꾸 눈물이 났다. 귀를 등탑에 걸어놓고 낮익은 목소리를 쫓다 보면 선달그믐의 눈썹달이 하염없이 눈물을 쏟아냈다. 바다를 훑어온 칼바람이 등짝을 핏대하듯 쉽게 기다림의 끈을 놓을 수가 없었다. 돌아오기 위해 떠난 배는 다시 왔지만 어머니는 끝내 돌아오지 않았다.

“아니, 이놈아 거긴 왜 가는 거, 기다린다고 떠난 어미가 돌아오냐.”

할머니가 망부석이 된 나를 걱정했지만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뒷산에 두어 번 꽃물이 든 후에 나는 할머니에게 다시 물었다.

“할머니, 엄마 어디 있어요?”

“네 어미는 죽은 거, 다시는 찾지 말거라”

그때까지도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절절한 노기가 묻어났다.

세상이 싫고 사람이 싫었다. 엄마 없이 자는 법을 너무 일찍 배워버

린 내가 기댈 곳은 등대뿐이었다. 언제나 아버지처럼 우뚝 서서 나를 기다리는 등대, 설움이 복받칠 때마다 그곳을 찾았다. 등대에 기대어 실컷 울고 나면 조금은 가슴이 후련해졌다. 어깨를 들썩이며 훌쩍이는 내게 등대가 속삭였다. “사람은 누구나 혼자야, 눈앞의 높은 산도 혼자 넘어야 할 몫이란다.” 그것은 곧 아버지의 목소리였다. 비록 아버지는 떠났지만 내 가슴에 지퍼놓은 등댓불까지 꺼진 건 아니었다. 등대에는 아버지의 따뜻한 온기가 녹아있었다.

빛을 잃어가는 할머니의 등대가 불안했다. 언젠가는 내가 할머니의 등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급했다. 한 조각 슬픔까지 툭툭 털고 일어선 나는 등대가 일러준 대로 푸른 해원을 향해 원대한 꿈을 키웠다. 어떤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는 등대의 천성을 닮으려고 노력하면서……. 고립이 주는 성찰의 시간은 더디게 흘렀다. 환경이 사람을 지배하는 법. 굴곡을 거부하는 등대로부터 바르게 살아야 한다는 몸의 언어를 먼저 배운 나는 일찍 철이 들어 어른 아이가 되어 갔다.

해상의 길잡이로 선박의 눈과 귀가 되어주는 광탑, 아가페적인 사랑의 메신저가 등대의 속살이다. 도시인들에게는 낭만의 음표로, 비손 앞에서는 탑이 되기도 한다. 나래를 접는 물새들에게는 간이역이요, 인생의 지표를 잃고 방황하는 이들에게는 희망과 용기를 주는 구원의 천사가 되기도 한다. 어린 몸으로 절해고도에서 허우적대던 내게 등대는 어떤 존재였을까. 절대 고독의 상징으로 영혼의 불빛이었을지도 모른다. 고통도 시간에 풍화되는 것일까. 지금은 내 삶의 고해에 고운 꽃무늬 하나 추억이라는 이름으로 껍적을 긋는다. 한 모숨 헛살 같았



던 아버지의 등갓불이 그림다.

2010년으로 기억된다. 남북 이산가족 상봉행사가 한창이던 중추절이었다. 뜬금없는 전화 한 통을 받았다.

“오빠, 엄마를 모시고 있는 동생입니다. 염치없지만 생전에 한 번쯤은 꼭 만나 봐야 할 것 같아서…….”

혈혈단신인 내게 오빠라니, 사실 어머니가 살아계셨다. 무언가로 뒤통수를 얻어맞은 듯 머릿속이 멍해졌다. 어머니는 재혼해서 남매를 뒀는데, 지금은 홀로되어 이혼한 딸과 함께 멀리 강원도 속초에 살고 계셨다. 임대 아파트에 산다는 걸 보면 넉넉한 형편은 아닌 듯했다. 기왕에 고친 팔자라면 잘 살았으면 좋으련만……. 당신이 버리고 간 아들을 어떻게 만나느냐고 손사래를 쳤지만 딸이 몰래 전화를 했단다. 엄마 가슴에 뭉쳐있는 웅어리를 풀어줄 사람은 오빠밖에 없다고 말이다.

분꽃같이 곱던 어머니를 호호백발이 되어 마주했다. 기다림에 지쳐 한 줌 눈물마저 말라버린 것일까. 서먹서먹하기만 할 뿐, 부둥켜안고 평평 울고 싶은 마음이 일지 않았다. 어머니라는 소리는 더더욱 나오지 않았다. 모진 진통으로 나를 분만하고 어린 입술에 젖을 물려 배불리 먹였겠지만 기억이 없었다. 반백을 훌쩍 넘긴 해후지만 떠나간 이웃 안부 묻듯 모자 상봉은 그렇게 끝이 났다.

두어 해 뒤다. 어머니가 뇌출혈로 쓰러졌다는 연락이 왔다. 환자복 속에 얼비친 어머니의 몸은 검불처럼 말라 있었다. 수술을 했지만 노환이 겹쳐 결과는 좋지 않았다. 임종을 예견했을까. 어머니가 먼저 입을 열었다.

“미안하다. 너에겐 뭐라고 할 말이 없구나.”

어린 아들을 떼어놓고 가야 했던 당신의 입장을 굳이 변명하지 않았다. 그냥 미안하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순간 가슴속에 있던 뜨거운 덩어리가 식도를 타고 빠르게 올라왔다.

“어머니!”

내 입에서 머뭇거리던 단어가 익숙하게 튀어나왔다. 나도 몰래 어머니를 끌어안았다. 살 냄새인지 소독약 냄새인지 쿼퀴한 냄새가 났다. 아니 어머니의 젖 냄새가 났다. 마른 가슴이지만 고향처럼 아늑했다. “어머니!”이 한마디로 충분했을까. 평온한 얼굴로 눈을 감았다. 그러고는 감은 눈을 다시는 뜨지 않았다. 내 오랜 기다림의 등대가 불빛을 접는 순간이었다.

어느 듯 내게도 인생의 겨울이 발목을 적신다. 그래서일까. 오늘처럼 고향 등대를 찾는 일이 잦아졌다. 어둠이 숙성되는 시간, 밤바다를 향해 등대가 불빛을 뻗는다. 묵혀두었던 깊은 그리움이 전신을 휘감는다. 아버지의 화신인 양 내 가슴에도 등댓불 하나 환하게 타오른다.



# 심사평



## 제 11회 등대문학상 시/시조

시는 항상 대상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낯선 언어들의 경계에서 독창적인 상상력으로 재창조됩니다. 그리고 본 해양문학상을 통해, 응모자들은 바다나 등대와 같은 특정되고 한정된 주제 내에서 자신의 상상력을 발휘하여 멋진 작품들을 창조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응모된 작품들은 제한된 주제 내에서도 최고 수준의 시를 창조하기 위해 모든 상상력을 동원하였으며, 그러한 작품들은 심사위원들의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예심을 거쳐 본선으로 올라온 45편의 작품 중에서 10편이 선정된 이후, 심사위원들은 엄선된 작품들을 중심으로 다시 세심한 평가를 진행했습니다. 최종적으로 「라디오존데」, 「팔미도」, 「등대식당」, 「째보선창」과 같은 작품들이 오랫동안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 네 작품은 모두 작품의 깊이와 각 시인이 지닌 고유한 특색을 잘 표현하였습니다.

「라디오존데」는 소재에 대한 상상력과 시적 장치를 다양하게 표현하면서도, 동시에 감정의 절제를 보여주는 작품으로 신선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반면 「팔미도」는 특색이 있는 작품이지만, 시적 대상의 내면을 더 깊고 섬세하게 투영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또한 「등대식당」과 「째보선창」도 소재의 한계를 뛰어넘어 많은 고민이 담긴 작품이었지만, 서사에 너무 치중된 느낌도 있었습니다. 사물의 자아화 과정이 좀 더 생생했다면 더욱 친근하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심사위원들은 「라디오존데」와 「팔미도」 두 작품을 놓고 오랜 시간을 들여 심혈을 기울인 끝에 「라디오존데」를 최우수상으로 선정하였습니다. 그리고



## 심사위원 권오휘, 도순태

「팔미도」, 「등대식당」, 「짜보선창」을 우수상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수상자들에게 축하를 보내며, 아쉽게 낙선하였지만, 문학적 재능과 무한한 가능성을 보여주신 모든 응모자 여러분들에게도 진심으로 응원과 격려의 말씀을 보냅니다.

## 제 11회 등대문학상 소설

이번 <등대문학상>의 소설 부문 작품은 본심에서 총 40편의 작품을 심사위원들이 서로 돌려 읽어가며, 최종적으로 8편의 작품을 추천하게 되었고, 그 안에서 2편의 작품이 소설 부문에서는 최우수작과 우수작으로 혹은 최종적으로 대상작으로까지 선정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모든 심사위원들이 세심하게 읽고, <땅 끝에서 바다 끝까지>와 <단 하나의 빛>이란 두 작품을 사이에 두고 최종적인 작품 선정 심의를 하게 되었다.

먼저, 소설 부문에서의 최종 심의 결과를 말씀드리기 전에 어려운 주제이기도 한 바다와 등대라는 주제를 가지고 참여한 문학을 사랑하는 시민들과 작가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하게 된다. 거의 모든 작품이 바다, 등대, 그리고 바다와 관련된 직업, 바닷가의 마을 등을 소재로 사랑과 죽음이라는 일반적인 테마에서부터 우리나라의 역사적 문제, 사회의 다양한 어려움을 가장 많이 겪을 수밖에 없는 소수자의 삶, 여기에 일반적인 소설 장르를 넘어서 동화와 판타지 장르까지 폭넓은 시야에서 많은 작품들이 참신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해양 문학이 풍성해질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고 생각한다.

그중에서 <땅 끝에서 바다 끝에서>라는 작품이 최종적으로 소설 부문에서는 최우수작으로 선정되었는데, 바다가 아닌 하늘을 향해 불빛을 쏘고 있는 어둡고 불안한 정조의 불타는 검은 등대 그림과 함께 최근엔 50년이 지난 이후에 간첩 누명에서 해방된 동해안 남북 귀환 어부들의 삶을 소재로 잘못된 시대 상황을 조명하고 있는 역사적 울림이 있는 이야기가 ‘등대’라는 이미지를 어둡게 조명하면서 등대의 빛은 우리의 희망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그것을 찾지 못해 좌초하는 우리들의 삶도



## 심사위원 강희철, 이승현

있는 것처럼, 곳곳에 숨은 '절망'들도 들여다보아야 할 것임을 잘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소설의 이야기에 쉽게 많은 심사위원들이 매혹되었다.

하지만 이런 매혹적인 소재 없이, 다시 말해 뭔가 대단한 역사적 사실들이나 상징적인 비유들이 없지만 헤밍웨이의 〈노인과 바다〉의 이야기처럼, 자신의 일상을 반복적으로 하고 있을 뿐인 등대지기의 삶을 세심한 문체로 보여주는 〈단 하나의 빛〉이 오히려 소설이 지닌 이야기의 힘을 묵묵히 빛나게 하고 있다는 평가 안에서 최종 대상작으로까지 추천되었다. 이외 삶의 뿌리를 찾아 포구마일로 오게 된 주인공의 아픔을 그려낸 〈포세이돈의 귀환〉, 선원의 삶을 기록하듯이 잘 그려낸 〈아버지의 등대〉, 물을 좋아하는 자폐아의 삶을 소재로 한 〈고백의 바다〉 등이 문체나 이야기의 전개가 조금 아쉬웠지만 우수작으로 추천할 수 있었다.

나중에 6인의 심사위원 전원이 최종 대상작을 선정하기 위해 많은 고심을 했지만, '바다'와 '등대'가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물결과 빛으로 다가오는 것처럼, 독자들에게 이야기를 어떻게 쉽게 다가오도록 풀어내는지, 그리고 고민한 문장들을 화려한 기교가 없이도 얼마나 환히 빛나게 하고 있는지를 보면서 〈단 하나의 빛〉이 최종 대상작으로 선정될 수 있었음을 알린다. 앞으로도 다양한 매체의 출몰 속에서도 '문학'이라는 조그만 등대의 빛을 멀리까지 비추는 좋은 작품들이 독자들에게 많은 즐거움을 주었으면 한다.

## 제 11회 등대문학상 수필

수필은 자신의 체험을 서술하여 인생의 의미를 깨닫고 성찰하는 문학 양식이다. 문학작품으로서 수필은 시(서정)와 소설(서사)과 다르면서 수필(교술)만의 고유한 문학성을 지닌다. 수필은 그 형식이 자유롭다지만 글쓴이의 체험과 철학이 고스란히 담기고, 개인의 특수성이 어떻게 보편성을 끌어내는가가 관건이기 때문에 어렵다면 매우 어려운 장르이다. 자기 경험과 이야기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서술의 전체 과정을 한 편의 문학작품으로 형상화하는 과정이 중요하다.

제11회 등대문학상의 수필 분야에 예심을 거쳐 본심에 오른 작품은 40편이다. 먼저 심사위원 각자 본심에 넘어온 작품들을 정독하고 각 10편씩의 우수작을 선정하여 그중 공통으로 선택된 작품들을 대상으로 심의해 수상작을 내기로 하였다. 심사위원들의 최종 논의를 거친 작품은 「떨」, 「기도등대의 지문」, 「아버지의 그물」, 「등대바라기」였다. 심사위원들은 작품을 이루는 구성 요소들의 응집력과 구성력 그리고 작품 완성도 등에서 다른 작품보다 앞선다고 생각한 「떨」을 최우수작으로 정하고 그 나머지 작품들을 우수작으로 선하였다.

「떨」은 갯벌이 가진 시간적 원형성과 함께 삶터로서의 장소성을 충분히 구현하고 있어 깊이 있는 작품으로 다가왔다. 글을 끌고 나가는 서정이 돋보였으며 갯벌의 생명성을 존재론적 감각으로 펼쳐내는 문장력이 좋았다. 갯벌의 속성과 물때를 맞추는 힘, 망망대해의 출발로 보는 시선 등 생태계 묘사에서 글쓴이의 응시가 예사롭지 않았다. 또한 기억과 현재를 묘사하면서 ‘뒷개’가 가진 포용과 순리의 철학을 잘 이끌어낸 참신함이 뛰어났다. 「기도등대의 지문」은 묘사가 뛰어난 작품이었다. 특히 등대에서 생명의 지문을 발견하는 부분이 매우 감동적이었다. 설명적이지 않은 함축적 묘사와 문장들이 인상적이었고, 본심에 올라온 작품들이 등대에서 유추해내는 주제가 거의 비슷하였지만 이 작품에서는 기도하는 자세를 읽어내면서 아버지의 소망을 통해 생명의 지문을 발견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 심사위원 김수우, 나정욱

「아버지의 그물」은 아름다운 수필이다. 묘사가 뛰어나고 서정성이 뛰어나 마치 아름다운 은하수의 세계를 다녀온 것 같았다. 멸치 떼를 은하수에 비유하며 아버지의 삶과 사랑을 꼼꼼히 들여다보고 있다. 은하수의 춤으로 비유한 멸치 떼들의 생동감이 아름다운 글맛을 서정적으로 잘 살려내고 있다. 「등대바라기」는 등대에서 기다림과 그리움이라는 원초적 감정과 그 뿌리를 깊이 있게 읽어낸다. 등대를 둘러싸고 있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삶, 관계 등 그 트라우마를 다룬 개인의 체험적 서사가 아프게 읽혔다. 하지만 기다림과 그리움은 상처이면서 동시에 회복의 능력임을 등대라는 상징을 통해 잘 보여주고 있다.

수필을 비롯한 문학작품은 삶의 등대 역할을 수행하며, 작가는 등대지기를 자처하는 사람들이다. 바다를 향해하는 선박에 있어 등대의 역할은 그만큼 중요하며 훌륭한 문학작품은 사람들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 등대와 바다를 상징적으로 잘 드러낸 문학작품 사례로 <출항(The Voyage Out)>, <등대로(To the Lighthouse)> 등의 작품을 쓴 ‘버지니아 울프’의 문학과 삶을 들 수 있다. 그녀로 하여 문학의 영역은 한층 더 확장 되었으며 나아가 사람들의 삶도 바다처럼 더욱 깊어지고 넓어졌다.


바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현실을 우리는 살고 있다. 그런 현실을 오늘의 바다로 살고 있는 모든 분들께 경의를 표한다. 이번 등대문학상 공모전에 입상하신 분들께는 축하의 인사를 드리며, 비록 입상작으로 선정되지는 못했지만 창작의 열정을 작품으로 보내주신 분들께 깊은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전한다. 끝으로 해양수산부에서 주최하고 한국항로표지기술원, 울산지방해양수산청, 울산항만공사 주관으로 매해 등대문학상 공모전을 시행하여 한국 문학 및 해양문학의 발전에 도움을 주시는 관계자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 제 11회 등대문학상 수상 작품집

**발행일** 2023.11.

**발행인** 한국항로표지기술원장 박광열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양진문  
울산항만공사 사장 김재균

**발행처** 한국항로표지기술원(국립등대박물관)  
울산지방해양수산청 항로표지과  
울산항만공사 대외협력팀

 한국항로표지기술원

 울산지방해양수산청

 울산항만공사  
ULSAN PORT AUTHORITY



9 773022 349006

ISSN 3022-3490

# 제11회 등대문학상 수상 작품집

| 주최 |



해양수산부

| 주관 |



한국항로표지기술원



울산지방해양수산청



울산항만공사  
ULSAN PORT AUTHORITY

